

第227回 忠清北道教育委員會(臨時會)

會 議 錄

(2009.3.17. ~ 3.18.)

忠清北道教育委員會

第227回 忠清北道教育委員會(臨時會)

本 會 議 會 議 錄

忠清北道教育委員會

목 차

I. 개회식	3
II. 제227회 충청북도교육위원회(임시회) 제1차 본회의	5
III. 부 록	
1. 의사일정안	9
2. 지역교육청주요업무계획보고 회의록	11
IV. 별 책 부 록	
▶ 2009년도 주요업무계획	

本 會 議 會 議 錄

忠清北道教育委員會 議事局

2009년 3월 17일 (화요일) 11시 00분

開會式順(第227回 臨時會 開會式)

1. 개식
2. 국기에 대한 경례
3. 폐식

(사회:의사담당 객종수)

(11시 00분 개식)

이상으로 개회식을 마치고 이어서 본회의
를 시작하겠습니다.

● 의사담당 객종수

지금부터 제227회 충청북도교육위원회
임시회 개회식을 시작하겠습니다.

(11시 02분 폐식)

먼저 국기에 대한 경례가 있겠습니다.

자리에서 일어나 전면의 국기를 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동 기립)

국기에 대하여 경례.

(주악)

바로.

자리에 앉아서주시기 바랍니다.

(일동 착석)

本 會 議 會 議 錄

忠清北道教育委員會 議事局

2009년 3월 17일 (화) 11시 02분

議事日程 (제227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1. 제227회충청북도교육위원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
2. 2009년도지역교육청주요업무계획보고의건

附議된 案件

1. 경과보고(의사과장)
2. 제227회충청북도교육위원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의장 제의)
3. 2009년도지역교육청주요업무계획보고의건(의장 제의)

(11시 02분 개의)

● 의장대리 김부웅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7회 충청북도교육위원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오늘 회의는 곽정수 의장님의 일신상의 사유로 제가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회의가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많은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1. 경과보고

● 의장대리 김부웅

다음에는 의사과장으로부터 임시회 집

회 및 의안접수 상황 등에 대한 보고가 있겠습니다.

● 의사과장 김길흠

의사과장 김길흠입니다.

임시회 소집요구와 안전접수 상황, 그리고 이번 회기중 처리할 안건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임시회 집회 및 안전접수에 관한 사항입니다.

2009년도 3월 9일 김병우 교육위원 회 5인으로부터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부칙 제2조에 의거 적용되는 종전 같은 법률 제10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2009년도 지역교육청의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제227회-제1차 본회의]

청취하고자 임시회 집회를 요구하여 2009년 3월 10일 제227회 충청북도교육위원회 임시회 집회를 공고하고 오늘 개최하게 되었습니다.

이번 임시회 회기중에는 2009년도 지역교육청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들으시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의장대리 김부웅

의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2. 제227회충청북도교육위원회(임시회)

회기결정의건

(11시 04분)

● 의장대리 김부웅

다음에는 의사일정 제1항 제227회충청북도교육위원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제227회 임시회 회기는 3월 17일과 3월 18일 2일간으로 하여 오늘 제1차 본회의에서는 이번 임시회 회기 결정과 2009년도지역교육청주요업무계획보고의건을 처리하시고, 3월 18일은 본회의를 휴회하고 지역교육청의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청취하신 후 이번 임시회를 마치고자 하는데 본 의사일정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네, 이의가 없으므로 제227회 충청북도

교육위원회 임시회 회기는 3월 17일부터 3월 18일까지 2일간으로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참 조 : 의사일정안(별첨 1)

(끝에 실음)

3. 2009년도지역교육청주요업무계획보고의건

(11시 05분)

● 의장대리 김부웅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09년도지역교육청주요업무계획보고의건을 상정합니다.

본 건에 대해서는 제가 제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목적은 2009년도 지역교육청의 주요업무계획을 청취하고 질의 및 답변을 통하여 지역교육청에 대한 업무를 파악하고 자료를 수집하여 의정활동에 활용하고자 하는 것이며, 일시 및 대상기관은 3월 18일 11개 지역교육청이 되겠습니다.

이에 대해서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네,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2009년도지역교육청주요업무계획보고의건은 제가 제의한 대로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에는 회의록 서명위원을 정하도록

[제227회-제1차 본회의]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마치고자 합니다.
이번 제227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은 정 다.
무 위원님과 서수웅 위원님께서 수고하여 제227회 충청북도교육위원회 임시회 제
주시기 바랍니다. 1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07분 산회)

○출석위원 : 5명

부의장 김부웅,
위원 서수웅, 성영웅, 이상일, 정무.

○출석공무원 : 15명

교육감 이기용, 부교육감 우승구, 교육국장 전재원,
기획관리국장 이장길, 공보감사담당관 황익상, 학교정책과장 홍순규,
초등교육과장 윤병준, 중등교육과장 이수철, 산업정보평생과장 김경숙,
체육보건급식과장 이종찬, 총무과장 서재문, 기획관리과장 홍준기,
행정예산과장 윤기성, 재무과장 박노화, 시설과장 안세열.

※ 부 록


- ▶ 의사일정안(별첨 1)
- ▶ 지역교육청주요업무계획보고 회의록(별첨 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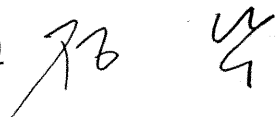
※ 별 책 부 록


- ▶ 2009년도주요업무계획


제227회 충청북도교육위원회 임시회 본회의 회의록을
위와 같이 작성하고 아래와 같이 연서함

2009. 3 .

부 의 장 김 부 용 

위 원 정 무 

위 원 서 수 응 

의사국장 구 명 회 

(별첨 1)

의 사 일 정 (안)

제227회 충청북도교육위원회(임시회)

2009. 3. 17. ~ 3. 18.(2일간)

일 시	부 의 안 건	비 고
3월 17일(화) 11:00	<input type="checkbox"/> 개 회 식 [제1차 본회의] 1. 제227회 충청북도교육위원회(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 회 기 : 2009. 3. 17. ~ 3. 18. (2일간) 2. 2009년도 지역교육청 주요업무계획 보고의 건 <input type="checkbox"/> 산 회	
3월 18일(수) 10:00~	<input type="checkbox"/> 2009년도 지역교육청 주요업무계획 보고	본회의휴회

(별첨 2)

지역교육청주요업무계획보고 회의록

·일 시 : 2009. 3. 18.(수) 10:00

·장 소 : 소위원회실

충청북도교육위원회

(10시 00분 회의시작)

● 의장대리 김부웅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되었고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주요업무 보고는곽정수 의장의 일신상 이유로 제가 진행을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 교육위원 여러분!

그리고 청주교육청 신우인 교육장님, 청원교육청 권오삼 교육장님, 보은교육청 김중규 교육장님, 옥천교육청 이은자 교육장님, 영동교육청 조용남 교육장님!

이렇게 한 자리에서 뵈게 되어 매우 반갑습니다.

오늘 바쁘신 중에도 주요업무 보고를 위해서 자리를 함께 해 주신 지역의 교육장님과 교육과장님께 우선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특히 지난 3월 1일자로 교육장의 중책을 맡으신 신우인 교육장님, 권오삼 교육장님, 이은자 교육장님, 조용남 교육장님께서는 다시 한번 축하의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교육위원회에서는 지난 1월과 2월에 개최된 임시회 회기중에 도교육청과 직속기관의 2009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청취한 바 있습니다.

이번 회기에는 지역교육청 2009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한 보고를 청취하고자 자리를 마련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보고하게 되는 주요업무계획은 금년 1년간의 교육활동 및 교육행정계획이 총 결집되어 있는 가장 기본이 되는 계획입니다.

우리 교육위원회에서도 그 내용 및 기관별 현안 문제 등을 파악하여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쳐나가는데 활용하고자 합니다.

또한 이러한 기회가 교육위원님과 교육장님들간의 진지하고 심도있는 협의의 자리가 되어서 충북교육의 한 단계 더 도약할 수 있는 계기가 되기를 충심으로 기원하며 인사에 갈음하겠습니다.

그러면 참석하신 교육장님을 대표해서 청주교육청 신우인 교육장님께서 간단히 인사 말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청주교육청 교육장 신우인

청주교육청 교육장 신우인입니다.

싱그러운 새 봄의 기운이 온누리에 가득한 오늘 충북교육 발전을 위해 헌신 봉사하시는 존경하는 김부웅 임시의장님을 비롯한 교육위원님!

그리고 지역 교육장님들과 함께 한 2009학년도 주요업무 보고를 드리게 됨을 뜻 깊고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

이런 자리를 마련해 주신 교육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08년도 충북교육의 성과는 모든 분야에서 타의 모범이 되는 저력을 보여 주었

[지역교육청주요업무계획보고]

습니다.

이런 결실은 위원님들께서 교육에 대한 높은 안목으로 매사 적극적으로 뒷받침해 주시고 격려해 주신 결과임에 지역교육청을 대표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오늘 이 자리에서 보고되는 각 지역교육청의 2009년도의 주요업무들은 능력과 품성을 겸비한 세계인 육성을 주도할 충북교육이 또 한 단계 도약할 수 있는 기틀을 마련하는데 크게 기여하여 충북의 모든 교육가족들이 자기 역량을 결집할 것을 다짐하는 소중한 자리로서 일류 충북교육 실현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며, 위원님 여러분의 끊임없는 지도 편달을 부탁드립니다 인사에 갈음합니다.

● 의장대리 김부웅

신우인 교육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회의의 효율적인 진행을 위해서 지역교육청 주요업무 보고 청취 및 질의 답변 방법에 대하여 간단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보고하실 순서는 청주, 청원, 보은, 옥천, 영동 순으로 진행을 하겠으며, 기관별 공통적인 사항은 보고서로 대체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고, 주요사업 및 특색사업을 중심으로 해서 10분 내외로 보고될 수 있도록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관별로 보고를 모두 들으신 후 위원님들의 질의 답변 순서를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및 답변 순서는 위원님들의 신청에 따라 일문일답으로 진행하겠으며, 질의 및 답변은 시간 여건상 위원님 1인당 15분 이내로 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먼저 청주교육청 신우인 교육장님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청주교육청, 청원교육청, 보은교육청, 옥천교육청, 영동교육청 순으로 업무 보고)

▶ 참 조 : 2009년도 주요업무계획(별책)

● 의장대리 김부웅

회의를 시작한 지 1시간 정도 경과했습니다.

10분간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50분 회의중지)

(11시 00분 회의계속)

● 의장대리 김부웅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요업무 보고회를 속개하겠습니다.

전 시간에 지역교육청별 주요업무에 대한 보고를 들었습니다.

이 보고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을 시작하겠습니다.

질의 및 답변은 위원님들 신청 순에 따라서 일문일답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네, 정무 위원님 질의를 시작하십시오.

● 정무 위원

정무 교육위원입니다.

먼저 2009 새 학년도를 맞이해서 지역의 교육수장으로 발탁되신 청주 신우인 교육장님, 청원 권오삼 교육장님, 옥천 이은자 교육장님, 영동 조용남 교육장님께 다시 한번 축하를 드립니다.

이제 취임하신 지가 보름밖에 안되셨는데 주요업무계획을 파악하시느라고 고생이 많으셨으리라 생각이 듭니다.

매년 이맘 때, 3월이 되면 매년 이런 자리를 마련해서 새로 부임하신 교육장님들께서 하루라도 업무를 빨리 파악하여 공백없는 교육시책을 수행하라는 소명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먼저 청주교육청 신우인 교육장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청주 하면 누구나 교육도시, 아니면 세계 최고의 금속활자 직지의 고장이라고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충북의 심장으로서 교육 문화 경제의 중심지이며 충북 도민의 42%, 약 65만명이 충·효·예를 숭상하며 살고 있는 맑고 깨끗한 고장입니다.

한마디로 충북교육은 청주교육이 잘 되

느냐 안 되느냐에 따라 사활이 걸려 있다고 하겠습니다.

이렇게 막중한 중책을 맡으신 신우인 청주 교육장님께서서는 업무가 굉장히 많은데 그 중에서 가장 중요한 업무가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는지 간략하게 생각나시는 대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청주교육청 교육장 신우인

청주 교육장 신우인입니다.

지금 우리 정무 위원님께서 좋은 질문을 해 주셨는데요, 그렇습니다. 올 2월달에 학업성취도 발표 이후 저희들 시민들은 공황에 빠져있는 그런 상태인 것 같습니다.

그 이유는 뭐 다 아시겠지만 저희들 충북 학생들의 성적이 별로 좋지를 않습니다.

이거에 초점을 맞춰서 첫째도 학력, 둘째도 학력, 셋째도 학력, 학력에 전력투구하려고 합니다.

또 학력만 부르짖다보면 학생들의 인성이 좀 뒤떨어질 그런 부분도 있을 것 같아서요 인성을 바탕으로 한 조화로운 학력신장을 위해서 온 힘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 정무 위원

아주 좋으신 말씀입니다.

저와 동감입니다. 저도 그렇게 생각하는데 지난달 학업평가 결과 분석표를 보

[지역교육청주요업무계획보고]

고 저도 많이 놀라는 한편, 실망이랄까 기대에 조금 어긋나는 것 같아서 아쉬움을 금치 못했는데 지금 교육장님께서도 똑같은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기초학력 미달이라 하면 다음 학년도 수업을 정상적으로 수행할 수 없는 것을 말하죠?

● 청주교육청 교육장 신우인

예, 그렇습니다.

● 정무 위원

그런데 우리 충청북도가 전국 대비 2.54%보다도 그 기초학력 미달 학생이 높게 나왔습니다. 청주시, 제천시를 제외하고는 거의 다 높게 나온 걸로 알고 있는데 해당 학년 학생들에게 기대되는 최소 목표수준을 도달하기 위해서는 지금 주요 업무계획에 나와 있는 것을 보면 지금 어느 교육청이건 굉장히 치밀한 계획을 세워서 하시는데 이게 잘 안 되는 원인이 어디 있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 청주교육청 교육장 신우인

제가 생각하기로는 아무래도 선생님들 또 관리자들의 어떤 관심 부족도 아마도 일정 부분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또 그 학생들의 학업성취욕이 좀 떨어지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런 부분은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학력미달자와 기초학력미달자와 저소득

층 아이들은 비례한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아마 각 학교의 대개의 경우가 기초학력 부족이 되는 학생들은 결국 저소득층 자녀, 또는 한부모 가정, 이렇게 가정이 좋지 않은 애들한테 문제가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아마도 이것들을 해결하려면 그런 아이들을 좀 관심있게 보살피는 것이 아마도 큰 도움이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입니다.

● 정무 위원

그렇습니다.

교육은 투자입니다.

투자기 때문에 도시의 생활형편이 좋은 데는 투자를 많이 하기 때문에 아무래도 높아질 수밖에 없고 농어촌으로 갈수록 생활이 빈곤하기 때문에 투자를 못한다는 그런 이치가 맞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 충북은 한마디로 심각한 수준 단계에 와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이것을 해결하는 방법은 교육장님을 비롯해서 교장선생님, 교감선생님, 부장 선생님, 지도교사, 담임교사 모두가 역량을 한층 강화해서 학력 부진 학생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가 이루어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먼저 3월 10일날 일제고사를 본다고 했다가 연기된 걸로 알고 있는데.

● 청주교육청 교육장 신우인

예, 그렇습니다.

● 정무 위원

3월 30일인가요?

● 청주교육청 교육장 신우인

31일입니다.

● 정무 위원

그러면 그 때는 기대에 어긋나지 않게 좋은 성적이 나오기를 바라겠습니다.

● 청주교육청 교육장 신우인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 정무 위원

다음 질문입니다.

산남동에 신축중인 청주교육청 청사 이전 사업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교육장님, 부임하시고서 신축현장에 한번 가보셨나요?

● 청주교육청 교육장 신우인

죄송합니다.

한 번 못 가봤습니다.

그런데 맨 처음에 첫 삽을 뜰 때는 가 봤습니다.

그런데 아직 가보지 못하고 현장 사항만 보고를 받았습니니다.

● 정무 위원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지금 공정이 어느 정도 진척이 됐는지는.....

● 청주교육청 교육장 신우인

예, 알고 있습니다.

2008년도 8월에 착공을 해서요 지금 공정율이 3월 1일 현재 제가 보고받기로는 지금 한 55% 정도 공정율을 보이고 있습니다.

준공날짜는 2009년도 8월말까지입니다.

이게 준공이 되면 2009년도 9월에 청사이전을 완료할까 합니다.

● 정무 위원

교육장님께서 자주 좀 현장에 보시고 공정이 잘 설계대로 잘 될 수 있도록.....

● 청주교육청 교육장 신우인

우리 기술직 공무원들이 매일 가서 감리 감독을 하고 있습니다.

● 정무 위원

물론 담당자도 할 테지만은 교육장님도 관심을 갖고 시간 나시는 대로 디다보시고 참견을 많이 하셔서 좋은 교육청이 탄생할 수 있도록 이렇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 청주교육청 교육장 신우인

예, 노력하겠습니다.

● 정무 위원

그리고 제가 몇 년 전부터 궁금하게, 또 강조해 온 사항인데 32쪽에 보니까 학교지킴이와 배움터지킴이가 있습니다.

그게 같은 말입니까? 내용이 다릅니까?

● 청주교육청 교육장 신우인

저는 내용이 틀리다고 해석을 하고 있

[지역교육청주요업무계획보고]

습니다.

배움터지킴이는 우리 교과부하고 지찾에서 지원하는 요원들을 배움터지킴이라고 하고요, 아마 학교지킴이는 자원봉사 활동을 중심으로 해서 이루어지는 그런 범죄예방단체에서 또는 삼락회 교원들이 모여서 하는 교통정리 이런 것들이 학교지킴이고, 배움터지킴이는 유급, 봉급을 지급하고 지자체나 우리 도교육청에서 지원하는 사업으로 이렇게 해석하고 있습니다.

● 정무 위원

본인이 배움터지킴이에 대해서 지난 5월달에 교육행정질문에서도 질문한 적이 있는데 그 배움터지킴이를 공모해서 임용을 하시는데 교장선생님들이, 지금 청주시내에 중·고등학교가 한 60개 되죠?

● 청주교육청 교육장 신우인

지금 저희들 중학교가 34개교입니다. 그리고 초등학교가 59개교고요.

● 정무 위원

초등학교 빼고, 중·고등학교.

● 청주교육청 교육장 신우인

중·고등학교가 한.....

● 정무 위원

한 60개?

● 청주교육청 교육장 신우인

예, 그렇게 되겠습니다.

● 정무 위원

학교가 자꾸 증가하기 때문에 확실한 숫자를 모르는데.....

● 청주교육청 교육장 신우인

지금 고등학교는 증가를 안하고 있고 장 그렇습니다.

● 정무 위원

거기에 작년에는 8개 학교에 배움터지킴이를 임명한 것으로 알고 있어요.

● 청주교육청 교육장 신우인

예, 작년에 추가로 지원을 했을 겁니다. 점점 늘어나는 추세입니다.

● 정무 위원

그 배움터지킴이를 임용하는데 퇴직한 교원들은 별로 안쓰고 대개 경찰관 출신들, 아니면 생활상담사라든지 이런 분들을 많이 하고 그래서 이왕이면 배움터지킴이에 우리 교원 출신들을 많이 임용해 주십사하는 부탁을 작년에 우리 국장님께 말씀드렸더니 국장님이 2009년도에는 많이 될 수 있도록 해보겠다고 약속을 하신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올해 그 임용사항이 어떻게 됐나 궁금해서 좀 알고 싶은데.

● 청주교육청 교육장 신우인

아직 임용이 됐다는 보고는 제가 못 들었어요.

● 정무 위원

1월인가 공모를 해서 2월에 해서 3월에는 이렇게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 **청주교육청 교육장 신우인**

그 문제는요 단순치가 않습니다.

우선은 퇴직하신 우리 교육동지 선배님들은 희망을 별로 안 하는 편입니다, 청주 시내에서는.

● **정무 위원**

희망을 안하는 게 아니라 잘 모르는 것 같던데요.

● **청주교육청 교육장 신우인**

그게 많이 알고 있거든요. 알고 있는데 희망을 기피하는 현상이 있고 또 학교 관리자들이 퇴직한 경찰공무원을 선호하는 이유 중의 하나가 그 분들이 경찰에 투신해 있기 때문에 학교폭력이나 이런 것들에 대한 해결할 수 있는 어떤 능력들이 좀 뛰어납니다. 정보력도 있고요. 그래서 관리자들이 선호하는 것은 아마도 경찰 퇴직공무원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하고 있고요, 교장선생님들이 또 퇴직하신 우리 선생님들을 채용을 하게 되면 옛날에 같이 근무한 그런 경력도 있고 모시기도 힘들어서 그런 어떤 기피현상이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그런데 희망을 하게 되면 적극 우리가 도와드려야죠.

● **정무 위원**

그래서 교육장님께서 그 희망하시는 퇴직교원들이 계시면 그 분들이 퇴직을 하시고서도 학교에 대한 열정을 버리지 못

하고 한번 봉사하고 싶은 마음에서 그렇게 하시는 것 같으니까 그 삼락회 같은데 연락을 하면 거기서 잘 될 것 같습니다. 잘 모르는 것 같아요. 나한테 전화한 분이 있어요. 그래서 내가 앞으로 교육장님들한테 말씀을 드려서 우리 퇴직하신 교원들께서 거기 많이 참여할 수 있도록 제가 말씀드리겠다고 약속한 적이 있습니다.

이런 것을 감안하셔서 앞으로 배움터지킴이에 여러 가지 이유로 꺼리신다는 이유도 있겠지만은 그 분들의 열정이 아직도 학교를 사랑하는 마음이 있으니까 거기에 대한 것을 충분히 이해하시고 좀 많이 임용될 수 있도록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 **청주교육청 교육장 신우인**

예, 그러겠습니다.

● **정무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보은 교육장님께 질문하겠습니다.

미래를 주도할 참되고 창의적인 인간육성을 위해서 정일품 보은교육을 실현하고자 노력하시는 보은교육청 김중규 교육장을 비롯한 관계관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지난해 9월 행정사무감사 나갔을 때 본 위원이 지역문화벨트 사업에 대해서 질의한 바가 있습니다.

[지역교육청주요업무계획보고]

주요업무 60쪽에 보면 보은 동학축제, 오장환문학제, 속리산 단풍축제에 유치원부터 고등학생에 이르기까지 교직원, 유관기관 직원, 또 지역주민 등 많은 사람이 참여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외에도 보은군에서 실시되는 보은대추축제, 보은민속소싸움 등 전국단위로 행사가 실시되고 있어 한마디로 행사가 너무 많아서 교육하는데 혼란스러운 면이 있을 것 같은데 교육장님 어떻게 생각합니까.

● 보은교육청 교육장 김중규

보은 교육장 김중규입니다.

정무 위원님께서 좋은 지적을 해 주셨는데요 사실은 저희들이 교육활동에 지장이 있을 정도는 참여를 하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서 동학축제 같은 경우에 글짓기를 한다면 학교에서 해가지고 제출하는 경우도 있고 직접 참여하는 경우도 있지만은 또 참여할 때는 우리 학생들 체험학습 시간이 있습니다. 그런 시간을 활용을 하기도 하고, 또 아까 말씀드린 대로 다 전 학생이 참여하는 것이 아니고 학교에서 행사를 해가지고 그 결과물을 제출하기도 하고 하기 때문에 그렇게 커다란 교육활동에는 지장이 없는 걸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 정무 위원

행사에 많이 참여시키다보면 학력제고

에 문제가 있을 것 같아서 그래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지금 청주 교육장님께도 학력제고에 대한 얘기를 했지만 적국 대비 2.54%보다도 우리가 모두 다 군단위 이상 높게 나왔습니다.

그래서 또 영어 같은 과목은 무려 전국 대비 1.4%보다도 여섯 배, 또는 다섯 배씩 이렇게 높게 나타난 군도 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심각한 문제가 아닐 수 없기 때문에 행사를 자제해 달라는 뜻에서 부탁을 드렸습니다.

요 며칠전 1회 추경예산을 심사하다보니까 보은 수정초등학교에 4억 9,000, 약 5억원을 들여서 운동부 체력단련실을 짓는다고 했습니다. 어떻게 짓는 건지, 또 규모나 용도가 어떻게 되는 건지, 체력단련실하고 다목적실하고는 뭐가 다른 건지 잘 이해가 안 가는데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 보은교육청 교육장 김중규

보은 교육장 김중규입니다.

수정초등학교에 체력단련실을 짓는 것은 그 규모가 체력단련실이 2실이 있고요 휴게실이 0.5실, 그 다음에 관리실이 0.5실입니다.

이것은 어떻게 되느냐 하면 저희 군이 전국 꿈나무라든가 육상 꿈나무라든가 또 대표선수들이 보은에 와서 그 속리산에

와서 많은 전지훈련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전지훈련을 하다보니까 그 사람들이 유기적으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무래도 학교 저기를 사용해야 되는데 속리산에는 그렇게 커다란 학교가 없습니다.

그래서 수정초등학교에다가 짓게 해달라고 해서 교육감님께 말씀을 드렸는데, 교육감님께서서는 그것을 다른 사람들이 쓰는 것도 좋지만 기왕이면 수정초등학교에서도 같이 쓸 수 있고 수정초등학교 도움을 줄 수 있는 이런 저기로다가 한번 만들어 보라 말씀을 하셔가지고, 저희들이 아시다시피 수정초등학교가 전국적으로 유명한 밤에도 열리는 학교 해서 굉장히 유명해서 지난번 인도네시아라든가 필리핀에서도 교육감님들하고 오셔가지고 시찰을 오는 덴데, 사실은 선생님들이 밤늦게까지 계시는데 휴게실이 별로 없어요. 그래서 그것을 겸사겸사 해서 휴게실 겸해서 웨이트트레이닝 장소를 짓는 겁니다.

그래서 학교에서도 활용할 수 있고 또 전지훈련으로는 대표선수들이 활용할 수 있는 이런 웨이트트레이닝 장소를 만드는 것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 정무 위원

제 생각 같아서는요 지자체에서 조금만 대 주면 다목적교실 같은 거 지을 수가 있는데.....

● 보은교육청 교육장 김중규

다목적교실은 수정학교의 저기를 보시면 알겠지만 수정초등학교가 원래 법주사 대지입니다. 그 지상권만 저희들한테 있지 법주사 것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마음대로 거기다 지을 수도 없을 뿐더러 저기가 나오지 않습니다, 그 규모가. 나오지를 않아서, 이것은 다른 애깁니다만은 문광부하고 이렇게 해서 속리중학교에 시설을 만들어 주는 겁니다. 지자체하고 문광체육부인가 거기서 해가지고 한 10억 정도 내려보내서 지자체에서, 또 보은군청에서 5억을 주고 이래가지고 거기다가 정규 우리 학생들도 사용할 수 있는 잔디구장과 트랙을 전부 만들어주기로 했지 수정초등학교는 그것을 할 곳이 없습니다.

● 정무 위원

현재 1회 추경예산에 보면 운동부 체력 단련실이라는 게 있거든요. 운동부는 있는 거예요?

● 보은교육청 교육장 김중규

운동부는 롤러스케이트하고 테니스 선수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학생들이 런닝이나 이런 게 아니라 웨이트트레이닝을 하는 장소로 같이 사용하는 걸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 정무 위원

한 가지만 더 질문하겠습니다.

지난 해 37회 전국소년체전에서 보은은

[지역교육청주요업무계획보고]

인라인롤러 부문에서 금 1, 은 1, 동 1 해서 이렇게 메달 세 개를 딴 걸로 알고 있습니다. 군 단위에서 괄목할만한 성과를 거둔 걸로. 그런데 이번 금년에 소년 체전 전망은 어떻게 보시는지요.

● 보은교육청 교육장 김중규

보은 교육장 김중규입니다.

역시 작년과 마찬가지로 저희들이 바라보고 있는 것은 인라인롤러이고요, 그 다음에 남중 사격부에서 지금 은메달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여중 인라인롤러에서도 금메달을 하나 바라보고 있습니다.

지난 동계훈련에 육상을 비롯해서 여러 가지 종목에서 열심히 노력을 해서 많이 향상이 됐는데 아직 군세가 약하다보니까 그렇게 힘들게는 하고 있습니다.

올해도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 정무 위원

보은은 인라인롤러가 효자종목이고 옥천은 양궁이 효자종목이고 영동은 역도, 유도가 효자종목으로 알고 있습니다.

교육장님들께서 소년체전에 깊은 관심을 갖고, 이제 한 두 달 남짓 남았는데 그 기간 동안 유망종목에 대해서 잘 챙기셔서 좋은 성적을 거둘 수 있도록 독려와 지원을 많이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청원교육청, 옥천교육청, 영동교육청 업무에 대하여는 청주 신우인 교

육장님께서 새로 부임하신 교육장님들을 대표해서 답을 잘해 주셨기 때문에 나머지 교육장님께서 하나하나 업무에 대해서 잘 파악하셨으리라 믿고 질의를 생략하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 의장대리 김부웅

정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서수웅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서수웅 위원

아까 보고 말씀에서 짧은 기간 동안 준비를 많이 하셨다는 감탄을 내가 했기 때문에, 그리고 오늘의 제가 위원으로서 드릴 수 있는 질의는 질의이기 전에 교육장님들의 소신이나 철학이나 열정을 엿볼 수 있는 그런 결과물 계획이기 때문에 어디까지나, 계획에서 아주 작은 거지만 차별화가 됐다거나 궁금한 것을 잠깐씩 확인한다든지 또 궁금증을 공유를 같이 알아보는 그런 관점에서 질의를 몇 가지 하겠습니다.

이것은 전혀 부담이 없는 분위기로 준비하고 서로 질의 응답이 되기를 요청합니다.

먼저 제일 첫 번째 각 교육청에 교육의 기본방향에서 교육의 지표하고 교육비전이 있는데 이걸 충북도교육청 것을 그대로 받아쓰는 게 맞느냐, 아니면 시·군별

로 이것은 지역교육청 지표로 써야 되느냐 하는 것은 제가 과제로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이것은 정답이 없을 것 같은데 참고로 청원군만 여기는 지표가 다르죠? 그리고 저 북부 어디는 지표서부터 비전까지 다 다르게 썼는데 그것은 제가 자신이 없기 때문에 교육장님들 한번 같이 의견을 나눠서 생각해 볼 수 있는 이런 기회를 가졌으면 하는 이런 의미에서 제가 질의를 드려보고요, 그 다음에 학습부진아 지도에서 전부 학습부진화 제로화를 지향하는 걸로 돼 있는데 이것은 어디까지나 희망 수치죠? 제로화를 책임지겠다는 것은 아니잖아요. 그렇게 이해는 합시다만은 써놓은 것 중에 어떻게 보면 제로화를 하겠다는 거냐, 정말 책임 없는 거 아니냐, 제로화. 저도 40년 했습니다만은 안되는 애들은 안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제로화를 지향한다 이렇게 써줬으면 좋겠다, 제로화를 위해서 노력한다 이렇게 써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참고로 말씀을 드리고요, 그 다음에 그 학습부진아 수당을 학교별로 재량 예산을 세우도록 돼 있어요. 그리고 어느 시·군만 육천인가 80만원 이상 이렇게 해놨는데 그 예산 먼저도 제가 말씀드린 적이 있어요, 먼저 번에도. 수당을 안 받겠다는 사람도 있어서 학교장들이 정말로 능력있게 선생님들

수당도 해줘야지, 제가 참고로 도움 말씀드려 보고 싶은 것은 수당을 이렇게 주는 것보다 학습부진아를 구제한 실적에 의해서 보상 차원에서 주는 방법은 없을까. 지금 제 개인적인 생각이니까 참고로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오히려 보람도 느끼고 좋을 것 같은 생각이 드는데, 한번 참고로 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아주 작은 거 하나만 상의해보겠습니다.

2-3-2에 해당되는 건데 사이버교육에서 선플(善PL)달기, 선플(sun-full)달기 이렇게 했는데 보은 교육장님께 제가 질의하겠습니다. 거기는 선플(善PL)로 이렇게 했죠? 도교육청에서 선플로 해석하는 겁니까?

● 보은교육청 교육장 김중규

저희들이 원래는 처음으로 이것을 도교육청에서 주요업무 저기 하기 전에 저희들이 먼저 생각했던 거예요. 그런데 저희들은 선플은 악플의 반대 개념으로 생각을 했던 겁니다.

● 서수웅 위원

영동 교육장님은 가서 이런 세세한 것까지 확인하셨는지 모르겠는데 선플(sun-full)로 했더라구요. 그것은 영동교육청 별도로 한 겁니까?

● 영동교육청 교육장 조용남

같은 의미로 압니다.

● 서수웅 위원

[지역교육청주요업무계획보고]

해석을 달아줬는데 거기는 착할 선의 선플(善+PL), 여기는 영어로 선플(sun-full) 해서 햇빛이 가득한, 의미는 같은 의미인데 도교육청에서부터 어떠한 그 선플에 의해서 한 거면 지역교육청에서도 같은 의미로 하는 것이 좋지 않은가. 남부 지역 중에서도 이렇게 해석이 다르다면, 의미는 같지만 이것이 대외적으로 내놓을 때 선플(善PL), 선플(sun-full) 그러니까 조금, 이게 어느 시·군이 없고 하다보니까 모르겠는데 도교육청에서도 똑같은 선플이 내려갔는데 그렇게 주석을 달아준 게 조금 궁금스러웠다. 조금 협조가 필요한 건지, 아니면 개성이 강조되는 건지 이것은 제가 일단 궁금했기 때문에 질의로 삼았습니다.

그 다음에 3-1-1에 보면 참 재미있는 게 있어요. 기본이 바로 선 일류 충북학생 육성이죠? 이것은 우리 도교육청 주요 업무계획에 나오는 그대로인데 이것을 그대로 쓰는 게 옳은지, 아니면 기본이 바로 선 지역교육 학생을 기르는 것이 옳은지. 이것도 조금, 왜냐하면 그렇게 쓴 시·군이 있으니까. 그래서 그것도 교육장님께서 한번 의견을 나눠볼 수 있는 기회로 삼을 수 있는 기회를 제가 제공하는 차원에서 질의를 합니다.

이렇게 볼 때는 그런 생각이 들더라도, 학교장한테도 자율권을 많이 주는데

똑같은 주제라도 지역교육청별로 조금 차별화가 된다는지 아니면 지역인재를 길러내는 것이 결국 충북인을 기르는 건데 표기상에 생각해 볼 그런 여지가 없는 건지 그래서 한번 질의를 했고요, 그 다음에 이것도 아주 작은 겁니다, 제가 묻는 것은 전부. 효행의 날이 매월 8일로 다 있는데 청원군만 효행의 날이 없죠? 확인해 보셨어요?

● 청원교육청 교육장 권오삼

이 자료상에만 나타내지 않았을 뿐입니다.

● 서수웅 위원

그렇겠죠, 물론.

이것도 도교육청에서 나간 지침에 의해서 쓴 거니까 전부 똑같은 걸로 보는데 그거와 관련해서 제가 매년 관계를 묻는 게 친구사랑의 날입니다. 이게 해마다 바뀌어요. 첫 번째 제가 질의할 때는 매년 4월 첫째 주 월요일로 돼 있었어요. 그런데 작년 재작년에는 시·군마다 조금씩 달랐어요. 그래서 도교육청 것을 보고 작년도 실적을 보니까 연 2회가 많고 3회인데도 있고 청주 같은 데는 4회 했어요. 그래서 제가 이거 보면서 청주는 참 의미 있게 했다고 칭찬한 적이 있거든요, 제가요. 4월 첫째 주 월요일 것은 도교육청 거라 했고, 그 다음에 7월 9일은 친한 친구 날이라 했고, 그 다음에 10월 24일은

들이서 사과하는 날 사과데이라 했고, 뭐 이렇게 하여튼 칭찬을 해서 권장할 사항이다 해서 한 적이 있는데 어느 교육청은 학교 재량으로 맡겨서 24일이 들이서 사과하는 날이니까 매월 24일로 정한 군도 있더라구요. 그런데 참 이해가 안가는 게 도교육청에서 7월, 9월로 정했어요, 친구사랑의 날 그래 놓고. 교육장님도 확인해보시면 그렇게 돼 있는 군이 거의 다예요. 7월 9월. 그럼 날이면 7월, 9월이면 문제가 있지 않느냐. ‘아, 그럼 학교 재량권에 의해서 7월, 9월중에 날짜를 잡아서 해라’ 이런 의미인가 이렇게 생각했는데 청주시 교육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청주시는 그렇게 안 정했는데. 7월, 9월로 하지 않았던데.

청원군 교육장님 한번 그렇게 정한 이유 한번 확인해 보셨습니까? 아직 안해 보셨죠?

그래서 그게 단양군처럼 학교 재량에 맡긴다든지 이러면 계획이 합리적이고 이해가 가는데 7월, 9월 하니까 7월 전체가 친구의 날 이렇게 역지를 쓰고 싶은 생각이 들어서, 이것도 아주 작은 거지만 문제가 되고요, 참고로 교육장님들 제가 행정질의 다니면서 강조했던 건데 어느 시·군에 모범사례가 있어요. 그 반 학생들의 생일날을 친구의 날로 정했더라구요. 담임선생님 참 얼마나 아이디어가 좋

아요. 그 반 전체 친구들이 친구로서 할 수 있는 것을 다 베풀어주는 거예요. 그 얼마나 친구의 날이 좋은가, 그런 예를 들었는데 한번 참고로 하셔가지고 친구의 날이 애들 학교폭력 없애고 하는데 굉장히 도움이 될 수 있어요, 아주 작은 거지만. 저는 여기서 학교폭력 없애기 위한 캠페인 연2회 하는 것 그것보다 훨씬 효과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캠페인은 대대적인 홍보효과는 있을지 모르지만 실적면으로 따진다면 아마 친구의 날 운영이 훨씬 더 낫다, 제 개인적인 소견입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라구요, 그 다음에 이제 한 가지만 끝으로 물어보겠습니다.

스승 존경 풍토 조성이라는 게 4-1-1에 다 있어요.

이것은 우리가 백 번 해도 우리가 스승 존경 풍토 해야 되는데 이거와 관련해서 우리 이은자 교육장님한테 제가 한번, 이거 편한 마음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스승풍토 조성을 하기 위해서 가장 열려든 떠오른다든지 역점으로 하고 싶은 게 있으면 어떤 것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스승풍토 조성에 우리가 제일 먼저 해야 할 것이 뭐라고 생각하세요.

● 옥천교육청 교육장 이은자

제가 답하겠습니다.

[지역교육청주요업무계획보고]

스승존경풍토 하면 역설해서 되는 게 아니고 이것이 자연스럽게 스승존경풍토 조성이 돼야 되는데 그러려면 우리 선생님들이 보다 선생님들 스스로 존경받을 수 있는 교육애, 딱 두 가지로 사랑과 열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 서수웅 위원

감사합니다.

교육감님 슬로건도 관심과 사랑이듯이 우선 정말로 원도 한도 없이 제자들을 사랑하고 열정으로 가르쳐서 아이들로 하여금 우리 선생님 짱 소리가 나오고, 그 아이들 입을 통해서 가정으로 사회로 그 선생님 칭찬이 침이 마를 때 그 때 존경풍토가 생긴다 싶습니다.

그래서 우리 다 계획하기를 수업스타 발굴, 이런 얘기가 있는데 교육장님들도 다 보셨겠지만 조선일보에 난 것을 보면 공교육에는 3S가 없다, 그 얘기가 낫더라구요. 그래서 3S가 뭐냐, 사교육한테 지는 이유를 그렇게 썼더라구요. 3S가 뭐냐. 스타가 없다, 스피드가 없다, 서비스가 없다 그래요. 그런데 요즘 학원 강사들은 많이 떠나고 연봉이 역대 넘잖아요. 그런데 그런 사람만 뽑아다가 아주 지식 일 분야만 전달하는 스타만 뽑으니까 그렇지만 우리는 아이들에게 꼭 수업스타만 할 게 아니라 어떤 영역이든지 아이들이 우리 선생님 짱 하고 따를 수 있

는 스타를 길러내는데 관심을 가지시고 학교장님도 학교장대로의 스타, 선생님들도 전 교사의 스타화, 이거 학습부진아 제로화를 지향하듯 전 교사의 스타화를 지향하면서 우리도 꼭 수업 잘하는 것만 아니라 어떤 영역이든지 존경받을 수 있는 풍토가 선생님들이 먼저 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저도요. 그래서 지금 우리 이은자 교육장님 답변에 전적으로 공감을 합니다. 어떻게 하면 우리 선생님들이 일류화가 되느냐, 학생만 일류화가 아니라. 그런 차원에서 제가 말씀을 드리려고요, 교육장님들 정말 짧은 기간 동안에 업무 전부 살펴보고 아주 감동스러운 그러니 보고를 해 주신 거에 대해서 다시 한번 감사드리고요, 앞으로 본 위원은 교육장님들이 지역교육을 위해서 애쓰시고 성취를 위해서 노력하는데 무엇을 도와드릴까를 연구하는 교육위원이 되겠다는 다짐을 드리면서, 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 의장대리 김부웅

서수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하실 위원님.

성영용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성영용 위원

교육위원 성영용입니다.

주요업무계획 그 동안에 참 공부 많이 하시고 정말 감탄할 수밖에 없습니다.

목적하신 교육적인 성과가 100% 이루어 지기를 기원하면서 질의 및 부탁 사항 몇 가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부탁사항을 말씀드리면 우리 아이들의 학력도 참 중요하지만 근본적으로 인간 됨됨이, 인성이나 품성을 위한 교육 프로그램이 내재돼 있기는 하지만은 실질적으로 우리가 현장에서 닿는 면은 굉장히 적거든요. 제가 한번 제안을 하고 싶은데 지금 청소년 단체에 들어가 있는 확보율이 50%가 안돼요, 전체 학생의.

RCY라든가 청소년연맹이라든지 지금 6개 단체가 인정돼 있지 않습니다.

어디 건 전부 청소년 단체에 가입을 해서 실제 우리 학교 현장에 배우지 못하는 부분이나 이런 것을 단체생활을 통해서 좀 습득해서 인성이나 품성에 큰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면서, 더불어 이 독도교육도 지금 상당히 안되고 있는 걸로 제가 알고 있어요. 내 나라 땅을 제대로 지키지도 못하고 내 땅이 있는지도 없는지도 제대로 모르면서 교육받아가고 나오면 나중에 애네들이 큰 일을 할 때는 어떤 결과를 빚을까 걱정이 됩니다.

일본의 경우하고 대비해서 우리는 너무나 교육 관계가 취약하기 때문에 교육장님께서 충분히 이 부분 교육장님 힘으로 교육방침을 세워주실 수 있으리라 기대하면서 좀 부탁드립니다.

또 하나 요새 또 신문지상에서 많이 떠 들고 있는 거 있죠? 감사원 특별교부금 사업한 거에 대해서 사심으로 보게 되고 이렇게 해서 이상하게 됐는데 한번 더 설명하실 교육장님 계시면 한번 말씀해 주실래요.

여기 주위에 교육감이 62억 모교에 갖다가, 청고 나왔다고 청고에 갖다가 끌어 넣었다며 뭐 그런 사람이 있어, 이렇게 얘기할 때 납득할 수 있게끔 설명하실 교육장님 계신가요?

● **청주교육청 교육장 신우인**

청주 교육장 신우인입니다.

말씀드리겠습니다.

● **성영용 위원**

저 여기서 시간이 오래 걸리니까.....

● **청주교육청 교육장 신우인**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 **성영용 위원**

괜찮아요. 그러면 뒤에 분들한테 다 충분히 교육장님들 교육시킬 거 아니세요, 이 부분에 대해서, 그것 좀 말씀해 주시고 시간 관계상 생략하도록 하죠.

● **청주교육청 교육장 신우인**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 **성영용 위원**

굉장히 오해들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 교육을 잘 시켜주시고, 3,450억이라는 돈을 1년에 교육감님이 집행을 하고

[지역교육청주요업무계획보고]

계시는데 지금 62억 가지고 자꾸 월가월 부하고 이런 부분은 우리 교육장님들께서 많이 확실하게 아셔가지고 주위에 얘기를 해 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저도 어저께 회의 끝나고 제천 갔는데 어떤 어른 한 분이 “아 뭐 교육감이 62억을 자기가 자기 주머니 돈처럼 썼다며” 그것을 한참 설명하고 왔어요. 이 신문지상에서는 흥미위주로 하기 때문에 상당히 그것을 흥미 쪽으로 많이 하기 때문에 그 부분, 제가 알기로는 교육감님하고 아침에 대화하시면서 충분히 말씀을 들었다고 제가 알고 있는데 확실하게 많이 아셔서 충분한 대답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럼 오늘 사업내용에 대해서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특화 및 역점사업에 대해서 주관점을 보고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굉장히 건설적이고 진취적인 아이템을 가지고 하셨는데 특화사업 및 역점사업에서 이 종료 사업의 성과라든지 중간평가, 계속사업에서는 중간평가죠. 07년에서 08년, '08년에서 '09년 가면서 이런 부분을 저희하고 이래 얘기할 때는 이런 부분은 이래서 이 사업을 종료했다는 그런 말씀과 계속사업 같은 경우는 이러이러한 부분이 부족해서 지금까지 몇 년도 집행해 왔는데 이 사업을 계속한다, 또 신규사업

의 관계는 교육장님께서 내가 우리 지역 교육을 어떻게 운영하려는 기본적인 마인드가 있기 때문에 이 지역의 정서와 합쳐서 이런 역점사업을 하겠다는 그런 말씀이 있었으면 하는 아쉬움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차후에 이런 걸 우리 말고 다른 데 하시더라도 중간평가 내지는 그런 것을 역점을 두셔서 좀 해 주십사 하는 부탁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청주교육청의 경우 주요업무계획 41쪽에 나와 있는 부분인데, 교육경비의 안정적인 확보를 위해서 지방자치단체 교육경비유치 강화를 위해서 다목적실 대응투자사업비 확보를 사업내용으로 제시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청주시의 경우 지금 도내에서 청주시 때문에 이 대응투자 다른 데서 하려고 해도 힘이 들 정도예요, 여기는 그냥 하는 바람에, 청주는 그냥 했는데 왜 그러냐 말이죠. 왜 재정자립도도 제일 낮은 곳에서 대응투자 해야만 해 주냐고 난리들 치는데, 이 대규모 예산이 수반되는 다목적실이나 이런 대응투자사업비를 투자할 수 있는 구체적인 방안이 있으신지, 저는 청주시에서 굉장히 협조 안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교육장님께서 이 원대한 꿈을 가지신 것 같은데 구체적인 방안이 있으신지 질의드립니다.

● 청주교육청 교육장 신우인

네 고맙습니다.

청주교육청 교육장 신우인입니다.

제가 그 현황과약을 좀 해봤더니요 지금 청주시청에서의 청주 지자체에서의 교육경비보조조례가 살펴봤더니 2%도 아닌 2% 이내로 이렇게 조례가 결정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따져보면 시세 수익이 한 2,200이 되더라구요. 그런데 거기의 2%라고 한다면 44억 정도가 나와야 됩니다. 그런데 2008년도에는 19억 한 5,000만원 정도 이렇게, 그러면 그 조례에 의해서 저희들한테 지원된 금액은 전체 2% 중에서 41% 정도를 차지하고 있는데요 금년도에는 조금 그거보다 상향 조정이 돼서 27억을 유치하게 됐습니다. 이것은 61%, 전체 우리 44억 중에서 한 61% 정도를 차지하는 금액인데요, 앞으로도 그 지자체와 각별한 유대 관계를 통해서 많이 좀 교육경비 보조를 받도록 노력을 하겠고요, 또 한 가지 반가운 소식은 저번에 도의회에서 그 대응투자 관계 때문에 20% 삭감된 그 부분을 이번 청주시에서 10억을 추경에 반영을 시켜서 아마도 5개 다목적 교실이 아마 차질없이 지어질 것이라고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지금 시의회 예산심의만 남겨놓고 있는데 무난히 통과가 예상이 됩니다.

이상입니다.

● 성영웅 위원

예, 좋은 결과 기대해 보겠습니다.

다음 업무계획 60쪽에 나와 있는 건데요 역점사업으로 다사랑 교육 실천을 위한 긍정적인 마음 확산 등 세 가지를 세부 실천사항으로 제시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주요업무 계획서 내용을 보면 이 부분이 언급한 게 하나도 없어요.

그래서 이 사업의 구체적인 내용, 아까 타이틀만 이래 말씀하시고 넘어가셨기 때문에 구체적인 것을 잘 모르겠네요.

● 청주교육청 교육장 신우인

청주 교육장 신우인입니다.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다사랑 교육이라고 하는 것은 그 '다' 라고 하는 것은 모두의 의미를 얘기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표를 에스에듀 피아 이렇게 정했는데요, 그 에스에서 와이(Y)는 예스라고 하는 표현이고요, 이(E)는 엔조이를 표현하고 에스(S)는 스마일을 표현합니다. 그래서 에스에서 그 첫 번째 와이인 예스는 긍정적인 마인드를 갖자 이런 뜻이고, 그 엔조이는 즐거운 학교를 만들기 위해서 즐기자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또 스마일은 항상 웃는 학교로 이렇게 교육지표로 삼았는데요, 그것은 결국은 학교폭력이나 애들의 따돌림, 어떤 등등 학교교육의 바른 품성을 키워주기 위한 그런 교육의 일환이라고

[지역교육청주요업무계획보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 **성영용 위원**

알겠습니다.

이 업무계획서에 내용이 들어가 있으면, 전체적으로 이래 연계되면서 되는 부분이 빠져있어가지고.

● **청주교육청 교육장 신우인**

예, 알겠습니다.

● **성영용 위원**

다음 청원교육청 질의드리겠습니다.

36쪽에서 38쪽 나와 있는 부분인데 교원업무 경감추진 강화에서 교원업무 경감연구팀 운영, 교직단체의 파트너십 제고해서 교원노조와의 단체협약 갱신 및 정책협의 방법 개선 등 일부 내용과 학급당 학생수 탄력적 운영에서 초등학교의 경우 지역은 36명, 중학교의 경우 시 지역이 35명으로 표시돼 있습니다.

그런데 이들 사업을 보게 되면 이 도교육청 차원에서 이루어지는 사업이 아닌가요? 청원교육청에서 이거 할 수 있나요?

● **청원교육청 교육장 권오삼**

청원 교육장 권오삼입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내용은 저희들이 이렇게 실무자 선에서 세심하게 살펴보지 못한 내용을 이렇게 수록한 것을 인정하겠습니다.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도록 조심하겠습니다.

● **성영용 위원**

예, 그렇게 좀 해주세요.

다음은 55쪽하고 56쪽에 역점사업 유치원 교육활동 공동운영 전개 및 내고장 사랑 청원인 육성에서 나타나는 2008년도 역점사업과 비교해 보면 사업명이 변경되었는데 실제 내용은 거의 비슷하다고 보거든요. 그러면 2008년도하고 2009년도의 역점사업의 차이점이 뭔가. 다 똑같이 나와 있어요. 그죠?

● **청원교육청 교육장 권오삼**

청원 교육장 권오삼입니다.

위원님께서 아까 서두에 말씀하셨듯이 종료사업, 계속사업, 신규사업, 이것을 저희들이 착안을 확실하게 하지 못한 점을 이렇게 지적해 주셔서 저희들이 앞으로 위원님 지적사항을 충분히 반영하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그 내용은 2008, 2009년도 내용이 거의 같은 내용이 되겠습니다.

● **성영용 위원**

예, 알겠습니다.

다음 57쪽에 섬김과 사랑 실천하기를 2008년도 대비 신규 역점사업으로 제시했는데 세부적인 설명을 해 주십사 부탁드립니다.

● **청원교육청 교육장 권오삼**

청원 교육장 권오삼입니다.

섬김과 사랑을 실천하기 그 교육활동

내용은 기본생활 습관과 바른 인성 함양을 위해서 전년도에 그 지도자료를 제작 보급한 바 있습니다.

그 자료에 수록된 교육활동 내용을 근거로 해서 바른 인성, 바른 품성이 함양되고, 섬김 사랑의 인성을 갖출 수 있도록 이렇게 지도하겠다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 **성영용 위원**

예, 알겠습니다.

목적하신 사업 꼭 100% 교육적인 효과를 거두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다음 보은교육청인데요, 아까 서두에 얘기하다시피 중간평가 없이 매년 똑같이 이러니까 좀 답답하기는 해요. 어디 특별한 역점사업을 발굴할 수 있는 마음은 더 없으신지요.

● **보은교육청 교육장 김중규**

보은 교육장 김중규입니다.

그 역점사업은 저희들 교육청의 지속사업으로 지금 하고 있습니다, 2008, 2009년.

그래서 아마 큰 타이틀은 같이 나왔는데 사실은 그 작은 저기들은 첫 번째 것이 독서 및 정보검색 활동을 통한 그 분야는 저희들이 사회문제의 악플 대비에 대한 선플 달기 운동이 올해는 다시 저기가 됐고요, 두 번째, 지역문화벨트 관계는 작년하고 같이 이렇게 큰 타이틀은 했

지만은 아까 정무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것도 있고 해서 저희들이 속리산 자랑 같은 것은 전체 학교가 참여하는 것이 아니라 속리산에 있는 수정초등학교만이 참여를 해서 거기서 단독 행사로 하는 걸로 바꿨고요 올해는, 마지막으로 사랑의 꿈나무 손잡기 운동은 그것은 저희들이 사회 각층에서 언론에서도 밝혀졌지만 국민 대비 비율이 저희들이 다문화가정이 제일 높습니다, 보은이. 제일 많아가지고 이것을 저희들이 아주 해마다 역점사업으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큰 타이틀은 바뀌지 않고 그래도 있는 걸로 했고요, 저희들이 그거는 지속사업으로 역점사업이기 때문에 더욱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 **성영용 위원**

예, 열심히 해주시기를 바라고, 다음 옥천 교육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보은 교육장님하고 똑같아요.

그런데 보은 교육장님의 경우는 지속적으로 해오신 분이니까 그런데 옥천교육청에서는 이 역점사업이 전년도하고 다 똑같네요. 그죠?

● **옥천교육청 교육장 이은자**

예

● **성영용 위원**

교육장님께서 뭐 역점사업이나 뭐 특화사업으로 특별히 이렇게 한번 밀고 나가

[지역교육청주요업무계획보고]

겠다, 이런 뜻을 가진 건 없으세요?

● 옥천교육청 교육장 이은자

옥천 교육장 이은자입니다.

우선 중간평가 및 역점사업에 대한 지속적인 배경을 설명을 못드리고 그냥 작년하고 동일하게 된 것에 대해서 죄송하게 생각을 하고요, 먼저 3에 교육에 대한 배경을 잠깐 말씀을 드리면 3에 교육에 대한 나라사랑, 문화사랑, 자연사랑은 옥천군의 행사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뺄 수가 없는 그런 옥천군 하면 딱 떠오르는 행사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추진을 해나가려고 하고요, 처음에 나온 오케이 에듀 영어 소통에 대한 것은 남부체험센터에 대해서 관련된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21억 3,400여 만원의 큰 예산을 들여서 5월초에 개원 예정인데 그 두 가지는 우리 옥천의 역점사업으로 심도있게 내실있게 추진을 하려고 하고, 한 가지 더 제가 역점사업으로 추진하고자 하는 것은 지금 어느 학교를 막론하고 도서관이 아주 현대화가 잘돼 있습니다. 그렇지만 정말로 아이들이 수준별로 어떤 아이는 6학년이지만 유치원 수준으로, 그런 다양한 수준별로 책을 독서를 정말로 책 읽어라, 공부해라 이게 아니고 정말로 어느 계기가 돼서 책과 친구가 되는 그런 독서를 생활화할 수 있는 그런 걸로 역점을 하나 추가를 해서 중점사업에 나온 거지만 역점사

업으로 추진코자 합니다.

감사합니다.

● 성영용 위원

넣으셨으면 더 좋았을 텐데.

다음 영동교육청 조용남 교육장님, 128쪽에 대한교육 위탁기관 지정 및 교육경비 지원의 경우는 이것 역시 도교육청에서 이루어지는 거 아닌가요?

● 영동교육청 교육장 조용남

예, 영동 교육장 조용남입니다.

앞에서 지적해 주신 우리 성영용 위원님 말씀대로 지역교육청에서 계획된 주요사업 내용의 일부분은 도교육청 사업이 그냥 기록된 부분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지역교육청 실정에 맞도록 즉시 시정토록 하겠습니다.

● 성영용 위원

예, 알겠습니다.

34쪽에 지방자치단체 교육경비 유치 강화 부분에서 지방자치단체 교육경비조례 개정 추진 시에 기숙형 고등학교 지원에 관한 사항을 추진하겠다고 표시돼 있습니다.

기숙형 고등학교 사업비를 확보할 수 있는 구체적인 방안이 있으면 좀 말씀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 영동교육청 교육장 조용남

영동 교육장 조용남입니다.

이 기숙형 고등학교 지원사업은 교육경

비 보조 조례 개정 주요내용에 관계된 건데 국정과제인 고교다양화 300 프로젝트 일환인 기숙형 고등학교 추진으로 농촌지역 거점 우수 학교 육성방안으로 추진된 사업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들 교육청의 개설 학교는 영동고등학교가 되겠습니다.

이 조례개정이 왜 필요한가 저희들이 조사해 본 결과에 의하면 학생들이 기숙사비 부담을 좀 완화하고 기숙형 고등학교에 대한 안정적 재정 지원을 위해서 꼭 필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조례개정 내용을 보면 보조사업의 범위에 기숙형 학교 학생 부담 기숙사비와 교육프로그램 운영비 항목이 포함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행히 저희들 영동지역은 지자체와 지역사회와 또 잘 협력체가 이루어졌고 또 도교육청과 우리 교육위원들께서 관심 갖고 잘 지원해 준 덕분에 아직까지 협력체제가 잘 이루어진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 영동고등학교와 향후 운영계획을 긴밀히 협의하고 영동군의회 조례개정 협조 공문 발송을 4월 이내에 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영동군청 관계자와 간담회를 자주자주 실시해서, 그리고 또 영동군 학교운영위원회협의회와 협조체제를 잘 유지해서 기

숙형 고등학교, 영동고등학교에 정말로 이 영동고등학교 이 남부지역 명문학교로 굉장히 위상이 높아지고 있는데 그 위상에 맞는 정말로 좋은 학교 될 수 있도록 우리 교육청에서 적극적으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 **성영용 위원**

예, 최대한 사업비 확보할 수 있도록 많이 더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본 위원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대리 김부웅**

성영용 위원님 질의하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네, 이상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이상일 위원**

이상일 위원입니다.

학기초에 여러 가지 바쁘신 중에도 보고 준비를 위해서 노력해 주신 다섯 분 교육장님께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몇 가지만 질문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어느 특정 교육청에 한정된 얘기는 아니고 우리 도내 모든 교육청에 관련된 일입니다.

또 앞서서 정무 위원님께서도 소상하게 말씀해 주셨지만 우리 모두의 관심 사항이고 도민 모두의 관심 사항이기 때문에

[지역교육청주요업무계획보고]

몇 가지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그 기초학력 책임지도에 관해서 다섯 교육장님들이 모두 역점적으로 지도하겠다고 하는 계획서를 세워주셨습니다.

작년에 실시한 초등학교 6학년, 중학교 3학년, 고등학교 1학년 학력평가와 학업성취도 진단평가 결과가 좋지 않다는 것은 우리 다 아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그 분석결과를 보면 초등학교가 조금 나쁘고 중학교가 조금 그렇고 고등학교로 올라갈수록 성적이 향상되는 걸로 나와서 상당히 그런 부분은 고무적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고마운 건 그래도 우리 충청북도에서는 성적을 조작하지 않았다, 또 성적이 나쁜 체육부 뭐 이런 아이들을 시험에서 배제하지도 않았다 하는 것이 도교육청, 교육부 감사에서 확인이 돼서 그래도 우리 충청북도 교육계는 그렇게 썩지는 않았다는 안심감이 듭니다.

성적이 나쁘자 교육감께서는 바로 도민에게 머리숙여 사과를 했습니다. 이것은 어찌 교육감님 한 분의 책임이겠습니까. 학교를 경영하고 있는 교장선생님이나 모든 선생님, 또 일선 학교를 현장에서 지도하고 계시는 교육장님 모두의 책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마 이런 것이 계기가 돼서 충북교육이 한층 성장하리라고 기대를 합니다.

그래서 이제 많은 사람들이 내린 결론이 결국은 교장선생님이나 교사의 열정이 성적부진아를 끌어올리는데 그래도 제일 큰 힘이 되지 않겠는가, 이런 결론들을 내려줍니다.

그러면 대표로 청주 교육장님께, 그럼 교장선생님이나 여러 선생님들이 정말 신바람 나게 열정적으로 학생들을 지도할 수 있는 사기진작 방안이 뭐가 없을까, 있다면 어떤 건가 하는 것을 교육장님께서 말씀을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 청주교육청 교육장 신우인

청주 교육장 신우인입니다.

우선 가장 중요한 것은 저는 현장에 있을 때 느낀 점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학교자율화 조치, 자율화 조치 하는데요 학교 현장의 교장선생님들은 마음 놓고 경영할 수 있는 어떤 기틀이 돼 있지 않습니다.

실은 오히려 학교장 선생님들은 이 자율화 조치를 취하다보니까 학교장님들의 권한은 더욱 축소됐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모든 구성원들과 합의를 해야 되고, 어떤 교장선생님들의 어떤 의지나 어떤 역량을 발휘할 기회가 어떤 옛날로 따지면 어떤 독선적이고 군림하고 이려고 하는 어떤 교장선생님들의 힘이 약화가 되지 않았나 그런 생각을 해보고요, 우선은 관

리자들하고 선생님들의 어떤 마음이 혼연 일체가 되어 된다고 저는 우선 생각을 하고요, 두 번째로는 그것이 한마음이 안돼서는 절대 학교경영에는 큰 희망이 없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선은 선생님들은 학교장 관리자들을 우선 신뢰하고 또 학교장님들은 선생님들을 신뢰하는 어떤 그런 풍토가 조성되어야만이 어떤 학력제고에도 큰 힘이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 이상일 위원

예, 좋은 말씀해 주셨는데 그래서 이제 교장선생님들을 CEO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CEO는 주변 환경이 좀 나쁘더라도 그것을 자기한테 좀 유리하게 이끌어가는 리더십이 필요한 걸로 생각을 합니다.

새 학기가 돼서 어느 학교에 제가 가봤습니다. 그랬더니 그 교장선생님이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자기는, 새로 부임한 학교인데, 학교에 와서 보니까 여러 가지 자기가 하고 싶은 일이 많다고 그래요. 그래서 추진하겠는데 예산이 들겠다 좀 그래요. 대표적으로 뭘니까 그랬더니 어느 학교에 가니까 복도에서 교실을 들여다볼 수 있는 창이 다 막혔다고 그래요. 창이 있기는 한데 안을 들여다볼 수 없는 불투명한 유리, 교장이 장학지도를 할 수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행정실장한테 무조

건 아래층에 한 칸 유리를 바꿔라고. 아마 그것 때문에 상당히 교무에서도 실감이 있었는데, 자기가 저 안에서 무슨 일이 있으면 교장이 책임을 질텐데 왜 못하나 해서 합의를 받아냈습니다.

몇 년 전에 광양제철 부속초등학교에 견학을 간 일이 있습니다.

거기 교장선생님이 우리 충북 진천 분이세요. 우리를 굉장히 친절하게 해 주셨는데 그 분이 학교에 부임해가지고 재단에다 요청한 첫째가 교실을 다 터서 복도에서 교장이 볼 수 있는 눈높이를 열어달라고 했습니다. 재단에서 수십억을 들여서 교실 전체를 다 바꿨습니다. 결국 제가 이렇게 얘기하면 선생님들이 교장이 뭐 파쇼나 쓰는 것 같지만 이런 열정이 있어야 되지 않는가.

이렇게 해서 교육장님들께서는 교장선생님들이 그런 소소한 것을 해야 되는데 경비가 부족하다고 그러면 교실개조도 해주시고 교장선생님들이 책임지고 학교경영을 할 수 있도록 힘을 불어넣어 주십사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영동교육청에서는 학력평가시스템 운영 대상으로 초등학교 4~6학년, 중학교 1,2,3학년, 교과별 단원평가를 하고 중간고사 기말고사 성취도 평가 문항을 제공한다 아주 좋은 얘기가 있는데 그것을 간략하게 설명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지역교육청주요업무계획보고]

● 영등교육청 교육장 조용남

우리 교육청 자체로 각종 다양한 평가 문제를 개발해서 보급하기는 좀 어렵습니다만은 우리 도교육청 지원센터, 연구원에 있는 그 다양한 자료를 우리 교육청의 실정에 맞게, 학생의 실정에 맞게 재구성해서 학교에 보급한다는 그런 뜻입니다.

● 이상일 위원

그게 잘 보급이 돼서 우리 학생들의 성적이 향상될 수 있도록, 그래서 그게 잘 되면 다른 교육청에도 보급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공통된 질문도 학교폭력 예방입니다.

여기 교육청 업무계획에도 보면 학교폭력 예방에 대해서 다양하게 구상을 하고 준비를 하고 계시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현장에서 보면 학교폭력이 점점 늘어나고 또 폭력을 저지르는 학생들 연령이 점차 낮아져서 초등학교까지도 이런 폭력 사태가 일어납니다.

제가 매년 교육청 행정감사를 할 때 빠지지 않고 물어보는 게 학교폭력 실태를 물어보는데 그때마다 교육청에서 올라오는 거는 거의 문제가 없는 걸로 이렇게 보고가 됩니다.

그런데 실제로 보면 그런 게 있고, 학부모들 하소연을 들으면 상당히 심각한 수준에 있는데 없다고 그러합니다.

그래서 제 생각에는 이제는 이런 사건이 터지면 우리 학교의 명예가 실추되니까, 또 담당하고 계시는 교장선생님이나 교감선생님, 또 특히 승진을 해야 될 교감선생님 계시면 그거 있으면 안된다고 자꾸 그래가지고 숨기는 것만이 능사가 아니지 않는가. 이것을 오픈해가지고 이런 유형도 있으니까 이런 것도 우리가 막아야 되겠다 하는 걸로 해서 생활지도를 지역사회와 연계해서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보은 교육장님께 한 가지 여쭙보겠습니다.

보은교육청에서는 시우보우(視友保友)라고 해서 친구를 자주 쳐다보고 잘못된 친구를 감싸주고 보호해 주고 그러자는 취지죠?

● 보은교육청 교육장 김종규

예

● 이상일 위원

결국은 선생님들이 아이들을 한번 더 쳐다보고 한번 더 보호해 주는 거. 그러려면 결국은 선생님들이 급식지도에서부터 오후 방과후 지도까지 해야 되는데 거의 교실을 안가 보는 선생님들이 많으시 답니다. 그러니까 애들이 싸우는지 어찌는지 모르는 거야, 선생님들이 학생들에게 좀더 관심을 갖고 볼 수 있는 일을. 지난번에 보은에 모 학교에서 수업중 선생님이 자리를 잠깐 비운 틈에 성인용 동

영상을 봤다 해서 전국적으로 망신을 당한 일이 있습니다.

그래서 선생님들이 좀더 역할을 해주셔야 될 것 같은데 그것에 대한 방안은 없는지 교육장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보은교육청 교육장 김중규

보은 교육장 김중규입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이 구구절절 옳으신 말씀이고 또 저희들도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 일선 학교에서 대책을 세우고 있는데, 사실상 옛날하고 젊은 선생님들의 의식구조와 옛날의 선생님들의 의식구조는 많이 달라진 것은 사실입니다.

한 예를 들어서 보은 같은 데는 이제 청주하교의 교통이 굉장히 좋아지다보니까 가까워지다보니까 통근하는, 옛날에는 선생님들이 거의 보은지역에서 거주를 하셨는데 이제는 전부 청주에서 대도시에서 통근을 하는 것이 아주 정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아무래도 선생님들의 생활도 쫓기게 되고 학생들에게 주는 관심도도 낮아지고 그런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학교에 방문도 하고, 또 저희 교육청에 상담전문교사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분을 활용도 하고 그래서 선생님들이 더 많이 학생들에게 관심을

주고 또 학생들과 많이 접촉을 할 수 있는 이런 시간들을 갖도록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단지 문제는 뭐냐 하면 지금 학생들도 문제지만 지금 학부모들의 의식구조가 옛날하고 굉장히 달라졌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학부모교육을 통해서 학생들간의 인화라든가 서로 도와주는 이런 저기를 하는 교육을 지금 병행해서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 이상일 위원

예, 물론 요 근래 선생님들이 옛날 선생님들처럼 학생들에게 관심이 없다는 것은 저도 인정을 합니다.

그런데 퇴근시간 지나서까지 해달라는 부탁은 아니고 4시 반이면 4시 반, 5시면 5시까지 근무하는 동안만이라도 교실에도 가보시고 그 우범지대 같은 데를 순찰이라도 하면 이런 것이 줄어들지 않을까. 교육장님들이 좀 힘드시지만 교장회의나 이런 회의 때 관심을 가져주도록 강하게 좀 한번 말씀을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립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청주시를 비롯해서 뭐 도시는 도시대로 농촌은 농촌대로 국가에서 교육시설 환경개선을 위해서 그래도 많은 예산을 투여하고 있습니다.

[지역교육청주요업무계획보고]

그래서 교실을 증·개축하기도 하고 새로 신축도 하고 그러는데 저희들이 예산서에 올라오는 거 보면 해마다 누수에 의한 방수공사비가 굉장히 많이 올라옵니다.

그래서 지난번 예산 때 우리 성영용 위원님이 구체적으로 지적을 하시고 너무 많이 새는 데는 위에 지붕을 하는 방법까지 강구해 보라고 했는데 결국은 공사를 할 때 업자가 결국은 날림공사를 한 겁니다. 물론 30년, 20년 돼서 오래 돼서 새는 건 할 수 없죠. 그런데 개교한 지 몇 년도 안된 학교가 물이 샌다고 그러니까 이게 보수기간은 지났고 이래서 해마다 수십억씩 이 방수비가 올라오는데, 지금 어느 교육청에서 5억 이상 공사는 명예감독관제를 운영한다고 그랬습니다. 참 좋은 일인데 그것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청주교육청 교육장 신우인

청주 교육장 신우인입니다.

그 명예감독관 제도는요 시설공사에서 5억 이상일 때. 그러다보니까 그 주민들에게 어떤 민원발생의 소지가 많습니다. 또 시설 또는 감독 때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해서 주민을 중심으로 해서 감독자를 임명해서 운영하는 제도를 말하고 있습니다.

● 이상일 위원

얼마전에 신문에 보니까 대전교육청에서도 이 날림공사가 많으니까 지역 인사 중에서 건축하시는 분, 또는 건축설계사 이런 분들을 명예감독관으로 위촉을 해가지고, 또 학교운영위원이나 이런 분 중에도 그런 전문적인 지식을 가지고 계신 분들이 있어요. 그 분들로 하여금 명예감독관으로 임명을 해서, 교장선생님이나 교육장님이 일일이 그것을 어떻게 다 감독을 하시겠습니까, 하루종일 하는 공사를. 그래서 이런 게 막아졌으면 하는 게, 저희 사는 충주 쪽에도 보면 지은 지 얼마 안되는 학교에 비가 새서 천장이 젖어있고, 그래 대한민국의 공사가 세계 최고 수준이라는데 그 학교공사 하나 제대로 못 해가지고 얼마 안돼서 물이 샌나. 이것은 결국은 업자들이 기술이 없다는 애긴지 아니면 날림공사를 했다는 건데 결국, 물론 일선 교육청에 시설직 공무원이 많지 않은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것을 대신해서 할 수 있는 그런 체제를 강구해서 그 일선에서 불필요한 예산이 낭비되지 않도록 관심을 가져 주십사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면서 제 질문 마치겠습니다.

● 의장대리 김부웅

이상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회의를 시작한 지 80분 정도가 되고 있는데요, 다음 김병우 위원님 한 분 남으

셨는데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김병우 위원

교육위원 김병우입니다.

새로 부임되신 네 분의 교육장님께 다시 한번 축하를 드리고요, 충북교육 발전을 위해서 헌신해 주실 것을 기대하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모든 교육청에 공통으로 해당되는 사항이나 포괄적인 문제를 먼저 짚어보고 개별 사안에 대해서는 교육청별로 개별적으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포괄적인 문제들은 다른 위원님들도 지적을 하셨습니다만은 해마다 자꾸 이렇게 반복되는 것 같아서 다시 한번 강조하는 의미에서 저도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우선 첫째는 난해한 정책용어의 남발이 여전히 계속되고 있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물론 이것은 용어를 만드는 단위의 문제일 것입니다.

시·군교육청에서는 정책 생산 단위가 아니기 때문에 위에서 내려오는 용어를 바꿀 수도 없고 쓸 수밖에 없겠지만 지금 우리 주요업무 점검이 본청 도교육청에 대해서는 그냥 일방적으로 연간 주요업무 보고만 받기만 하고 질문하고 점검할 기회도 없기 때문에 그런 점이 아쉬워서 지역교육청 업무보고 기회에 거론을 자꾸

하게 되는데요, 어쨌든 시·군교육청은 주요 정책 생산 단위는 아니다보니까 그 용어를 쓸 수밖에 없기는 하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꾸 그러다보니까 거기를 따르다보니까 알게 모르게 자꾸 그것을 배우게 되고 나쁜 예를 자꾸 배워서, 결국은 자체 생산하는 경우에도 그런 말을 만들거나 또는 풀어쓰는 과정에서 역시 황당한 예들이 많이 발견이 됩니다.

제가 지난번에도 그런 말씀드린 적이 있었는데 상상력이나 표현력이 부족한 시인이 난해 시를 씁니다. 아이디어가 부족한 연구자는 그것을 빈약한 역량을 신조어 남발로 때웁니다.

이 행정단위에서도 마인드가 부족한 행정가가 해괴한 용어를 만들어 쓰는데 앞장을 서고요, 그런데 그것을 참 그런 용어를 접할 때마다 그것을 알고 싶지도 않을 정도로 아주 이거 문제다 하는 그런 의식을 떨칠 수가 없습니다.

구체적인 지적은 해당 사례별로 제가 한번 상의를 드려보겠습니다.

또 하나는 많은 위원님들이 공통적으로 지적하셨던 대로 도교육청의 사업을 생각 없이 그대로 전제하고 복사하는 그런 현상들이 어느 교육청 할 것 없이 계속 드러납니다.

운영 주체가 도교육청인 그런 사업일 경우에는 지역교육청 단위에서는 같은 사

[지역교육청주요업무계획보고]

업이라도 그것을 활용한다든가 또는 그런 업무나 행사에 참여한다든가 이런 식으로 표현이 되어 될텐데, 뭐 운영, 이런 식으로 도교육청의 관점을 그대로 복사를 하고 있고 심지어는 실적까지 그렇게 합니다.

이것은 뭐 정말 업무 역량이 딸린다고 보다는 복무 태도 자체가 문제가 아닌가 이런 생각이 볼 때마다 들고요, 그런 부분들을 이후에는 꼭 좀 교육장님들께서 점검을 세심히 해 주시기를 다시 한번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토론해보고 싶은 내용이 있는데요, 교육장님들 뭐 취임하시면서 취임 일상으로 강조하신 부분이기도 하고 금년도 주요사업계획 머리에 올린 부분이기도 합니다만은 바로 학습력 제고, 또는 학력관리 문제입니다.

이 부분은 당연히 모든 교육장님들과 함께 토론을 하고 싶지만은 이 자리에서는 대표 교육장님이신 신우인 교육장님과 말씀을 나눠보면서 생각해 볼 기회를 갖고자 합니다.

물론 다른 교육장님께서도 같이 고민을 하시면서 혹시 다른 생각이거나 더 좋은 그런 생각이 있으시면 한시라도 의견을 주시기 바랍니다.

청주 교육장님, 우리 교육, 아니면 청주 교육에서 가장 큰 문제를 아까 첫째도

둘째도 학력이다, 이렇게 말씀하신 것을 들었습니다, 물론 이제 교육이 전부는 아니라고 전제는 하셨지만.

그리고 또 우리 교육이 위기라고 하는 것에 이견이 없을 정도로 많은 분들이 그렇게 말씀들 하셨습니다.

이 부분에 동의를 하십니까?

● 청주교육청 교육장 신우인

예, 동의합니다.

● 김병우 위원

우리 교육의 위기는 또 주로 공교육의 위기를 일단은 얘기를 하는 걸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공교육이 위기다라고 하는 것은 사교육에 공교육이 뒤지고 좀 딸린다, 이런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어느 부분이 도대체 공교육이 딸리느냐고 할 때 역시 학력 부분을 주목을 하면서 사교육에 비해서 그런 학력 부분이 공교육이 좀 효과가 뒤지고 그래서 공교육이 위기고 이것이 곧 공교육이 위기다, 이렇게 진단을 하는 것 같습니다.

이 부분에 동의를 하십니까?

● 청주교육청 교육장 신우인

예, 제 개인적인 소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공교육과 사교육의 차이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 공교육에서의 교사들은 어느

때보다 최고의 질을 가지고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지금 사법고시보다도 더 어렵다는 임용고사를 패스해서 들어온 선생님들의 질은 정말 개인적으로 봤을 때 엄청난 파워를 갖고 있다고 봅니다.

단, 이 좋은 질의 선생님들이 그 역량을 학교에서 충분히 발휘치 못하는 데서 공교육이 좀 무너지지 않는가.

그것은 무슨 얘기냐 하면 선생님들의 장학력이 절대적으로 떨어진다고 생각을 합니다. 학생들을 장학할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 얘기는 지금 젊은 선생님들이 학교 다닐 때 공부만을 중요시하지 않았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사회생활이 부족한 점도 있겠지만은 누구한테도 학생들을 지도하는 방법은 배우지를 못한 것 같습니다.

옛날에는 선배 선생님들로부터 많은 지도를 받아왔지만 그런 것들이 지금 학교에서는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봅니다.

소통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는데 그렇기 때문에 아마도 공교육이 사교육보다 못하다고 보고요, 반면에 사교육에서는 언뜻 인기와 서비스 질 제고, 이런 것들이 공교육보다는 아무래도 낫겠죠.

그런 면에서 공교육이 사교육보다 못하다는 표현을 하고 싶습니다.

● 김병우 위원

아니 이제 아까 서수용 위원님 말씀 주에도 특정 일부에서 3S가 공교육이 사교육에 뒤져서 교육성과가 뒤지는 것 같다, 뭐 이렇게 봤다고 그러고, 지금 교육장님께서도 여러 가지 면에서 어쨌든 사교육 쪽에 교육효과를 낼 수 있는 요소들이 있어서 공교육이 위기로 몰린다, 이렇게 진단을 한다는 거죠.

그런데 문제는 그러한 여건이나 요소의 차이로 해서 사교육이 공교육보다 우월하고 공교육이 못 미치는 것처럼 비치는데 그 잣대가 바로 학력을 가지고 재는 거 아니냐.

● 청주교육청 교육장 신우인

그런 건 아닙니다.

저는 그렇게는 생각 안합니다.

● 김병우 위원

그러면 다른 부분에서도 사교육이 공교육을 앞서는 것이 있다고 보시는 겁니까?

● 청주교육청 교육장 신우인

일정 부분은 있겠죠.

● 김병우 위원

어떤 부분이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 청주교육청 교육장 신우인

글쎄요 지금 질문을 하시니까 떠오르지 않는데요.

● 김병우 위원

그러니까 우리 교육청이나 지역교육청

[지역교육청주요업무계획보고]

은 공교육의 책임 관청 아닙니까. 그렇지
죠?

● 청주교육청 교육장 신우인

에, 맞습니다.

● 김병우 위원

그러니까 공교육의 책임 진력을 가장
성실하게 이행을 하려고 초점을 맞춰야
된다는 거죠.

● 청주교육청 교육장 신우인

에, 맞습니다.

● 김병우 위원

그런 점에서 과연 지금 공교육과 사교
육이 어떤 점에서 비교되고 어떤 점을 보
완해야 될 거냐 하는 데 분명히 초점을
맞춰야 된다는 거죠.

그런데 공교육과 사교육은 분명히 책임
영역과 목표가 다를 수밖에 없다고 생각
합니다.

어떻습니까?

● 청주교육청 교육장 신우인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시겠어요?

● 김병우 위원

목표가 다르지 않는가.

물론 이제 사교육은 공교육이 부족한
부분을 보완하는 영역입니다. 그죠?

그런데 특히 세상의 비교 잣대가 자꾸
사교육을 필요로 하는 것도 공교육에서
학력을 부모들이 요구하는 학력을 채겨주
지 못하니까 그것을 사교육으로 보완하겠

다고 생각해서 그쪽에 의존을 한다는 애
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교육은 공교육 나
름대로 결코 포기할 수 없는 영역이 있다
는 거죠.

그래서 사교육과 공교육은 목표가 다를
수밖에 없고 그래서 같은 학력이라고 하
더라도 개념이 다를 수밖에 없다라고 하
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이제 그런 점들을 조금 더 여쭙보고 싶
은데요, 뭐 누구도 어느 영역에서도 지금
학력을 높일 필요가 있다는 데 반대를 하
거나 그것이 교육의 중요한 영역이라고
하는데 이의를 달 사람이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문제는 그 학력의 진정한 개념이 뭐냐
하는 것을 정리하지 않고 학력관에 대한
어느 합의 없이 통일 없이 학력만 무작정
하고 이렇게 자꾸 강조만 해대면 전혀 영
똥한 결과를 나올 수 있다는 생각이 들니
다.

그런데 학력의 개념은 시대에 따라서도
다를 수가 있고 그런데 그래서 이제 우리
교육청에서도 금년에 그 학력에 관한 개
념이나 학력관 자체를 정돈해 보자는 생
각을 교육발전세미나도 몇 년 전에 했었
고요 저도 토론회에 나갔었습니다.

그때 충북대학의 정영수 교수께서 정말
정리를 해 주시는 것을 제가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 교육청에서 학력 앞에 조화로운이라고 하는 수식어를 넣어서 조화로운 학력이라고 일단 개념을 정리를 했던 것으로 기억이 되고요, 그것을 정교수께서는 종례의 학력이라고 하는 것은 아이큐 중심의 지적 능력 위주의 학업성취도, 교과성적, 이것을 이제 학력이라고 봐왔으나 이게 이제 정말 지식정보화 사회라고 하는 21세기에는 단지 아이큐 중심이 아니고 다중 지능을 바탕으로 한 지적능력뿐 아니라 지적이고 정서적이고 신체적이고 정신적이고 사회적 가치를 포괄할 수 있는 개념이 돼야 된다고 얘기를 하시더군요.

그래 이것은 개념은 그렇게 복잡한 것 같지만 사실은 두고두고 얘기해 왔던 전인교육을 벗어나는 게 아니고, 그 다음에 지·정·의·체 이 모두를 포괄하는 개념이라고 간단하게 규정을 하시더라고요.

교육장님, 이 부분에 동의를 하실 수 있겠습니까?

● **청주교육청 교육장 신우인**

예, 동의할 수 있겠습니다.

● **김병우 위원**

그렇다면 이제 우리 교육장님께서서는 이 학력 문제를 첫째도 둘째도 중요한 요소라고 생각을 하신다고 하시면서 학력제고를 위해서 현장을 특별 점검하신다고 하

시고 계십니다. 17쪽입니다. 다른 교육청들도 다 이 부분들 특별 점검하겠다고 하시고 계십니다.

요는 뭘 어떤 부분을 어떻게 무엇을 위해서 점검을 특별히 할 것인가를 분명히 해야 된다는 거죠.

혹시 특별점검이라고 단순하게 표현한 것 뒤에 어떤 복안이 있으신가요?

● **청주교육청 교육장 신우인**

저희 교육청에서는요 특별점검의 의미를 특별히 두지는 않고 장학활동을 할 때 획기적인 장학지도 방법을 개선해 보려고 합니다.

첫째는 옛날에 복고적이고 또 보수적인 이제까지 장학협의회가 수십년간 답습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변함이 별로 없습니다.

첫 번째, 가서 공개수업 발표하고 점심 먹고 두 번째는 행정사항 점검하고 그리고 강평으로 일관하는 장학협의회를 지금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좀 획기적으로 한번 바꿔 보려고 그러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바꾸느냐 하면 그 수업 공개는 학교 자체 내에서 자기 장학이든 협동 장학이든 동료 장학이든 그런 것들을 교과별로 동영상 통해서 얼마든지 공개를 해서 그 동영상 자료를 우리한테 보내주고 행정사항에 대한 어떤 지도나

[지역교육청주요업무계획보고]

점검은 서면으로 받고 그렇게 해놓고 어떤 장학지도 협의 시에는 직접 학교를 방문해서 학력신장을 위한 방안이라든가 또 협의라든가 토론이라든가 또 필요에 따라서는 한 학급 샘플로 학력평가도 해본다는 그런 의미의 점검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 김병우 위원

장학지도 같은 것을 이제 학력제고를 위한 방안으로 구상을 하시고 있으시다고 특별점검의 내용을 말씀을 해 주셨는데 그런 새로운 시도 같은 거 의미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요는 중앙 정부 단위부터 일제고사 이런 식으로 학력을 점검해서 거기에서 점수나 석차 위주로 진단을 하고 재는 걸로 이렇게 돼 있다 보니까 하부 단위에서도 자꾸 도 단위나 또는 지역 단위에서 결과를 재는 평가, 이제 또 다른 일제고사를 한다든가 이렇게 해서 그것이 학력신장으로 이어지지 않겠나 하는 유혹에 빠질 수 있다는 것이 저는 약간 염려가 되는 것입니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아이들은 교육하는 대로가 아니라 평가하는 대로 형성된다. 그러니까 시험을 자주 보이고 또 그 결과를 가지고 자꾸 채근하고 문책을 하고 하다보면 아이들이 배우는 것을 기억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시험문제 형식이나 내용에 집착을 해서 그것만으로 그것에 매인다는 거죠.

그런데 그런 평가나 시험위주의 교육이라고 하는 게 단적으로 입시교육이라고 하지 않습니다.

그 입시교육의 폐해는 누구도 모르는 사람이 없을 겁니다, 아마.

그래서 우리가 지금 입시를 자꾸 경쟁을 덜 하는 쪽으로 고쳐왔지 않습니다. 그런데 자꾸 되돌려서 입시에 대한 어떤 유혹이나 이런 것을 자꾸 느끼는 것 같아요. 그래서 입시교육이 그래도 눈에 보이는 결과를 가장 높일 수 있는 방법 아니냐 하는 그런 유혹에 자꾸 사로잡히게 된다는 거죠.

입시교육의 폐해는 지금까지 슬하계 지적돼 와가지고 얼마나 더 얘기를 해야 되겠는지 모르겠지만 인스턴트 지식을 중시하는 교육일 수밖에 없다라든가 휘발성 메모리를 기계적으로 암기하는 수업을 조장한다든가, 또 타율적이고 의존적인 학습태도에 젖어들게 한다든가. 모르는 분이 없을 겁니다, 아마.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꾸 결과 중심의 점수를 내가지고 비교해서 뭔가 성과가 나왔다라고 이렇게 생각하는 이런 태도를 벗어나지 못하는 거, 이것이 끊임없이 안타깝고 그러한 관점으로 교육의 위기나 또 교육의 문제점을 재는 관점은 대단히

위험할 수 있다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렇다면 지금 우리 교육에서 위기로 볼 때도 그렇게 문제로 볼 때도 그렇게 문제의 초점은 학력에 있다라고 보는데, 저는 그 학력과 관련해서 가장 큰 문제는 학력이 저하된 것이 아니고 학습 흥미도가 저하돼 있는 것이 더 큰 문제고 위기라고 생각합니다.

국제학력평가라고 있죠. 팀스(TIMSS)라고 하는 것도 있습니다. 그 다음에 유명한 피사(PISA)도 있죠. 그런데 이제 이것을 보면 우리나라는 학력 자체는 국제적으로 최상위 그룹에 매년 들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도 읽기라든지 기초연산이라든지 암기력이라든지 이런 기초지식은 최상위급이고 그 다음에 상대적으로 취약한 것이 창조적 사고력이나 비판력 이런 것은 좀 취약하게 나오고 최하위에 드는 것이 자신감이고 흥미도고 자기주도적 학습력이다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결국은 점수보다 학습흥미가 낮은 게 아까 말씀드렸듯이 진짜 문제라는 거죠.

옛말에 공자님도 아는 것은 좋아하는 것만 못하고 좋아하는 것은 즐기는 것만 못하다는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저는 이것이 바로 우리 학습방법 공부에도 그대로 적용될 수 있다고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선생님들의 지도방법 중

에서 가장 나쁜 방법은 공부가 싫어지게 만들고 질리게 만드는 방법이라고 봅니다.

눈에 보이는 결과를 아무리 높여도 그 아이가 그 시험을 딱 벗어나면 공부를 내팽개치고 싶게 만드는 것이 가장 나쁜 교육방법이라고 생각이 드는 겁니다.

그렇지 않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렇다면 반대로 공부를 좋아하도록 만들고 즐기게 만드는 것이 비결 아니겠는가, 비법 아니겠는가 학력신장에. 그렇게 생각이 든다는 거죠.

그래서 제가 본청에 관계자 분들한테도 그런 제안을 얼핏 드린 적이 있었는데 특별히 점검을 한다 이럴 때 자꾸 결과만 재지 말고 학습흥미도를 재볼 생각을 해 볼 수 없는가. 그래서 그 흥미도가 높아지고 아이들이 그 공부를 즐겁게 만들고 아이들이 그 시간을 기다리게 만들고 그 선생님을 좋아하게 만드는 게 나중에 자연스럽게 학력신장으로 이어지는 지름길이고 첩경이 아니겠는가 그런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침주교육청 교육장 신우인

좋은 방법이라 생각을 하고요, 그 우리 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 중에 그 진단평가나 학업성취도 평가에 있어서 학교 현장에서 서열화는 한 적도 없고 초등학교 같은 경우는 평가제도가.....

[지역교육청주요업무계획보고]

● 김병우 위원

교육장님 알겠습니다.

이제 의미는 알겠고 나중에 혹시 뭐 말씀 나눌 기회가 되면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특별점검 나가실 때 평가도 하신다고 이렇게 했는데 그것을 일종의 결과를 평가하는 학력평가 방식이 아니고 그러니까 고사가 아니라 검사를 해 보는 게 어떻겠느냐 하는 아이디어를 드립니다.

● 청주교육청 교육장 신우인

좋습니다.

● 김병우 위원

참고로 해보시고요, 그리고 시·군교육청별로 사항별 점검을 해보고 싶은 게 사실 여기 이렇게 있습니다.

시간을 조금 주시면 제가 급히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청주교육청부터 여쭙겠는데요 사립학교 재정결함보조금 지원, 이게 참 역시 중 6개교, 6개 학교에 317억이라고 돼 있네요.

● 청주교육청 교육장 신우인

317억이 아니라 한 150억일텐데요, 인건비까지요.

● 김병우 위원

317억요?

● 청주교육청 교육장 신우인

한 160억으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 김병우 위원

40쪽에 그렇게 나와 있어서 저도 궁금해서 여쭙 겁니다.

● 청주교육청 교육장 신우인

인건비가 140억 되고요, 학교운영지원비가 한 14억으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 김병우 위원

그러면 이게 잘못된 게 아닌지 점검을 해보시고요, 어쨌든 이제 이런 재정지원이 필요하면 해야죠. 그런데 그것과 더불어서 그 밑에 나와 있듯이 자구노력도 하시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새 청사, 이제 곧 완공돼서 들어가실텐데 역시 주민 분들은 애초에 교육청사보다 다른 주민복지시설이나 교육시설이 들어왔으면 하는 것을 알고 계시죠?

● 청주교육청 교육장 신우인

예, 알고 있습니다.

● 김병우 위원

주민들에게 어떤 보탬이 될 수 있느냐 하는 기대와 요구가 있는데 주민들이 아주 잘 활용할 수 있는 편의시설, 예를 들면 테니스장이나 또는 강당이나 이런 부분도 주민들한테 개방할 의향이 있으시죠?

● 청주교육청 교육장 신우인

개방하겠습니다, 당연히 개방해야 되죠.

● 김병우 위원

그 부분을 여쭙고 싶었고요, 그 다음에 충북대 병원학교 작년에 개설하는데 가봤 습니다.

충북에 유일한 거죠?

● 청주교육청 교육장 신우인

그렇습니다.

● 김병우 위원

그런데 보은 같은 데 이런 데서도 병원 학교 운영이 들어서 조금 의문스럽습니 다.

● 청주교육청 교육장 신우인

그게요 이쪽 타 교육청에서는 운영하 기 어렵습니다.

저희들 상담교사가 특수교사 하나가 복 대초에 있기 때문에.....

● 김병우 위원

예, 그것은 알고 있습니다.

작년에 보니까 한 아이가 있던데 지금 은 어느 정도 아이들이 이용하고 있습니 까?

● 청주교육청 교육장 신우인

그것은 제가 아직 보고를 못 받았습니 다.

● 김병우 위원

고맙습니다.

그 다음에 청원 묻겠습니다.

다른 교육청에도 그게 있던데 41쪽에 기동감찰반, 기동감찰반을 지역교육청 차 원에서도 운영을 하나요?

● 청원교육청 교육장 권오삼

예, 그렇게 운영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 김병우 위원

취약시기에, 명절 전후라든지 이런 시 기에.

● 청원교육청 교육장 권오삼

명절 시기가 아니고 기동감찰반은 그런 의미도 있지만은 시설공사 같은 경우에도 그런 부정부패를 미리 예방한다는 차원에서 운영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 김병우 위원

그러면 명절 전후라든지 그런 내용이 나와 있어서, 그러면 명절 전후에는 도교 육청, 시교육청 기동감찰반들이 굉장히 바쁘시겠다 싶어서.

예, 고맙습니다.

꼭 짚어보고 싶은 것을 좀 더 여쭙겠습 니다.

죄송합니다.

아까 서수웅 위원님 지적하신 선플(善 PL), 선플(sun-full) 관련되는 거 여러 교육청에 있으시던데요 선플로 돼 있기도 하고 선플로 돼 있기도 하고 그런데 제가 알기로는 그 플이라고 하는 게 리플라이 아닙니까. 답글, 댓글, 덧글 이렇게 우리 말로 표현하는 그 리플라이이기 때문에 말을 줄여 한다고 해도 '플' 뭐 이렇게 돼야 될 것 같은데 그것을 플로 쓰기도 하고 또 그냥 어거지로 영어로 굳이 붙여

[지역교육청주요업무계획보고]

서 썬샤인(sunshine) 플(full) 뭐 이렇게 하기도 하던데, 그 영동교육청에서 굳이 좀 억지스럽게 영어로 한 것은 그 선플달 기운동을 벌이는 그 민간단체에서 사이트 이름을 정하려다가 그렇게 붙인 것이라고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그 취지는 좋지만 뭐 좋은 일 하나 하려다가 또 다른 일을 그르친다고 저는 그 행정용어 남발 중에서도 오용, 남용, 언어오염 이런 부분을 저는 자꾸 걱정이 안될 수 없는데, 그래서 굳이 그렇게 억지스럽게 조어를 하고 이렇게 할 게 아니고 되도록 쉽고 고운 우리 말로 쓰는 것이 필요하지 않겠나 우리 행정관청에서, 특히나 우리 교육 관청에서 그런 데 앞장서야 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좀 참고로 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이 클린웨이브 이런 것도 사실은 이거는 국가청렴위원회에서 만든 거라고 저도 알고 있습니다만은 위에서부터 밑에까지 아주 심각해서 걱정이 안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다보니까 클린 충북도 본뜨게 되고, 클린 아무개 교육 이렇게 자꾸 내려오게 되는데 이런 부분들을 같이 고민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지금 옥천교육청에 39쪽에 보면 다른

교육청도 있던데 네이스 지원시스템, 이것은 도교육청 차원에서 운영하는 거죠?

● 옥천교육청 교육장 이은자

예

● 김병우 위원

이것은 보은은 활용, 이렇게 잘 했는데 그런 것을 참고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 옥천교육청 교육장 이은자

예, 시정하겠습니다.

● 김병우 위원

그 밑에 있는 4-3-2에 있는 언론브리핑제, 이것도 혹시 지역에서 언론브리핑 정기 수시로 이렇게 하시나요? 그런 부분, 45쪽에 농촌지역 무상급식 확대 그 인원들은 연인원인가요? 1년 연인원. 그런 부분 한번 짚어보시길 부탁드립니다.

● 옥천교육청 교육장 이은자

예

● 김병우 위원

그리고 역점사업에 있는 ‘즐토’ 이것도 사실은 언어오염입니다. ‘즐토’ 이런 조어법은 없습니다. 아무리 속어로 많이 쓰는 방식이라고 하더라도, 즐거운 토요일이라고 아마 그런 것 같은데.

영동교육청 5쪽에 성과 중에 보니까 찾아가는 교육장실을 초·중·고 28개교 했다고 나오네요, 5쪽에.

고등학교도 찾아가십니까?

● 영등교육청 교육장 조용남

고등학교도 교육협력 차원에서 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김병우 위원

그런데 유치원은 안 가지네요?

● 영등교육청 교육장 조용남

유치원은 아마 초등학교에 포함시킨 것 같습니다.

● 김병우 위원

예, 알겠습니다.

23쪽에 이 부분은 다른 교육청에도 해당되는 거라 본청에도 해당되는 거라 꼭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이 용어를 만들 때요 예를 들어서 거기 23쪽 모두가 함께하는 감동생활지도 보면 어르신안전지킴이제 운영, 이런 게 있습니다. 얼핏 보면 쉬운 말 같죠. 굉장히 애매한 말입니다. 어르신안전지킴이제 어른신 안전을 지키는 제도인가요? 생각하건대 아이들의 안전을 지켜주는 어르신들을 활용하는 제도인 것 같습니다.

● 영등교육청 교육장 조용남

예, 그렇습니다.

● 김병우 위원

그런데 조어에 신경을 안 쓰다보면 그게 혼란스러워진다는 겁니다. 이런 예들이 많이 있습니다.

한 가지 예를 들면 53쪽에도 보면 어르

신돌봄이라는 게 나옵니다. 이것은 어르신안전지킴이제하고 다른지 모르겠는데 어르신안전돌봄이라고 하면 어르신들 보는 사람을 얘기를 하는 거 아니에요?

또 하나 보편은 학생지킴이라는 게 나와요, 학생지킴이.

이것은 당연히 지킬 대상은 학생일텐데 친구를 친구가 지켜주는 지킴이 학생이라는 애긴지, 그죠?

우리가 얼핏 생각하면 배움터지킴이 그러면 배움터를 지키는 사람 아닙니까. 그러면 학생지킴이라고 그러면 학생을 지키는 사람이라는 개념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친구를 지켜주는 학생을 뜻하는 용어가 되게 하려면 '지킴이학생' 이렇게 해야 되는 거거든요. 친구지킴이 학생, 이런 식으로 한다든지.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말을 만들 때 어법 같은 것을 고려해서 만들어야 된다는 말씀을 꼭 좀 드리고 싶고요, 아까 영등고 기숙형 고등학교에 대한 조례로 만들어서 운영비까지 이렇게 지원할 수 있도록 노력하신다는 것은 대단히 모범적인 예라고 생각합니다.

지금까지는 사실 그 부분이 기숙형 공립고 예산이 많이 주어짐에도 불구하고 운영면에 있어서 앞으로 어려움이 들지 않을까 걱정하지 않을 수 없었던 바로 그 부분이었거든요.

[지역교육청주요업무계획보고]

지금 괴산고나 진천고 같은 경우는 지자체에서 급식비 일부를 지원을 해 주었는데 아무리 시설을 잘 지어놓고 아이들을 많이 받아주려고 하더라도 그거 해결 못하면 아이들 들어오려고 하는 아이들이 없어질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은 영동에서 모범을 만들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43쪽에 보니까 저소득층자녀가 중학생 학비지원 대상 학생이 435명이나 되네요.

● 영동교육청 교육장 조용남

여기는 저소득층이 275명이고 차상급, 학교에서 담임선생님이 추천하는, 학교에서 학교장이 추천하는 그 외의 저소득층아를 포함한 숫자가 435명입니다.

● 김병우 위원

그래도 영동 학생들의 4분의 1 정도가 학비지원 대상이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네요.

● 영동교육청 교육장 조용남

에

● 김병우 위원

지역여건을 반영하는 그런 의미있는 수치인 것 같습니다.

고맙습니다.

조금 더 여쭙고 싶은 게 있지만 제가 너무 많이 시간을 차지한 것 같아서 이 정도로 줄이고.....

● 의장대리 김부웅

김병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저도 간단하게 말씀을 드릴 테니.....

원래 준비는 저도 한 30분 정도 질문을 할 건데 그만 시간을 우리 김병우 위원님이 소모를 하셨네요.

● 김병우 위원

죄송합니다.

● 의장대리 김부웅

교육수요자의 입장에서 또 감시와 견제자의 입장에서 배포된 자료를 검토를 해 봤습니다.

그 소견을 말씀드리는데 저는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청주교육청은 지나가겠습니다.

청원교육청, 꼭 수고해 주실 일이 있는데 27쪽에 2-3-4 공무원 정보화 기능경진 대회는 교육감 업무를 그대로 났습니다.

36쪽에 4-1-2 교직원단체 파트너십 제고 여기서는 청원교육청에서는 교직원단체하고 교섭행위를 할 수 없습니다만 이 업무보고서를 근거로 해서 우리 하자고 하면 꼼짝 못하게 생겼어요. 고치셔야 됩니다.

기동감찰반도 마찬가지로입니다.

이제 우리 부패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5-2-1 47쪽입니다.

교육복지학교 지정 운영도 이것도 교육감 사업 같습니다.

이렇게 해서 교육감 사업이 그대로 나

타나 있는 게 참 많아요.

보은교육청 지나갑니다.

옥천교육청도 마찬가지로 상당히 많아요, 그게.

교실수업 개선 및 인성교육 실천 사례 이것도 교육감 사업입니다.

24쪽 교과교육연구회에 연구회별로 400만원씩 지원하는 계획이 있는데 이거 예산에 없는 거 들어가 있죠? 그거 잘못된 거죠? 분명히.

● 옥천교육청 교육장 이은자

예

● 의장대리 김부웅

연구회 지원사업은 정작 30만원인데 다른 교육청이 청주가 150만원, 청원이 65만원, 보은이 75만원인데 거기는 반도 안 되니까 지원책 좀 마련해 보세요.

그 다음에 24쪽 공무원 정보화능력 경진대회도 교육감 업무입니다.

너무 많이 쓴소리 드렸네요.

영동교육청 지나가면서 끝으로 여러 교육장님들 짧은 시간에 대충 본 것을 감히 말씀드려서 죄송합니다.

제가 다 비슷비슷한 이런 교육청 업무를 보면서 좀 자세하게 짚어드리고 싶었는데 몇 가지 제언 말씀으로 제 말씀을 줄이겠습니다.

먼저 통일 대비 교육이 전체적으로 미비하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우리는 지금 남북 북단의 현실을 똑바로 알고 있어야 되고요, 또 북측을 보면은 인민은 배가 고파도 핵무기를 개발한 군사 대국으로 성장했습니다.

그런데 그 핵무기가 미국도 아니고 일본도 아니고 중국도 아닌 바로 우리 머리 위에 위협한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고 있어야 됩니다.

이게 교육이 빠져있습니다.

2년 전에 지적을 했기 때문에 지난해에는 거의 잘됐다고 생각했는데 도교육청 업무를 지역단위 업무로 소화하지 않고 그대로 나열한 것은 사실 이게 어느 곳에 내놓더라도 부끄러운 일입니다.

특히 감시와 견제의 책무가 있는 저희 교육위원회에 제출하는 서류로써는 매우 부적절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교육장님께서 제출 전에 꼭 좀 살펴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우리말 사랑하는 거는 김병우 위원님이 말씀하셔서.

그 다음에 지난 10일 교육감께 업무보고 시에서도 아마 학교장의 잦은 출장이나 외출을 자제해 달라는 말씀이 계셨다는 걸로 제가 보도에서 봤습니다.

맞습니다.

제가 거듭 말씀드렸습니다만 학교에 행사가 있을 때마다 많은 교장선생님들을 초청하고 그 초청 받은 교장선생님들이요

[지역교육청주요업무계획보고]

가서 보시면요 동창회장, 자모회장, 조합장까지 다 소개해도 교장선생님은 협의회장님만 한 분 소개하고 말아요.

많다는 이유죠, 그게.

뭐하러 많은 축에 들어갑니까.

그러지말고 우리 이참에 소개 못 받을 자리에 가지 맙시다.

결국 소개 못할 자리 초청하지 맙시다.

이런 운동 좀 해 주세요.

부득이 초청하려면 같은 면 내에만 초청해서 정말 교장선생님들 정중히 모시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어서 대통령 발령받은 분 아닙니까, 권위 좀 세워줍시다.

또 교육청 산하에 행사를 참석해 보는데 의전이 참 어렵습니다.

요전에 충주교육청 행사를 가니까요 교육감님 말씀 다음에 교육위원 축사가 있더라구요. 이게 맞는 겁니다. 그 다음에 시장이 나와요. 그게 맞습니다. 그런데 어느 군 단위 지역 행사에 가보면 교육감님 말씀, 군수 말씀, 도의원 말씀, 군의원 말씀, 교육위원 맨 늦게 나와요. 그거 참 짜증납니다. 아니에요. 의전에 맞지 않습니다. 잘 한번 생각해 보세요, 왜 안 맞는가를.

그래서 교장선생님들 회의할 때 그런 의전 좀 가르쳐주세요.

교육행사에는요 교육감하고 지사님이 참석을 해도 지사님이 위가 아니라 교육

감님이 위입니다. 또 군수하고 교육장이 참석해도 교육장이 위입니다. 그런데 마찬가지로 아닙니까. 교육위원이 위에 아닙니까. 그런데 꼭 군의원 다음에 해줘. 속상해요.

끝까지 협조해 주셔서 고마운데 저는 말씀을 이 정도로 줄이고서요 하고 싶은 말씀 참 많습니다만은 시간 때문에.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므로 질의 및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오늘 보고 및 질의와 답변을 청취하는 과정에서 좋은 의견을 제시해 주신 동료 위원님, 그리고 성실하게 답변하여 주신 교육장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오늘 교육장님들께서 보여주신 적극적인 관심과 의욕적인 실천의지를 통하여 충북교육이 한층 더 힘찬 도약을 하는 한 해가 되리라는 것을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우리 교육위원 모두는 교육장님들의 알찬 충북교육의 실현을 위한 열정과 노력에 힘을 실어드릴 수 있는 의정활동을 펼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교육장님들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청주교육청 등 5개 지역교육청의 2009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 및 질의 답변 오전 순서를 마치겠습니다.

(13시 00분 회의중지)

(14시 30분 회의계속)

● 의장대리 김부웅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오후 지역교육청 보고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주요업무 보고는곽정수 의장의 일신상 사유로 해서 제가 진행을 하겠습니다.

충주교육청 조성래 교육장님, 제천교육청 신강수 교육장님, 진천교육청 연홍길 교육장님, 괴산·증평교육청 이상용 교육장님, 음성교육청 정인영 교육장님, 단양교육청 정가홍 교육장님!

이렇게 한 자리에서 뵈게 되니 매우 반갑습니다.

정가홍 교육장님은 지난해 보고회를 하신 것 같은데 올해 다른 다섯 분은 처음으로 이런 자리를 뵈게 돼서 더 의의가 깊다고 생각합니다.

오늘 바쁘신 중에도 주요업무 보고를 위항 자리를 함께 해 주신 지역교육장님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특히 지난 3월 1일자로 교육장의 중책을 맡으신 신강수 교육장님, 또 이상용 교육장님께는 다시 한번 축하의 말씀을 다시 개인적으로 드리겠습니다.

우리 교육위원회에서는 지난 1월과 2월에 개최된 임시회 회기중에 도교육청과

직속기관의 2009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청취한 바 있습니다.

이번 회기에는 2009년도 지역교육청의 주요업무계획에 대한 보고를 청취하고자 자리를 마련하게 된 것입니다.

오늘 보고하게 되는 주요업무계획은 금년 1년간의 교육활동 및 교육행정 계획이 총 결집되어 있는 가장 기본이 되는 중요한 계획입니다.

우리 교육위원회에서도 그 내용 및 기관별 현황과 현안문제 등을 파악하여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쳐나가는데 활용하고자 합니다.

또한 이런 기회가 교육위원님과 교육장님들간에 진지하고 심도 있는 협의의 자리가 되어 충북교육이 한 단계 더 도약할 수 있는 계기가 되기를 충심으로 기원하며 인사에 갈음하겠습니다.

그러면 참석하신 교육장님을 대표하여 충주교육청 조성래 교육장님께서 간단한 인사 말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충주교육청 교육장 조성래

충주교육청 교육장 조성래입니다.

희망찬 새 봄을 맞이해서 우리 존경하는 곽정수 충청북도교육위원회 의장님, 그리고 김부웅 부의장님, 또 여러 위원님들을 모시고 주요업무 보고를 드리게 됨을 무척 기쁘게 생각합니다.

그동안 우리 충북교육이 많은 교육인프

[지역교육청주요업무계획보고]

라를 구축하고 인재를 양성하며 성장과 발전을 거듭한 것은 항상 올바른 잣대로 충북교육을 이끌어주시는 존경하옵는 여러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의견수렴과 건설적인 대안 제시로 가능했다고 생각합니다.

이 자리를 빌려서 6개 지역교육청을 대표하여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오늘은 저희 6개 지역교육청의 교육장이 기본이 바로 선 일류 충북교육 실현을 위해서 지역교육청이 추진하고자 하는 계획과 다짐을 여러 위원님들께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존경하는 교육위원님!

각 지역교육청은 품성이 바른 인재육성과 기초학력 신장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오늘 이 자리가 지역교육이 뜻 깊은 역사의 자리로 자리매김하도록 저희 6개 지역교육청의 교육장을 대표해서 굳게 약속을 드립니다.

다시 한번 위원님들의 헌신적인 충북교육 사랑에 존경과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대리 김부웅

조성래 교육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회의의 효율적인 진행을 위해서 지역교육청 주요업무 보고 및 청취, 질의 답변 방법에 대해서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보고하실 순서는 충주, 제천, 진천, 괴산·증평, 음성, 단양 교육청의 순서로 진행을 하겠으며, 기관별 일반현황 등 공통적인 사항은 보고서로 대체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고, 주요사업 및 특색사업을 중심으로 해서 교육청별로 10분 내외의 보고가 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관별로 모두 보고를 들은 후에 위원님들의 질의 답변 순서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답변 순서는 위원님들의 신청에 따라서 일문일답으로 진행하겠으며 질의 및 답변은 시간 여건상 위원님 한 분당 15분 정도로 하여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먼저 충주교육청 조성래 교육장님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충주교육청, 제천교육청, 진천교육청, 괴산·증평교육청, 음성교육청, 단양교육청 순으로 업무 보고)

▶ 참 조 : 2009년도 주요업무계획(별책)

● 의장대리 김부웅

회의를 시작한 지 1시간이 되었습니다.

10분간 휴식을 가진 후에 3시 40분에

속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5시 30분 회의중지)

(15시 40분 회의계속)

● 의장대리 김부웅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지역교육청별 주요업무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및 답변은 위원님들 신청에 따라서 일문일답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의사표시 하시기 바랍니다.

정무 위원님 질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정무 위원

정무 교육위원입니다.

40 평생을 외길로 교직에 봉직하시면서 불꽃같은 열정과 교육철학으로 일관해 오신 분들이 비일비재한데 그 중에서 이번 3월 정기 인사에서 지역교육의 수장으로 발탁되신 제천교육청 신강수 교육장님과 괴산중평 이상용 교육장님께 다시 한번 축하를 드립니다.

남들은 교육장을 가문의 명예다, 개인의 명예라고 합니다.

그런 면도 있겠지만 본 위원은 명예라기보다 앞서서 책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임기 동안 열심히 잘 하시면 훗날 훌륭한 교육장님으로 기억을 하지만 자칫 세

월만 보내만 훗날 혹독한 평을 들을 수도 있습니다.

두 분 교육장님께서 잘해 주시리라 기대를 걸면서 귀 교육청의 발전을 기원합니다.

먼저 단양교육청에 대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단양은 두메산골이 아닌 중앙고속도로 통과로 충북, 강원, 경북을 잇는 교통의 요충지로, 소백산을 비롯 단양팔경과 석회암 동굴이 있는 관광자원과 함께 청정 문화 관광도시로 탈바꿈되어 각종 문화행사가 활발하게 전개되는 희망찬 고장입니다.

주요업무계획서 57쪽에 학력 및 특기 신장을 위한 방과후 학교 운영을 특화사업으로 알차게 운영하여 방과후 학교 운영비로 1억 2,000만원을 투자를 하고 학부모의 사교육비를 경감시키는가 하면 도농간 교육격차 해소와 공교육의 신뢰회복을 위해 부단히 노력하고 있음을 고맙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난해에도 모 일간지에 산간벽지 맞춤형 교육프로그램이란 제하로 방과후 중심 학교 운영 프로그램이 기사화된 걸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 결과를 입증이라도 한 것처럼 지난 달 발표한 학업성취도 평가 결과에 있어 우리 충북 군 단위 교육청 중에서는 좋은

[지역교육청주요업무계획보고]

결과를 얻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귀 교육청 주요업무 중 자랑할만한 것이 있으면 이 기회에 한 가지만 소개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단양교육청 교육장 정가흥

단양교육청 정가흥입니다.

위원님의 과찬의 말씀 열심히 하라는 걸로 알아듣고 몇 가지 질의에 대한 답변 드리겠습니다.

단양은 관광이라고 일반적으로 얘기하고 있지만 저는 관광 플러스 교육이라고 교육활동을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지역주민들이 교육 때문에 고향을 떠나는 안되겠다는 신념으로 지역주민의 홍보활동에 적극 참여하고 있고 지역의 상류층이 그래도 10% 정도가 자녀교육을 위해서 고향을 떠나고 있고 중하층의 군민들은 생계를 위해서 자녀교육에 관심이 없습니다.

이런 것을 저희 교육청에서 지자체와 합심해서 방과후 교육활동을 실시하고 그 교육계획 결과가 작년도 이미 나왔지만 재작년도에 제가 부임하고 그 다음에 일부 평가에 의해서 과학교육이 청주시보다 17점, 어느 교과는 34점이나 평균치가 되는 것을 제가 계속 홍보함으로써 단양의 방과후 학교 효과에 대해서 거듭 성과를 알려드렸습니다.

그 결과 올해에도 일부 학년에서는 청

주시 평균보다 30점이 웃돌고 어느 교과가 학년 평균이 20점, 교과 평균이 30점이 웃도는 성과를 거둬서 굉장히 효과에 역점을 두었습니다.

그 결과 주민들이 방과후 교육활동을 믿고 선생님을 믿는 결과가 돼서 바로 그러한 밑거름이 단양교육의 교육의 큰 힘을 갖게 돼서 성적에 많은 도움이 됐고 학부모의 관심과 교육 열기가 이루어지는 선생님들의 열정과 정열이 뒷받침됐다고 믿고 있습니다.

어쨌든 모든 성과는 선생님들의 열정과 정열, 그리고 지역 군민들이 지원해 주는 것이 효과가 있다고 저는 믿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 정무 위원

예, 감명 깊게 잘 들었습니다.

우리 교육자들이 가장 듣기 싫은 소리, 제일 듣기 싫은 소리가 실력이 없어서 공부 못 가르친다는 소리입니다. 또 반대로 제일 듣기 좋은 소리는 아 그 선생님 공부 잘 가르친다는 게 아마 교육자로서는 가장 명예스러운 소리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지금 단양교육청에서는 방과후 교육활동을 잘 운영해 주시고 모든 교직원들이 열정을 가지고 또 학부모님들의 뒷받침과 어울려서 그 결과가 지난달 발표한 학업 성취도 평가 결과에서 우리 충북이 좀 심

각한 수준인데 군 단위에서는 좋은 성적
으로 이렇게 돼서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리
고, 우리가 학력 부진을 면하려면 교육장
님을 비롯해서 교장선생님, 또 교감선생
님, 또 지도교사 담임교사 모두가 그 역
할을 한층 강화해서 체계적인 관리가 이
루어져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단양교육청에 더욱 좋은 성과가
있기를 기대하면서 다음 음성교육청에 대
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음성은 축복받는 고장으로 수도권 규제
완화라는 말이 나오기 전에는 산업체가
날로 번창하는 약속의 땅으로 사랑의 꿈
을 키우는 음성교육의 특화사업으로 미래
를 준비하는 산학 연계 교육에 있어서 내
고장에 있는 산업체를 연계하여 학생들에
게 올바른 지역관을 형성하고 미래의 직
업을 탐색하는 기회를 제공한다는 점에
착안한 것이 매우 공감이가는 특화사업
이라고 생각합니다.

추진방안으로 교육과정을 재구성한다고
했는데 어떻게 재구성, 무슨 교과를 어떻
게 재구성하는 건지 거기에 대해서 말씀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음성교육청 교육장 정인영

음성교육청 교육장 정인영입니다.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문항을 답변 말씀
을 드리겠습니다.

음성 관내에서는 각 읍 면의 크고 작은

다양하게 산업체가 많이 분포돼 있습니
다.

그래서 산학 연계하여 체험학습하기에
상당히 용이하고 이런 요건을 갖추기 때
문에 1교 1산업체 결연을 해가지고 산학
연계 체험학습을 지원했습니다.

그 결과 산업체에서 급식비와 장학금
이런 것도 지원해 주는 산업체가 상당히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미래지향적인 직업의식
을 갖도록 노력하기 위해서 학생들을 그
부모가 근무하는 산업체의 견학을 통해서
인성함양 또는 공동체 의식을 고취할 수
있도록 합니다.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초등학교 사회교과하고 실과 교과에서
4,5학년 교과 중에서 재구성을 해서 실시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드렸습니다.

● 정무 위원

다음에는 진천교육청에 대해서 질의하
겠습니다.

땅이 기름지고 풍수해가 적으며 인심이
넉넉하여 예로부터 진천을 살기 좋은 고
장 생겨 진천이라 한 것 같습니다.

주요업무 35쪽 36쪽에 보니까 지역사회
유관기관과 연계한 다문화 교육센터를 운
영하고 있는데 진천 뿐만 아니라 도내 모
든 지역이 해당되는 문제입니다.

[지역교육청주요업무계획보고]

정보화 세계화에 따른 국제결연에 대한 인식과 가치관이 바뀌면서 또 편중된 성비례로 결혼하지 못하는 농촌의 노총각들이 저개발국의 여성을 선호하면서 국제결혼이 이루어져 농촌에 다문화가정이 증가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귀 교육청 관내 다문화가정 매우 많은가요? 몇 세대 정도나.

● 진천교육청 교육장 연홍길

지금 한 46세대 조사된 것으로 46세대에 59명이 있습니다. 작년까지 59명이 있습니다.

● 정무 위원

교육프로그램을 재구성했거나 다시 편성한 게 있는가요?

● 진천교육청 교육장 연홍길

진천교육청 교육장 연홍길입니다.

저희 학교에서도 다문화가정을 위해서 교육청에서 지원하는 프로그램이 있고요, 또 우리 진천에 사회복지회관이 있습니다. 거기에서 토크 장학생, 우리 교육청에서 운영하고 있는 토크 장학생이 1주일에 화요일, 수요일, 금요일 이렇게 세 번 복지회관에 모여가지고 학부모들과 같이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 정무 위원

그런데 거기 보니까 좀 특이한 게 다문화가정 학부모를 위한 검정고시반을 운영한다고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학부모들이 검정고시 보는 겁니까?

● 진천교육청 교육장 연홍길

예, 학부모님들 문예교육을 통해서 외국어 주로 많이 하던 분들이라 한국 공부도 하고 해서 그 분들도 다시 이렇게 학교에서도 하지만 지금 군청과 연계해서 거기서 지도를 해서 시험을 봐서 교육을 시키는 그런 방법으로 하고 있습니다.

● 정무 위원

그럼 아까 몇 세대라고 했죠?

● 진천교육청 교육장 연홍길

46세대에 59명입니다.

● 정무 위원

그러면은 학부모님들을 상대로 하면 몇 명 정도 검정고시를 준비하고 있어요?

● 진천교육청 교육장 연홍길

오늘 처음 개강을 한다고 그랬습니다.

제가 여기 나오는 바람에 참석을 못했는데요 아침에 보고 받기로는 한 40명 정도가 이렇게 나와서 하고 있다고 그러니다.

● 정무 위원

굉장히 보람이 있을 것 같습니다.

좋은 성과 있기를 바라면서, 한 가지만 더 질문하겠습니다.

44쪽에 교육가족과 함께 하는 클린웨이브 운동을 전개하고 계신데 이 운동은 국가청렴위원회에서 전 국민 참여를 통한

적극적인 투명성 촉진 정책으로 대한민국을 새롭게 하는 청렴물결운동으로 반부패 청렴 정책의 대표 브랜드로 알고 있습니다.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진천교육청 관내에 이 클린웨이브운동을 전개할만큼 정말 부정부패와 자체 청렴도가 심각한가.

본 위원은 아직까지는 우리 교육공무원은 다른 공무원보다도 깨끗하다, 청렴도가 높다고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의아심이 생겨서 묻는 겁니다.

교직원 대부분이 학생을 지도하고 관리직에는 몇 분 안되는데 이렇게까지 운동을 할 필요가 있는가.

교육장님은 여기에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 진천교육청 교육장 연흥길

진천 교육장 연흥길입니다.

클린웨이브운동이라는 것은 지금 정무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청렴물결운동 영어 원어 그대로 물결운동으로써 지금 저희 교육청 관내에 교직원이 한 456명이 있습니다.

그 중에 교육장이 서한문을 통해서 청렴활동을 하자 해서 서한문도 보냈고요, 또 자발적으로 학교에서 메시지 같은 것을 전달해 주고 또는 확대해서 무슨 운동을 하는 학교도 있고 해서 지금 저희들이

알고 있기로는 200명 정도가 참여해서 봉사활동을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 정무 위원

일반직공무원 요전에 해남하고 서울에서 복지담당자들이 10억씩 빼먹었다고 그러는데 우리 교직원들이야 큰 돈을 안 만지니까 그렇게 할 필요가 있을 테지만 너무 이렇게 엄격한 운동을 해가지고 오히려 교직원들이 위축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 진천교육청 교육장 연흥길

저희들은 국가 차원에서 우리가 호응하는 차원에서 예방 차원으로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 정무 위원

교육장님이 그런 의지를 갖고 하신다면 좋은 겁니다.

다음은 충주교육청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국토의 중앙에 위치한 중원문화권의 중심지이며 역사와 충절의 고장인 충주시는 인구가 약 21만명, 우리 충북 제2도시로 중부내륙 고속 국도 개통 및 중부 내륙권 개발계획으로, 또 4대강 살리기 운동에 힘입어 한반도의 중심도시로 급부상하는 발전 잠재력을 지닌 도시라고 생각합니다.

주요업무 15쪽에 보면 기초학력 제고를 위하여 학력제고 책임지도제를 강화하고

[지역교육청주요업무계획보고]

나눔교육 실천으로 학습부진학생 감소를
을 증대하고 학습부진학생 지도를 위한
맞춤식 도움자료를 활용하는 등 학력제고
를 추진하는 결로 알고 있습니다.

지난 2월 16일 발표한 학업성취도 평가
결과에 대한 결과는 초등학교 6학년 기초
학력미달자가 전국 대비 2.54%보다도 높
이 나왔는데 왜 그렇게 나왔다고 생각을
하시는지, 그 대책은 뭐라고 생각하시는
지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충주교육청 교육장 조성래

충주 교육장 조성래입니다.

그 원인이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은 우선
담임교사들의 책임감이라든가 또는 교
장 교감선생님의 장학지도 같은 관계, 또
저희 교육청도 일말의 책임이 없다고 하
지 않겠습니다.

저희 교육청에서도 단위 학교의 선생님
들이라든가 교장, 교감에 대한 장학지도
를 철저히 하지 않은 그런 책임을 교육장
으로서도 송구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원인 분석으로 여러 가지 저희
들도 해봤는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우선
담임선생님들이 자기의 역할을 잘할 수
있도록 우리 교육청에서도 체계적인 관리
를 잘해 줘서, 그래서 저희 교육청에서
지금 단위 학교별 학년별로다가 기초 기
본 부진학생을 판단하는, 저번에 국가적
인 평가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나왔고 결

과가 나왔는데 앞으로 어떻게 할 거냐,
대책을.

그래서 저희 대책으로다가는 우선 담임
선생님이 책임지는 수업, 기초학력책임지
도제 운영, 또 담임교사 지도실명제, 그
다음에 올 10월달에 또 학력평가를 볼텐
데 앞으로는 그 학력평가의 결과에 따라
서 선생님들한테 저희 교육청이 할 수 있
는 한 인센티브를 주려고 합니다.

그래서 그 담임선생님들께서도, 아, 공
부를 잘 가르치면 이런 혜택도 있고 그래
서 그 선생님들의 사기진작도 올려주면서
그렇게 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대책으로다가 교과교육
연구회를 조직해서 교과별로다가, 예를
들면 수학이면 수학, 국어면 국어 선생님
들끼리 모여서 자기들끼리 상의를 해서
어떻게 지도하는 것이 학업력을 올릴 수
있겠는가, 그런 연구회 활동을 적극 지원
을 해주려고 합니다.

또 동학년 수업연구회라고 해서 신규
교사나 초임 교사들이 오시면 그 지구별
로다 수업발표회가 있을 때는 그 학교를
될 수 있으면 가서 수업참관을 시켜서 수
업기술을 높이는 그러한 활동을 하겠고,
그 다음에 저희 충주교육청의 또 하나 특
색은 수업고리잇기라고 해서 그 장학지원
단, 그러니까 수업스타 되는 분들, 그 분
들과 연결고리를 해서 수업기술을 높여서

그러한 학력을 많이 높이도록 노력을 하
겠습니다.

● 정무 위원

교육장님의 열정, 교육장님의 의지가
많이 작용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랍니
다.

한 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지난해의 소년체전에는 생각보다 전 전
년보다 부진한 걸로 알고 있는데 금년에
는 전국소년체전 전망이 어떻습니까.

● 충주교육청 교육장 조성래

금년도에 제가 3차까지 도교육청에 보
고 말씀을 올렸는데 지금 현재 조정에서
금메달 둘, 그 다음에 여자 역도에서 하
나, 그 다음에 사이클 단체 추가해서 하
나, 현재로다가 금메달 넷, 은메달 셋,
동메달 넷, 이렇게 지금 예상을 하고 있
는데, 문제는 기록경기 같은 것은 어느
정도 예상이 가능하고 나중에 봐도 그렇
게 크게 틀림이 없는데 예를 들어서 권투
나 태권도 이런 거는 잘못하면 한 번 맞
으면 점수가 확 깎이는 바람에 그것은 솔
직히 장담하기가 좀 어렵습니다.

그래서 기록경기는 지금 보고를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 정무 위원

여기 계신 교육장님들께서 소년체전에
깊은 관심을 갖고 앞으로 두 달 남짓 남

았는데 유망종목이 무엇인지 잘 챙기셨다
가 더 많은 격려와 지도를 해서 좋은 성
과를 올릴 수 있도록 이렇게 부탁을 드리
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의장대리 김부웅

정무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예, 김병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
다.

● 김병우 위원

교육위원 김병우입니다.

● 의장대리 김부웅

답변하실 때는 자기 직 성명을 얘기해
주셔야 속기록에 들어갑니다.

● 김병우 위원

지난해부터 계속 수고를 해 주시는 네
분 교육장님과 이제 또 새로 되신 두 분
계신데 교육장님들의 노고에 감사를 드리
고요, 또 계속해서 충북교육 발전을 위해
서 애를 써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
다.

제가 궁금한 것들을 좀 여쭙고자 하는
데 우선은 각 시·군교육청별로 사안별로
살펴보고 뒷부분에서 종합적으로 여쭙겠
습니다.

먼저 충주교육청 교육장님께 여쭙겠습
니다.

23쪽에 2-1-1 보니까 교육정책청문관계

[지역교육청주요업무계획보고]

운영을 홍보한다, 이것도 역시 뭐 자체 사업은 아닐 줄로 생각됩니다만은 여기에 특별하게 용어를 보통 우리 흔히 외래어로 모니터, 모니터링 이렇게 많이 쓰는데 여기는 청문관제 이렇게 쓰셔서 이해가 금방 되고 해서 모범적으로 보여서 좀 확인을 하고 싶습니다.

물론 한자가 좋고 영어가 나쁘고 이런 차원이 아니라 그저 어려운 외래어를 쓰는 것이 고급스러워 보이는 듯한 그런 편견이 일췌인데 청문관제 이런 것도 참 권할만하다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아울러서 16쪽에도 보면은 보통 우리 흔히들 생경한 바우처, 바우처 이렇게 쓰는 말들을 자율수강권 좀 편한 말로 쓰는 이런 것도 충주교육청의 발상인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눈에 띄어서 좀 권장을 하고 싶습니다.

그 다음에 25쪽에 수업스타 국제교육 비교연수 실시 20명 돼 있는데 충주교육청만 20명입니까?

● 충주교육청 교육장 조성례

충주 교육장 조성례입니다.

수업스타의 국제교육 비교연수 실시는 충주교육청 저희들 독단적인 사업이 아니고 도교육청과 연계해서 도교육청에서 수업스타 발굴해서 그 일환입니다.

● 김병우 위원

그런데 충주에만 20명이나 해외 비교연수를 가게 되는 건가요?

● 충주교육청 교육장 조성례

제 욕심인지 모르겠습니다만 하여튼 수업스타를 많이 발굴해서.....

● 김병우 위원

그러면 우리 도내 전체 200여 명이 수업을타로 해외연수를 가게 되겠네요.

글쎄 규모가 언뜻 보기에, 저도 확인은 못했습니다만은 규모가 정확한지 궁금해서, 그거 확인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충주교육청 교육장 조성례

충주 교육장 조성례입니다.

저희 교육청에서는 초등 2명, 중등 2명으로 그렇게 돼 있습니다.

● 김병우 위원

그래서 그 인원이 도 사업을 그대로 복사한 거 아닌가 싶어서 점검을 해 보시라는 겁니다.

● 충주교육청 교육장 조성례

예

● 김병우 위원

관련해서 그 밑에 보면 25쪽 밑부분에 초·중등 영어교사 심화연수에도 6개월 59명, 32명, 30명 쪽 있는데 이것도 영어권 현지 어학연수 90명, 이것도 충주교육청 인원으로는, 대번 봐도 한 눈에 너무 과하다 싶은데 그렇지 않을까요?

● 충주교육청 교육장 조성례

충주교육청 교육장 조성래입니다.

지금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도 전체 인원입니다.

● 김병우 위원

어떻게 이런 인원이 이런 교육청 보고 문건에 이대로 복사가 될 수 있습니까.

● 충주교육청 교육장 조성래

충주 교육장 조성래입니다.

바로 제가 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 김병우 위원

그 다음 29쪽에 그 밑에 부분에 2-2-3에 건강한 환경 에코 스쿨 운영이 있는데 그 밑에 보니까 학교 자투리 땅을 활용한 에코체험학습장 이래 나왔어요. 이것을 그대로 우리가 보기에는 이것도 이제 역시 위에서 내려온 사업 같은데 에코체험학습장이라고 그러면 에코 하면 우리가 언뜻 상식적으로 메아리 아닙니까. 메아리를 체험하는 학습을 하나보다 싶기도 한데 학교 자투리 땅에서 무슨 메아리를 체험할까 이런 생각이 언뜻 드는 용어예요. 그런데 이제 다른 지역교육청들 보니까 이것도 특수용어라, 정책용어라 에코가 무슨 생태를 나타내는 용어의 접두어이고 이렇게 복잡한데 왜 그렇게 복잡한 얘기를 헛갈리게 이해하기도 어렵게 이렇게 쓰는지 그런 부분을 좀 아쉽게 생각이 들어서 좀 검토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31쪽에도 보면 사이버 건전 문화 이용 교육정책 부문에 선फल달기 이런 게 있어요. 이것도 다른 지역교육청들 이렇게 보니까 역시 일부는 창의적으로 먼저 시도하려고 했다 하는 교육청도 있고 한데 다른 교육청들에서 두루두루 같이 하는 캠페인성 사업인 것 같아요. 그런데 교육장님, 선फल이 뭔지 아십니까?

● 충주교육청 교육장 조성래

충주 교육장 조성래입니다.

저는 그 생각 이거 우리 정할 때 악플이라고 그러죠, 자꾸 악플이라고 그래서 거기에 반대되는 의미로다가 우리 좀 칭찬하는 뜻에서, 이렇게 자꾸 사람이 어떤.....

● 김병우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 취지도 좋고 의미도 대충 짐작은 가요, 그죠? 그런데 문제는 그 용어가 정말 이렇게 공식 문건에 교육기관의 공식 문건에 정확하게 쓰여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정선되어서 쓰여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 선फल이니 악플이니 하는 것도 속어죠. 네티즌들이 누리꾼들이 뭐 악한 댓글, 악성 댓글, 또 나쁜 댓글 이런 것을 갖다가 악플 이렇게 부르기도 하고, 그 반대 개념으로 선फल 이렇게 누가 만든건 있는지 이렇게 쓰는데, 그 플플 하는 것

[지역교육청주요업무계획보고]

은 제가 알기로는, 저도 뭐 영어 단어 좀 알파합니다만은 리플라이, 대답하다는 뜻의 리플라이를 줄여서 플플 그러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것을 갖다가 플플, 리플이니 이렇게 하지 말고 리플라이라고 하든지 아니면은 우리말로 댓글이라고 하든지 댓글이라고 하든지 이런 순화된 우리말이 있습니다.

그래서 악성 댓글, 또는 악성 댓글, 또 그 반대 개념이라면 좋은 댓글, 좋은 댓글 이렇게 쓰는 것이 옳지 않음 악플 이렇게 속어로 쓰는 것도 좋지 않고, 하물며 여기는 선플이라고 그래왔어요. 이렇게 선플이라고 근거도 없는 말을 쓰면서 또 일부 시·군에서는 이것을 갖다가 또 어거지로 선이라는 것을 착할 선이 아니라 영어 썬이라고 해서 썬사인이라고 갖다 붙였다가 플이라는 것도 꼭찬다는 의미로 플 이런 걸 갖다 쓰는데, 그 유래는요 좋은 취지를 가지고 민간운동을 벌이는 선플달기운동 본부에서 자기들 사이트 이름을 만들려고, 사이트 이름을 하려다가 어거지로 갖다 붙인 sun-full 이렇게 해서 생긴 말이에요.

그런데 이제 이런 것들이 취지가 아무리 좋아도, 좋은 취지로 하려다가 더 나쁜 언어오염이라든지 이런 것을 유발한다면 교육적으로는 좀더 세심히 검토를 하거나 해서 해야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들어

서 중언부언 말씀을 드렸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 충주교육청 교육장 조성래

충주 교육장 조성래입니다.

용어 선정에 신중을 기하겠습니다.

● 김병우 위원

예, 공감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그 다음에 41쪽에 스승존경풍토 조성하는데 충주교육청에서 정말 그전부터 창의적으로 해오던 초임교사 교직소명식 이것을 전통으로 계속 실시가 되고 있는 것 같은데 제가 알기로는 전임 교육장님이신 손병기 전임 교육장님이 착안하시고 이렇게 모범을 보이셨던 사업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 이후에도 그것이 잘 안착되고 있는지요.

● 충주교육청 교육장 조성래

충주교육청 조성래입니다.

계속 지금 하고 있고 올해도 계획을 해 놓고 있습니다.

● 김병우 위원

예, 알겠습니다.

47쪽에 4-3-2 모두가 함께 하는 홍보활동의 활성화, 이것도 보니까 전부 다 그 실적 목표치들이 지역교육청으로서는 너무 과다한 것 같습니다. 그렇죠?

● 충주교육청 교육장 조성래

충주 교육장 조성래입니다.

네, 공감합니다.

● 김병우 위원

그리고 실적 목표치뿐 아니라 여기 보면 운영 주체도 사업의 시행 주체도 집행 주체도 분청입니다. 도교육청입니다.

그래서 지역에서는 그것을 적용해서 활용을 한다거나 또는 대회 같은 것이 있다면 참여를 한다거나 참석을 한다거나 이렇게 바뀌어야 될 것 같아요. 그죠?

● 충주교육청 교육장 조성래

충주 교육장 조성래입니다.

네, 그렇게 생각합니다.

● 김병우 위원

그 앞에 있는 46쪽에 네이스 지원시스템 운영 이 부분도 이것도 도 사업이잖아요. 그죠?

그런 부분 꼭 짚어보시길 부탁드립니다.

60쪽에 특화사업 중에 좋은 교사 메니페스토(manifesto) 제정 및 실천, 이것도 좀 정말로 특색사업인 것 같은데 혹시 내용을 소개해 주실 수 있는지요.

● 충주교육청 교육장 조성래

충주 교육장 조성래입니다.

메니페스토는 위원님도 잘 아시겠지만은 자신의 과거 경력을 솔직히 고백해서 자기 실천계획을 자기 스스로다가 밝히는 행사로 적극 권장하고 있는데 이 메니페스토 사업은 매년 그 새로이 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그래서 자기가 신규교사나 초임교사들이 내가 교사로서 어떻게 하겠다, 그런 일환입니다.

● 김병우 위원

자신을 돌아보고 다시 다짐하고 이러는 사업인가요?

● 충주교육청 교육장 조성래

충주교육청 조성래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 김병우 위원

예,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그 다음 제천교육청 여쭙겠습니다.

제천교육청은 대체로 보니까 아주 첫 눈에 보이는 것이 담당의 실명제를 하시는 것 같은데요 이것은 어떤 의도로 하시는 것인가요?

● 제천교육청 교육장 신강수

자기 업무에 대한 소신, 철학, 업무의 지속성 이런 것들을 위해서 하고 있습니다.

● 김병우 위원

책임의식을?

● 제천교육청 교육장 신강수

예

● 김병우 위원

다른 시·군교육청에서도 참고할만한 것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 31쪽에 역시 여기도 에코 스쿨 그

[지역교육청주요업무계획보고]

부분의 체험학습장, 여기는 자투리 땅을 활용한 체험학습장 그래서 비교적 의미가 명료하게 다가오는 표현을 하셨네요.

에코 스쿨 그러면 그것은 무슨 정책용어인지 모르겠지만 메아리 학교로 이름을 붙일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생태체험학습친환경 그런 내용을 담고 있네요. 그죠?

그러면 에코 스쿨이니 무슨 에코체험이니 이런 표현보다는 생태체험학습장이나 또는 친환경 체험학습장이나 이렇게 표현하는 것이 훨씬 명료하지 않겠나 하는 것을 같이 짚어보고 싶습니다.

거기도 역시 선플 달기 그렇게 표현하셨는데 좀 짚어보시고요, 제천교육청 고맙습니다.

진천교육청 여쭙겠습니다.

진천교육청에 17쪽에 독서교육활성화 지원, 여기에 아주 강조 무늬도 넣으시고 아주 특색사업으로 하시는 것 같은데 여기에 북모닝 1570 이런 게 있네요. 이것은 아마 15분씩 1년에 70권 읽자, 이런 표현인 것 같아요.

그런데 북모닝은 어떤 뿌리가 있는 용어입니까?

● 진천교육청 교육장 연홍길

이것은 도교육청 자료에서 나온 것을 저희들이 그것을.....

● 김병우 위원

도교육청이 북모닝이라고 이름을 붙인

주체인가요?

● 진천교육청 교육장 연홍길

예

● 김병우 위원

제가 알기로는 아무리 취지가 좋아도 그것을 조어화하는 과정에서 조잡해지면 그 마인드나 정책 전체가 조잡해버릴 수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이것을 아침독서운동으로 하면 뭐가 다른가. 품위가 떨어지는가, 저는 품위가 올라간다고 생각합니다.

이 아침독서운동은 사실은 뿌리는 일본이라고 생각하는데 일본에서도 모닝리딩 운동이라고 이렇게 불렀던 것 같아요. 일본이 우리보다 영어를 잘합니까? 잘하지 못하는데 그것을 본떠 오면서 더 조잡스러운 조어를 해버리면 그것을 흉내내려다 어설피 흉내낸 것처럼 비춰진다는 것이죠.

그런 부분을 좀 같이 생각을 해보고 싶고요, 이거 참 다 지적해야 되나요.

23쪽에도 보면 특색사업으로 무늬를 넣어서 한 것 중에 Immersion English Camp, 영어머리캠프 뭐 이런 뜻인가 보죠?

● 진천교육청 교육장 연홍길

예, 맞습니다.

● 김병우 위원

그것도 또 그렇다는 생각이 들고요, 코

티칭(Co-teaching) 이것도, 그 옆에 또 설명을 해 놨는데 원어민 교사와 한국인 교사가 함께 수업을 하는 것을 코티칭이라고 그러냐, 그러면 한국인 교사끼리 하는 것은 코티칭이라고 부를 수 없나요?

● 진천교육청 교육장 연홍길

진천교육청 연홍길입니다.

예, 맞습니다.

그것도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 김병우 위원

그러니까 그러면 차라리 협력수업 이렇게 하면 두 사람이 손 맞춰서 서로 같이 보조를 맞춰서 지도한다, 보완해서 지도한다 이렇게 하면 이해가 되면 되지 않겠습니까. 그죠?

● 진천교육청 교육장 연홍길

예, 맞습니다.

● 김병우 위원

그리고 그것도 사전에는 챗트 이러면 성가나 합창 이렇게 나옵니다.

그런데 영어교육에서 나오는 챗트는 성가나 합창이 아닙니다.

뭐로 생각하십니까?

● 진천교육청 교육장 연홍길

계속 반복해서 하는 것을 챗트라고 합니다.

● 김병우 위원

그게 영어교육에서 어린아이들한테 교육효과를 높이기 위해서 챗트를 하는 것

은 아마 지금 2,3십년 정도 되는 교육방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그게 이제 챗트는 멜로디를 뺀 박자만 남긴 말하자면 그런 리듬이잖아요. 그래서 쉽게 말하자면 아이들을 위한 랩송 비슷한 방식이라고 생각합니다. 그것을 이렇게 성가나 합창 이렇게 해놓으면 이해에 도움이 되는 게 아니라 도로 헛갈리게 만드는 설명입니다.

● 진천교육청 교육장 연홍길

예, 시정하겠습니다.

● 김병우 위원

그러면 마지막으로 특화사업 중에 60쪽에 1교 1사 결연사업, 이것은 현장체험학습이나 진로지도에 지역의 유관업체 이런 것하고 협조를 하는 사업인 것 같은데 혹시 전체 결연 학교수가 어느 정도 되는지.

● 진천교육청 교육장 연홍길

진천 교육장 연홍길입니다.

초등 15개 학교, 중등 6학급 있는데요, 21개 학교 중에 지금 20학교가 결연돼 있습니다.

● 김병우 위원

예, 기대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그 다음에 괴산중평 여쭙겠습니다.

31쪽에 교사문화예술동아리축제 우수 동아리 선정 지원 두 팀, 청안초, 중평여

[지역교육청주요업무계획보고]

중 어떤 팀입니까?

● 괴산증평교육청 교육장 이상용

괴산증평교육청 이상용입니다.

먼저 증평여중은 합창단이 있는데 그 합창단이 명칭은 한국대표로써 일본에까지 가서 합창을 하고 왔습니다.

합창동아리가 대외적으로 많은 활동을 해서 거기 활동이고, 그 다음에 청안초는 사물놀이입니다. 사물놀이를 하고 있습니다.

● 김병우 위원

이것을 도 축제에 참여시킨다는 거죠?

● 괴산증평교육청 교육장 이상용

예, 저희들이 한마음효과학축제를 해서 군에서 선발을 하면 도에도 출전을 시킬 예정에 있습니다.

● 김병우 위원

교사문화예술동아리축제에, 나중에 신청해서 선정되면 거기도 참가시키겠다?

● 괴산증평교육청 교육장 이상용

예

● 김병우 위원

육성해서.

● 괴산증평교육청 교육장 이상용

예

● 김병우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거기는 특히 그 30쪽에 보니까 잠자는 악기 활용을 통한 학습분위기 조

성, 이런 재미있는 게 있는 것 같아요.

학교들마다 이제 버려져 있는 목히는 악기들을 아이들한테 활용하게, 수업분위기라든지 학급활동에 이런 데 쓴다는 말 씀이죠?

● 괴산증평교육청 교육장 이상용

예, 그렇습니다.

● 김병우 위원

기대가 됩니다.

특화사업 중의 하나 작가와 떠나는 독서열차여행, 굉장히 참신한 아이템인 것 같은데요, 100명의 학생들을 KTX를 태워서 부산까지 갖다오면서 책을 읽히겠다.

● 괴산증평교육청 교육장 이상용

예, 그렇습니다.

괴산증평 교육장 이상용입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자체적으로 예산을 세운 게 아니라 한국간행물윤리위원회가 있습니다.

거기서 경비를 전부 대고 저희들이 학생을 동원을 해서 열차를 타고 학생들이 즐겁게 이렇게 독서 쇼라고 그럴까, 북쇼 이런 일환으로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 김병우 위원

여행도 시키고 독서도 시키고?

● 괴산증평교육청 교육장 이상용

예, 즐겁게 책을 읽히는 그런 겁니다.

● 김병우 위원

그런데 아이들은 독서체험보다는 KTX 체험이 더 신기할 텐데, 그죠?

● 괴산증평교육청 교육장 이상용

예, 그럴 겁니다.

● 김병우 위원

그런데 그 아이들을 돈을 많이 들여서, 자체 예산은 아니겠지만 부산까지 갔다오는데 아이들이 밖에 흘러서 책 읽겠습니까? 그런 생각이 얼핏 드는데요.

● 괴산증평교육청 교육장 이상용

그런데 거기는 유명 작가가 같이 동행을 해서 책 읽은 독서방법도 지도를 하고 또 학생들이 시간이 될지 모르겠지만 그런 시간이 있더라구요. 간단하게 독서소감문을 받아가지고 그것도 작가가 평을 해준다고 하니까 학생들이 책을 읽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 김병우 위원

아이템 자체는 참신한데 저는 어떤 생각이 드냐면 책 읽는 것도 사실은 몰입이 필요한 것이고, 바깥 구경하는 것도 그 구경 자체가 체험이 될 수 있는 건데 그 두 가지를 다하려다가 한 가지도 옹기 못 하는 아이템이 될까 싶어서 그런 말씀을 한번 드려봤고요, 고맙습니다.

음성교육청 여쭙겠습니다.

음성교육청은 넘어가겠습니다.

단양교육청은 특색사업을 눈에 확 띄게 작년부터 해 주셔서 그런 것도 다른 지역

에서는 참고할만하다고 생각이 들고요, 단양도 질문을 약하고, 또 욕심을 내가지고 일단은 조금 공통되는 부분 좀 그런 부분을 종합적으로 점검을 하고 또 제안드리고 싶은 것도 하나 있고 해서 양해를 구하겠습니다, 위원장님.

● 의장대리 김부웅

예

● 김병우 위원

다른 위원님들도 지적을 하셨고 제가 사안별 점검에서 말씀을 드렸는데 전체적으로 난해한 정책용어 남발, 이것은 볼 때마다 답답하기도 하고 안타깝기도 한 현상입니다.

이것은 물론 용어를 만드는 단위의 문제이고 정책을 생산하는 단위의 마인드가 원인인 것 같은데 시·군교육청들은 그것을 사업의 이름을 바꿀 수도 없고 하니까 어쩔 수 없이 따라하겠지만 그 나쁜 어떤 그런 방식이나 예를 운영중에 배우게 되고 그러다보니까 자체적으로 말을 만들고 이름을 붙일 때에도 또 그런 방식으로. 또 아까 예들에서 나왔지만 풀이나 해석도 황당하게 엉뚱하게 이렇게 한 예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저번부터 그런 예를 들었습니다.

시인들 중에도 상상력이나 표현력이 딸리는 시인들이 난해 시를 씁니다. 그리고

[지역교육청주요업무계획보고]

아이디어가 부족한 연구자가 신조어를 만들어 남발하는데 그것으로 때우려고 하고요, 행정실무자들 중에서도 마인드가 부족하면 해괴한 용어 만들기에 앞장섭니다.

그것이 품격을 높이는 것이 아니고 도로 더 의미를 애매하게 만들고 조잡하게 만듭니다.

그런 부분을 꼭 좀 유념을 해줬으면 하고 생각을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다 같이 좀 이래서는 안되겠다 생각을 하셨겠지만 도교육청의 사업을 그대로 복사해서 생각없이 이렇게 실적까지 복사해 올리는 것은 이것은 업무역량의 문제가 아니라 복무자세의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부분을 꼭 좀 이후로는 교육장님들께서 더욱 세심하게 살펴주시기를 바라고요, 마지막으로 제가 토론을 겸해서 제안하고 싶은 것이 있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학력과 관련되는 부분인데요, 물론 다른 모든 교육장님들하고 같이 토론을 하면서 생각을 해보고 싶기는 한데 시간이 너무 촉급하니까 대표 교육장님이신 교육장님하고 말씀 나눠보면서 생각하려고 합니다.

지금 최근에 들어서 특히 중앙 정부의 교육시책과 관련해서 특히 교육의 가장 심각한 문제가 학력이라고 이렇게들 생각

을 많이 합니다. 우리 지역도 그럴 거라고 생각하는데요 다들 학력이 교육의 전부는 아니다라고 하면서도 어쩔 수 없이 거기에 매여가는 기풍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우리 교육이 위기라고 하지 않는 사람 없죠, 다. 위기인데 뭐가 위기냐. 공교육의 붕괴, 공교육의 위기가 교육의 위기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공교육의 위기라는 얘기는 사교육과 비교해서 뭔가 떨어지고 뒤지는 것이 있다고 생각해서 그렇게 부르겠죠. 뭐가 뒤지느냐. 뭐 여러 가지로 뒤지는 것이 많겠지만 가장 비교 기준으로 얘기들 하는 것이 지금 당장 공교육의 학력이 떨어지기 때문에 그것을 사교육으로 보완하고자 학부모들도 생각하고 또 사교육 기관에서도 학력은 책임질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그래서 사교육 기관의 학력시스템이나 열성이나 이런 것을 공교육에서도 배워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다보니까 교육부에서부터 일선학교까지 관리자분들이 전부 정말 학력 지상과제로, 우리의 지상목표로 두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공교육과 사교육은 분명히 지향의 목표가 다를 수밖에 없다고 생각을 하고 또 학력의 개념조차도 사실은 조금 다르다고 생각을 합니다.

사교육 기관은 특히 입시문제 경향 자

체가 가장 중요한 더 이상의 고민이 필요 없는 목표이기 때문에 그 경향에 따라서 문제 내고 그 점수 요령을 가르치면 그것이 전부입니다.

그러나 공교육 기관은 결국 똑같은 수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똑같아서는 안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 학력의 개념은 시대에 따라서 당연히 달라지고 있습니다.

옛날 구시대적인 그런 학력관을 가지고 이 지식정보화 사회를 준비한다라고 하는 것은 누구나 이거는 말도 안되는 거라고 다들 얘기를 합니다.

그러나 지금 학력과 관련되어서 나오는 주장이나 시책이나 이런 것들이 정말 새 시대에 필요한 새로운 학력관을 담아내는 그런 것이냐. 그게 아니면 그것이야말로 우리 교육의 위기 아닌가, 이런 생각이 저는 듭니다.

그래서 우선 학력의 개념정의부터 내려야 된다고 생각하고 그 학력관에 대한 인식의 통일이나 이런 것이 없이 학력 학력 계속 주장하고 학력 타령을 늘어놓을수록 혼란은 가중되고 효과는 엉뚱한 결과가 나올 수도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 교육청에서도 기획 파트에서 충북교육발전세미나를 해서 이 학력관을 일단은 빨리 재정립 해보야 되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이 교육발전세미나를 하셨

던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저도 패널로 참석을 했는데 그때 우리 집행청에서 조화로운 학력관, 조화로운 학력관이라는 개념을 선정을 했었습니다.

그때 이제 교육학자이신 정영수 교수님을 모셔다가 과연 이 시대에 진정으로 필요한 학력이 어떤 것입니까 하고 여쭙봤더니 이렇게 규정해 주시기를, 종래 지식 중심 그런 사회시스템에서는 아이큐 중심으로 지적능력을 학업성취도 또는 성적 이렇게 생각해서 그것을 학력으로 삼아왔다는 거죠. 그러나 이제는 다중 지능을 바탕으로 한 지적이고 정서적이고 신체적이고 정신적이고 사회적인 모든 가치를 포괄해야 된다, 이렇게 규정을 해 주셨던 것으로 기억합니다.

이거는 또 말은 그렇게 복잡해도 사실은 우리가 전통적으로 전인교육이라고 얘기해 왔던 그것을 벗어나지는 않는다. 전인교육적인, 예를 들어서 지덕체, 지·정·의·체 이런 것을 포괄하는 개념, 이것이 엄청나게 새로운 것도 아닌 미래의 적합한 학력이다, 이렇게 규정을 해 주셨던 것으로 기억을 합니다.

그렇다면 과연 우리 교육청들에서 학력을 지상 과제라고 두고, 이제는 보니까 오후 팀들은 모든 지역교육청들에서 당장 나가서 학력신장, 학력제고를 위해서 하시겠다고 하셨습니다.

[지역교육청주요업무계획보고]

이것은 도교육청 시책에 따르는 것일텐데 그러면 과연 나가서 어떻게 할 것인가. 특별히 점검하시려고 하는 것이 무엇인지 교육장님들 차례대로 한번 구체적으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충주 교육장님, 특별점검의 내용이 어떤 것입니까?

● 충주교육청 교육장 조성래

충주 교육장 조성래입니다.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물론 학력에 대해서 생각과 차이는 있을 수가 있겠지만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전인적인 교육, 저도 여러 계층, 또 여러.....

● 김병우 위원

아니 교육장님, 제가 지금 시간이 없어서, 나가서 뭘 하려고 그런다, 예를 들어서 시험을 보게 하려고 그러는가 시범수업을 해 보이려고 하는가, 아니면 장학지도를 어떻게 하려고 그러는가 그런 것만 말씀하시면 됩니다.

뭘 점검하시려고 하시는 건지.

● 충주교육청 교육장 조성래

지금까지 우리가 해왔던 것이 잘못된 부분이 없는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 다시 점검을 해서 만약에 잘못된 부분이 있다면 바로 그것을 고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 김병우 위원

수업을 보실 겁니까, 업무를 보실 겁니

까.

● 충주교육청 교육장 조성래

충주 교육장 조성래입니다.

물론 수업도 가서 장학지도를 철저히 해야 되겠죠, 그런 면도 있지만 꼭 장학사님들이 수업을 봐가지고 지도하는 것은 좋겠지만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교과연구회라든가 우리가 지금까지 해왔던 것이 과연 학력에 대해서 얼마만큼 기여를 했는가, 그런 데 대해서 점검을 다 해보겠습니다.

● 김병우 위원

혹시 다른 교육장님들 중에 아까 충주 교육장님은 나가서 수업장학 하지 않겠다, 그것은 아예 동영상으로 제출케 해서 시험을 보이겠다, 이런 의견을 말씀하셨어요.

혹시 그런 아이디어가 효과적이겠다 생각하시는 분 안 계십니까?

그러면은 이제 앞으로 특별히 점검하는 것은 어떤 것인지 나중에 제가 관심을 가지고 다시 그때 보기로 하고요, 제가 염려하는 것은 뭐냐하면 특별점검을 하면서 역시 다시 무슨 일제고사나 시험을 보이는 것이라든지 표집고사든 뭐든, 이런 결과를 평가하는 측정하는 방식으로 점검을 하게 되면 아이들은 교육하는 대로가 아니고 평가하는 대로 형성된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시험문제를 보고 시험 내는 경향에 따라서 그것만을 공부하게 되고 그쪽으로 공부한다는 거죠.

그렇게 되면 결국은 수업이나 교육도 다시 거꾸로 거기에 매이게 되고 이끌리게 된다, 그런 걱정이 들면서 시험을 목표로 삼는 그런 어떤 평가 중심의 교육이 바로 지금까지 얘기했던 그런 입시교육 아닙니까. 입시교육으로 돌아올 우려가 있다는 거죠. 입교육의 폐해는 너무나 잘 아실 겁니다.

그것은 생략하기로 하고요, 지금 우리나라가 많은 분들이 우리나라 교육위기가, 우리나라 교육문제가 학력저하에 있다 자꾸 이렇게 조바심을 내는데 저는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

우리나라 학력은 국제학력평가에서는 최상급입니다.

그런데 최상급인데, 기초지식 분야는 최상급인데 상대적으로 좀 취약하다고 하는 부분이 창의력, 그 다음에 비판력 이런 거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정말로 최하위로 저조하다고 하는 것은 자신감이나 학습흥미도나 자기주도 학습력이나 이런 겁니다.

내가 볼 때는 학력저하가 문제가 아니고 학습흥미 저하가 확실히 문제가 아니냐. 그게 바로 우리 교육의 위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지난번에 기회가

있을 때 그런 얘기도 했지만 1년에 출창 전국을 떠들썩하게 만드는 결과평가 측정 비교 이것만하지 말고 그 기본이 되는 학습 흥미를 높여줄 수 있는 어떤 아이디어나 지도방안이나 이런 것을 선생님들이 고민을 하게 만들고, 과연 그 성과가 있는지 그것을 고사가 아니라 검사를 해가지고 학습흥미도 검사 이런 평가도구들도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하는 게 낫잖아요. 특별점검할 때 그 학습흥미도가 얼마나 높아졌는가. 그 선생님을 얼마나 아이들이 더 좋아하게 되고 그 교과를 좋아하게 되고 공부를 즐기게 되고 그랬는가를 짚어보는 것이 좋지 않겠는가.

이것은 이미 고려적에 공자님이 말씀하셨어요.

아는 것보다 좋아하는 게 더 중요하고 좋아하는 것보다 즐기는 게 더 낫다고 그랬지 않습니까.

공부를 즐기도록 만드는 것이 공부를 좋아하도록 만드는 것이 어거지로 시키는 것보다 훨씬 학력을 신장시키는 비결이 될 수 있지 않겠는가. 그런 변연한 그런 것이 있는데 옛날 말씀이나 요새 주장이나 그저 아이들을 공부에 던더리나게 만들고 질리게 만들고 이려는 것이야말로 저는 가장 나쁜 교육이고 학력신장 제고에도 역행하는 방법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지역교육청주요업무계획보고]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들을 일단은 제 제안으로 제 주장으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만은 혹시 고민할 여지가 있으시다면 검토를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면서 제 장황했던 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 **충주교육청 교육장 조성래**

충주 교육장 조성래입니다.

위원님, 제가 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평가에 대해서 제 개인 생각은 평가는 저는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 그러나 하면, 평가를 해서 어린이들 줄을 세우는 목적이 아니라 내가 과연 아이들을 가르쳤을 때 과연 담임선생님이 애들이 어느 위치에 와있고 내가 수업을 제대로 했느냐, 그것을 봐서 내가 또 어느 부분을 잘못 가르쳤느냐, 피드백을 시켜서 수업에 필요한 자료로 쓸 때는 저는 평가는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 **김병우 위원**

아, 평가가 필요 없다고 하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평가는 다 필요합니다. 그러나 그것이 너무 남발되고 그것만으로 자꾸 이렇게 아이들을 채근하는 것이 학력을 높이는 길이다라고 집착하지 말자는 거죠.

● **의장대리 김부웅**

이야기를 정리하겠습니다.

김병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들 질문하실 분.

시작한 지가 1시간이 넘었는데 5분만 쉬겠습니다.

그래서 4시 50분에 시작하겠습니다.

(16시 45분 회의중지)

(16시 50분 회의계속)

● **의장대리 김부웅**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되었기 때문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성영용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성영용 위원**

교육위원 성영용입니다.

주요업무계획을 보니까 굉장히 노력하신 흔적과 여러 교육장님들이 애쓰신 모습이 다 보이는 것 같습니다.

목적하신 교육성과가 100% 이루어지도록 기원드리면서 하나 건의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인성이나 품성교육을 위해서 굉장히 내용은 많이 있지만은 실질적으로 우리가 거기에 가까이 갈 수 있는 방법이 어려워요. 제가 이래 생각하는 부분에서는 우리 청소년 단체를 이용하는 방법이 굉장히 좋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학생들 전체에 대해서 어느 단체든 청소년 단체에 다 들어가서 단체생

활을 통해서 인성이나 품성에 조금 더 도움이 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마련해 주시면 어떨까 하고 제안드리면서, 또한 독도교육이나 통일교육에 대해서 우리 역사적 배경이나 이런 부분을 좀더 시수를 넣을 수 있으면 더 넣을 수 있는 역량을 우리 교육장님들이 가지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좀 강조하셔서 내 땅이나 내 나라를 지킬 수 있는 그런 기본적인 마인드를 어릴 때부터 심어주는 것이 좋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또 하나 말씀드리면 시세적으로 요새 교육감님도 조금 불편하신 부분인데 감사원 특별교부금 감사원 감사결과에 따라서 요새 굉장히 일부 단체에서 교육감 사표 내라 뭐 어찌라, 교육계에서 얼마나 돈이나 해먹고 어떤 모교에만 특별히 지원을 줬다는 그런 생각을 하는데 1년에 교육감님이 집행할 수 있는 돈이 3,400억인가 그래요. 62억 그거 가지고 굉장히 떠드는데 이런 부분에 교육장님들이 많이 확실한 내용을 아시고 우리 주위에 있는 분들, 묻는 분들한테 확실한 답을 해줄 수 있는 그게 있으면 좋겠습니다.

저기 이상용 교육장님, 제가, 교육감님이 자기 모교에 그렇게 했다고 불평을 한다면 어떻게 해명을 하시겠어요. 해명 좀 해 보실래요?

● 괴산증평교육청 교육장 이상용

괴산증평 교육장 이상용입니다.

인문계고등학교는 지금 기숙형 공립학교가 지정돼서 기숙사를 늘려나가고 학생들에게 학업을 할 수 있도록 지금 학생들한테 계속 편의시설을 늘려나가고 있는데 제가 생각하기로는 청주고등학교는 우선순위에 의해서 먼저 한 것뿐이지 앞으로 인문계 고등학교는 그렇게 전부 늘려갈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그렇게 홍보를 하겠습니다.

● 성영용 위원

그거 말고도 특별교부금에 대한 예산 집행 내역이나 선정 과정까지를 좀더 아서가지고 말씀해 주시면 큰 무리가 없지 않느냐. 이것은 감사과나 이쪽에 협조를 하시면 내용을 깊이 알 수 있습니다.

확실하게 교육장님들이 교육감님의 우리 교육청에서의 집행과정을 확실하게 아시고 해명해 주셔야지 다른 분들이 할 사람이 없다고 생각이 듭니다.

● 의장대리 김부웅

그 문제는 지금 관리국장, 교육국장이 교육장님들 회의에 아마 자료가 있을 것 같아요.

● 성영용 위원

그래요?

● 의장대리 김부웅

예

[지역교육청주요업무계획보고]

● 성영용 위원

그렇게 하고 오늘 회의 서류에 특화사업이나 역점사업으로 말씀을 많이 해주셨는데 특화사업이나 역점사업 관계는 교육장님들의 의지에 의해서 하는 거 아닙니까. 그죠?

그런데 제가 판단하기로는 미흡한 부분이 있어서 이런 것은 교육장님의 확실한 의지를 표현해 주셨으면 하는 그런 생각입니다.

실제 여기의 서류에는 그렇게 했더라도 오늘 같이 보고서 보고회를 같이 하면서 질의 및 문답을 하면서 좋은 충북교육의 더 나은 방향을 설정하는 과정에서 교육장님들이 전임 교육장님이나 내가 하든지 이 부분에서 종료한 사업이면 종료한 사업이 얼마만한 성과를 거두어서 이것을 종료하게 됐고, 내 의지가 어때서 신규사업으로 했다. 이런 그게 있어야지 여기에 그냥 어떻다 어떻다 이렇게 올해 계획만 해 주시니까 저희가 판단하기에 교육장님들의 의지에 의심이 좀 갑니다.

계속사업인 경우는 전년도에 성과를 중간평가를 해서 어떻게까지 했는데 미흡한 점이 어떤 부분이 있기 때문에 계속한다. 이런 부분도 있어야 되지 않을까요.

그 부분은 안타까운 점이면서 역점사업이나 이 부분에 제가 질의드릴 사항을 이 걸로 대신하겠습니다.

중간평가 내지는 지금까지 했던 종료된 사업의 결과, 그것이 나타나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각 교육청마다 몇 가지씩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충주교육청 질의드리겠습니다.

김병우 위원님께서 아까 질의를 해주셨는데 메니페스토(manifesto)는 제가 알기로는 선거 후보들한테 대개 하는 얘기거든요. 실제 말씀은 맞습니다. 선거 후보들이 내놓은 공약사항에 대해서 실천가능성을 따져보고 당선 후에 공약을 지켜나간다 하는 참공약시민운동입니다. 원어거. 그래서 이것을 우리 교육계에 접목을 시켜서 잘 하시겠다는 그 말씀에 동감을 하면서 어떤 좋은 결과를 맺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알기로는 충주에서 장애학생들이 60명이 제천 청암학교에 통학 내지는 기숙, 1주일 단위로 통학하는 학생들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매일 통학하는 학생이 50명, 그렇게 하고 거기에 기숙하고 있는 학생들이 21명, 주 단위로 통학하는 학생이 9명 그래서 총 80명이 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주 단위 통학이라는 것은 뭐냐면 월요일날 학부모들이 데려다놓고 토요일날 집으로 데려가고 하는 학생들을 주 단위 통학으로 얘기하는데 실제 학생들이 하루에

2시간씩은 차를 타야 되거든요, 충주에서. 이 내용이 충주에서 괴산에 몇 명 있는데 충주에서 9명 기숙생들이, 괴산에서 7명, 음성에서 4명, 장호원에서 1명, 주말로 다니는 아이들은 전부 충주 아이들 이에요. 그래서 하루에 한 2시간씩 시간을 장애아들이 낭비를 하고 날이 추울 때는 굉장히 고생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 학교측에서는 겨울철 눈 오고 이럴 때는 안전 관계 때문에, 학교장이라면 그 입장을 바꿔놓으시면 얼마나 불안한지 아실 거예요. 45인승에 50명이 타고 다니니까 한 10%를 초과해서 타고 다니는 거거든요. 그 관리상에도 굉장히 어려움이 있고 그런데 거기 한 분교 내지는 어떤 협조를 해서 할 수 있는 방안이 없는지. 제가 그 학교 교장이라도 그렇고, 학부모의 입장에서든 그렇고 그 가능성이 혹시 있으신지. 있으시면.....

● **충주교육청 교육장 조성례**

충주 교육장 조성례입니다.

지난 1월 7일날 사회복지법인인 그 청암학교에서 저희 교육청에다가 저희 교육청 관할에 있는 가금중앙중학교 가금분교장 거기를 지금 청암학교 충주에서 다니는 학생들이 고생을 하니, 폐교가 됐습니다 그게, 그래 그것을 이용할 수 있는 방법이 없겠느냐 해서 저희들이 정식으로 공문을 접수해서 검토를 했습니다. 그 검토

결과 하필 중앙중학교 가금분교장은 지금 지리적으로 충주 기업도시하고 인접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 기업도시가 들어오면 장래 학생 수용 계획상 변동이 있을 수 있지 않겠느냐. 그런데 이제 그 가금분교장이 일정기간 동안 재산을 보전해야 될 필요성이 대두돼서 자체 활용 또는 언제든지 환수가 가능해야 되는데 필요할 때, 그래서 지금 청암학교에다가 이것을 대부분 해줬을 경우는 장애인 노인 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제8조 및 동법 시행령 제4조에 규정한 시설 설치기준에 따라서 우선 편의시설이 없어요, 거기가 장애인. 또 어린이들 때문에 특수 어린이이기 때문에 특수 어린이들을 위한 여건이 마련되지 않아서 장래 이러한 시설에 투자를 할 경우에는 한번 투자를 해 주면 거기를 장기적으로 임대할 수 밖에 없는 그런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청암학교에다가 그런 이유로 해서 지금 현재로는 부득이 임대를 할 수 없다, 그런 불가 의견을 회신한 바 있습니다.

● **성영용 위원**

내용은 알겠습니다만은 사실 사립하고 공립의 어려운 부분, 그것도 모르는 것은 아닙니다만은 실제 장애아동들 하게 되면 우리 공립에서는 장애시설을 굉장히 많이 투자를 해 주고 있잖아요. 그런데 사립에

[지역교육청주요업무계획보고]

서는 자체적으로 하는 경우도 있겠고, 지원을 받을 수도 있겠는데 가끔분교장 말고라도 어디 가능한 데 있으면 아이들의 안전과 교육환경, 학부모들의 안정된 생활을 위해서 좀 어디 하나 빌려주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어디를 빌려줘도 빌려주고 어디가 있어야 돼도 있어요 되는 거예요.

만일 그 학교에서 이 아이들 도저히 불안해서 못하겠다, 이런 경우에는 굉장히 어려움이 있거든요.

물론 교육자적인 자세에서 그런 것까지는 안 취하겠습니다만은 청암학교에서 그런 억측의 처사는 안하겠습니다만은 혹시 그런 경우라도, 만약에 그래 나오게 되면 굉장히 큰 문제가 되거든요. 그 부분을 좀더 깊이 고민 좀 해 주시고 어떻게 충주에서 다니는, 사실 장애아들 얼마나 불쌍해요, 우리 성한 사람도 하루에 왕복 2시간 차 타고 다니는 거 보통 어려운 게 아닌데. 물론 기사도 힘이 들겠지만은.

그 부분에 조금 더 마음을 주셨으면 하는 그런 바람이 있습니다.

● 충주교육청 교육장 조성래

충주교육청 조성래입니다.

지금 위원님 말씀 제가 마음에 잘 담아서 해결해 볼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 보겠습니다.

● 성영용 위원

예, 감사합니다.

다음 제천교육청.

우리 제천교육청 특화사업으로 Fine-edu 정책품질인증제 실시를 신규사업으로 제시했죠. 그죠?

● 제천교육청 교육장 신강수

예, 제천교육청 신강수입니다.

그렇습니다.

● 성영용 위원

목적사항이나 목적상의 취지는 제가 상당히 공감합니다.

그러나 각종 혁신활동 사업의 하나로 지금은 사업의 중요성이 많이 떨어지는 걸로 지금 알고 있거든요, 제가.

그런데 이것을 특색사업으로 정한 이유가 뭔지 한번 들어보고 싶습니다.

● 제천교육청 교육장 신강수

제천교육청 신강수입니다.

저희들 사업이 살펴보니깐 27개 사업이나 되는데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1년간 지나면 사업이 부진하면 거기에 미흡한 부분이 있을 테고 만족했다면 다른 대체사업으로 해야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들 교육청에서는 공무원들이 일을 할 때 실현 가능한 그런 정책을 잘 수립을 해서 적합하게 때에 맞춰서 잘 시행했는가 이런 거하고, 또 업무를 했으면 그 업무가 지속적이어야 되고 또 그 책무성

도 강화되어야 되기 때문에 일회성으로 끝나는 이런 사업도 있겠지만 보다 지속적이고 강화해야 된다면은 이런 제도를 취하는 것이 어떨까 해서 특화사업으로 정했습니다.

● **성영용 위원**

예, 소기의 목적을 달성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153쪽에 있는 부분인데요 충청북도 유아교육진흥원 설립 추진은 제가 알기로는 도교육청 업무계획으로 알고 있는데 우리 제천교육청에도 그게 들어가 있네요, 맨 아래쪽에 53쪽.

● **제천교육청 교육장 신강수**

제천 교육장 신강수입니다.

사업 주체나 어떤 대상, 실현성에 대한 이해 부족한 것으로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다음 번에는 이런 일이 없도록 검토를 하겠습니다. 시정하겠습니다.

● **성영용 위원**

다음 진천교육청.

48쪽에 체육시설 개선사업 중에 리틀야구장 조성 사업을 추진하는데 리틀야구장 관계는 교과부에서 제가 알기로는 지금 사업을 자제하는 걸로 지금 지시가 내려온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와 더불어서 우리 도교육청에서 리틀야구장 설립을 위해서 예산을 반영하고 추진하고 있는데 그거하고 별개예요, 아

니면 같은 거예요?

● **진천교육청 교육장 연홍길**

진천교육청 연홍길입니다.

올해 한 것이 아니라 2,3년 전부터 꾸러기야구단이라고 해서 지역에서 진천 지역 학생들하고 덕산면 학생들하고 덕산면 학생들하고 광혜원면 학생 이렇게 세 팀이 조성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우선 자체적으로 자기들 자생단체로 학부모들이나 아니면 기업체에서 옷을 해 입히고 물품을 사주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여기 청주에서 이대원 의장님이 이렇게 해가지고 청주하고 다 모여가지고 한번 단체를 결성해서 교육감님께서도 참석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교육감님께서 진천에 꾸러기야구단이 이래 만들었으니까 한번, 신덕분교라고 있습니다 폐교된 분교, 지금 문광도에학원을 하고 있는데요 거기에다가 한번 꾸러기야구장을 간이로라도 만들어서 해보는 게 어떠냐 해서 올해 4,900만원을 주셔가지고 지금 간이 야구장을 만들어서 동아리 활동마냥 학생들이 즐겁게, 또 체력증진 이런 걸 위해서 하고 있습니다.

● **성영용 위원**

알겠습니다.

다음 괴산중평교육청입니다.

49쪽입니다.

학교 체육시설 현대화에서 체육공원 조

[지역교육청주요업무계획보고]

성사업이 있는데 여기에 인조잔디축구장, 게이트볼장, 게이트볼장은 실제 학생들이 하는 건 아니잖아요. 배드민턴장, 탁구장 이렇게 체육공원 조성을 하신다고 그랬는데 대상 학교라든지 설치 시설물 등 세부적인 사업설명을 해 주시겠습니까?

● 괴산증평교육청 교육장 이상용

괴산증평교육청 이상용입니다.

지금 인조잔디축구장은 괴산중학교가 거의 완성 단계에 있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그 체육진흥공단하고 지방 지자체에서 예산을 투입을 해서 하는 거고, 금년에 삼보초등학교하고 동인초등학교하고 인조잔디를 조성 계획이 있습니다. 그리고 예산도 배정이 됐고요. 게이트볼장은 여기 써넣었는데 이것은 여러 가지 검토 대상입니다. 이것은 저희들 교육청에서 하는 게 아니라 정치적으로 도의원 이런 분들이, 면 단위에 노인 분들이 많으니까 학교시설 운동장에 귀퉁이에 게이트볼장을 설치해 달라는 요구가 작년부터 많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저도 생각하기에 이게 그냥 라인만 그어놓고 홀만 파놓고 한다면 얼마든지 주민 편의시설 제공을 얼마든지 할 수가 있는데 거기다가 시설물을 설치한다고 그래요. 그래서 앞으로 이것은 면밀히 검토를 해서 도교육청도 또 협의할 사항이고 또 의회에도 보고를 드려서 추진할 거지, 앞으로 이것을 한다고

확정된 것은 아니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배드민턴 같은 것은 지금 다목적실에 야간에 동호회 활동이 조직이 돼서 별도로 활발히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별도로 배드민턴장을 야외에다가 시설을 하는 게 아니고 있는 시설을 이용하는 그런 게 되겠습니다.

● 성영용 위원

그렇게 하고 53쪽에 식중독지수예고제 운영 사업으로 상당히 식중독 예방을 위해서 좋은 안인데 이것을 4월부터 9월까지만 추진하게 돼 있네요.

요즘은 여름철뿐만 아니라 겨울철에도 식중독이 많이 발생되는데 이거 연중 사업으로 하시면 어떻겠어요.

● 괴산증평교육청 교육장 이상용

주로 하절기에 집중적으로 지도하고 하는 걸로 했는데 지금 위원님 말씀대로 가을 겨울에도 추진을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 성영용 위원

겨울에도 같이 해 주셨으면 좋겠네요.

다음에는 54쪽에 김병우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은 예산이 특화사업으로 협력신장 기반구축을 위한 독서교육 강화에서 작가와 떠나는 독서열차여행을 실시하는데 사업설명과 그 예산액이 전혀 없는데 좋은 사업 같은데 예산 없이 어떻게 자비 부담으로 애들 다 시킬 건가요?

● 괴산중평교육청 교육장 이상용

괴산중평 교육장 이상용입니다.

이것은 아까도 말씀을 드렸는데 작가와 함께 하는 KTX를 타고 대전에서 부산까지 여행을 하면서 그 열차 내에서 독서활동을 하는 겁니다.

● 성영용 위원

제가 질의드리는 건 예산액이 없다는 얘기에요.

● 괴산중평교육청 교육장 이상용

예산은 한국간행물윤리위원회에서 전액 지원하고 있습니다.

● 성영용 위원

지원되는 겁니까?

● 괴산중평교육청 교육장 이상용

예

● 성영용 위원

알겠습니다.

교육장님 견해를 묻고 싶어요.

지금 청안중학교 문제 하면 잘 아시겠지만 사실 굉장히 저희도 아주 머리 아픈 부분이거든요.

그 청안중학교 처리방안을 지금 대책 없이 끌고나가고 있단 말입니다.

물론 어떻게 처리했으면 좋겠다, 어떤 특별한 대책이 있으신지.

● 괴산중평교육청 교육장 이상용

괴산중평교육청 이상용입니다.

청안중학교는 지금 학생수가 12명입니

다.

그리고 금년에도 4명이 가까스로 입학 을 해서 최소 인원을 확보를 하긴 했는데 지역이나 괴산 정서에서 이 학교는 폐교 를 시켜야 된다, 통합을 시켜야 된다, 이 런 말도 많이 있었는데 제 의견으로는 설립자들의 건학 정신도 존중을 해 주고 가 급적이면 그 학교를 대안학교나 특색 있 는 학교로 해서 살려나가는 방향으로 하 면 어떨까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고, 또 임갑수 군수도 거기에 인원이 이제 중평 으로 자꾸, 학구에 빼앗기기 때문에 거기 에 특별 관심을 가지고 학생들의 학력신 장을 시키면, 다른 학교보다 학력신장이 될 것 같으면 주위 학교들이 올 거 아니 냐, 이래갖고 이번에 특별지원을 3,500인 가 얼마를 특별지원을 또 하고 괴산에서 도 살펴보고, 지방자치단체에서도 살펴 보려고 이렇게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저희들이 이사장 의견을 들어봤습니다. 그냥 계속 둘 수도 없고 그런데 이사장 그쪽의 의견은 향후 사립 학교법 개정을 통해서 영세 사업 해산 시 학교법인이 소유하고 있는 기본재산 감정 평가액의 100분의 30 이내 범위에서 해산 장려금을 지급해 주고 교육에 직접 사용 한 재산은 국가가 매입토록 하면 이에 대 한 상속세 및 증여세를 면제토록 법적 근 거를 마련할 경우 본 법인의 상기내용이

[지역교육청주요업무계획보고]

보장될 경우 해산을 희망한다고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해 관계 속에서 이제 이렇게 되는 것 같은데 하여튼 가급적이면 학생들을 더 모집을 해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특색 있는 학교, 대안학교나 또 학력신장을 다른 학교보다 특별히 해서, 지금 산골 농촌에도 그런 학교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학교를 장려하는 걸로 적극 지원을 해보고 정 안되면, 안되면 뭐 조율을 해서 어떻게 다른 방법을 강구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 성영용 위원

그러면 1차적으로 대안학교나 특색 있는 학교로 해서 군의 지원도 받을 것은 받아서 우선 운영을 해보고.....

● 괴산증평교육청 교육장 이상용

예, 살리는 방향으로 해보고 정 그제 안됐을 때는, 향후 안됐을 때는 재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 성영용 위원

지금 현재로써 대안학교로 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이나 모든 게 구비돼 있다고 보십니까?

● 괴산증평교육청 교육장 이상용

제 저기로서는 대안이 없고 그 사립학교 재단측에서 대안이 없고 거의 미흡한 실정입니다.

● 성영용 위원

대안학교 대안도 없으면 일부 이런다고 그래서 이거 안될 거 아니에요.

어떤 의지가 있어야지 교육감님하고 상의한다든지 전체적인 어떤 방향 설정이 되는 거지, 실제 가장 잘 아는 것은 교육장님 아니세요, 그 학교에.

● 괴산증평교육청 교육장 이상용

예, 그렇습니다.

● 성영용 위원

결국 여기에 대한 확실한 교육장님의 의지를 물어보고 싶어서 그렇습니다.

● 괴산증평교육청 교육장 이상용

조심스러운 말씀인데 아무튼 연구를 하고 또 이렇게 해서 하여튼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건학 정신의 취지도 살려주고 이런 식으로 추진을 해보겠습니다. 검토를 하겠습니다.

● 성영용 위원

사실 이 검토검토 이게 몇 년째 넘어오다보니까, 이 학생수 12명 가지고 지금 말도 못하는 예산이 들어가는 거거든요. 지금 학생수하고 선생님수하고 마찬가지로 예요, 그죠?

● 괴산증평교육청 교육장 이상용

괴산증평교육청 이상용입니다.

그렇습니다.

이것은 어제오늘의 일이 아니고 아마 수년 전부터 이런 문제가 대두돼 오고 있습니다.

● **성영용 위원**

좀 힘이 드시더라도 이 부분은 빨리 종결지을 수 있도록 연구 검토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 **괴산증평교육청 교육장 이상용**

예, 알겠습니다.

● **성영용 위원**

다음 음성교육청 질의드리겠습니다.

18쪽에 기숙형 영재교육센터 설립 운영 홍보 사업내용은, 또 하나 38쪽, 39쪽에 학급당 학생수 탄력적 운영에서 초등학교에서 시지역 36명, 중학교의 경우 시지역 35명으로 표시를 했는데 음성군의 경우는 시지역도 없는데 이런 걸 이렇게 표시했다든가, 49쪽입니다 이것은. 충청북도유아교육진흥원 설립추진 홍보내역, 지금 말씀드린 게 전부 도교육청 차원에서 이루어지는 부분인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 **음성교육청 교육장 정인영**

음성 교육장 정인영입니다.

지금 위원님이 지적하신 내용대로 도교육청에서 하는 것을 했습니다.

앞으로 시정하겠습니다.

● **성영용 위원**

그리고 37쪽에 보니까 이달의 교육자상 표창 대상은 교직원, 일반직 및 기능직이고, 자랑스러운 음성인상 표창 대상은 학생, 교원, 일반직으로만 돼 있어요. 여기에 기능직들은 없는데 이 사람들은 집어

넣으면 안되나요?

● **음성교육청 교육장 정인영**

음성 교육장 정인영입니다.

일반직에 여기서는 기능직도 포함돼 있는 겁니다. 그런데 기능직들이 위에 들어갔기 때문에 삭제를 한 것입니다. 그래서 일반직 속에 기능직도 같이 포함돼서.....

● **성영용 위원**

여기 포함된 거예요?

● **음성교육청 교육장 정인영**

예

● **성영용 위원**

차별대우를 만나, 기능직이 이 서류상으로 보면. 그래서 질의드렸습니다.

● **음성교육청 교육장 정인영**

음성교육 발전을 위해서 상당히 열심히 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매달 한 명씩 선정을 해서 하는데 대개 기능직에서 공적조서를 제출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선은 지금 공적조서를 제출한 분에 한해서 심의를 해서 시상을 하고 있습니다.

● **성영용 위원**

어쨌든 기능직이 빠진 건 아니죠?

● **음성교육청 교육장 정인영**

예

● **성영용 위원**

다음 단양교육청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지역교육청주요업무계획보고]

습니다.

지금 방과후학교 연수 및 홍보해서 단양교육청 특화사업으로 방과후학교 발전 모색을 위한 협의회나 간담회를 20회 하는 걸로 돼 있는데 협의회나 간담회나 이런 것이 특화사업이 되나요?

● 단양교육청 교육장 정가흠

단양교육청 정가흠입니다.

특색사업이라기보다도 방과후 학교 사업을 위한 지원사업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 성영용 위원

특색사업으로 명시가 돼 있기 때문에 이것은 아닌데 하는.....

● 단양교육청 교육장 정가흠

시정하겠습니다.

● 성영용 위원

예, 알겠습니다.

● 의장대리 김부웅

성영용 위원님 30분이 다돼 가는데 좀 간략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성영용 위원

교원업무경감 추진 강화에서 교원업무 경감연구팀 운영 사업의 경우는 이거 역시 도교육청에서 하는 사업 아니에요?

● 단양교육청 교육장 정가흠

예, 사업의 일환이라고 생각하고, 예 맞습니다. 하지만 단양교육청 자체 내에 서도 여러 가지 협의회가 있기 때문에 그

협의회 자체도 업무경감을 위해서 노력하는 흔적이라고 보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성영용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으로 본 위원 질문 마치겠습니다.

● 의장대리 김부웅

성영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진행자의 말씀에 쫓아주셔서 고맙습니다.

다른 질문 또 계십니까?

서수웅 위원님 하세요.

● 서수웅 위원

교육위원 서수웅입니다.

저는 10분 이내에 줄이도록 하겠습니다.

궁금한 것 여쭙보고 싶은 것도 사실이지만 자꾸 일문일답으로 시간이 가서 옳은지 그른지 모르지만 제 의견을 말씀드리고 같이 생각해 보는 그런 시간을 갖는 그런 차원에서 질의드리겠습니다.

교육장님들 소신과 철학이 또는 열정이 넘치는 청사진의 보고말씀을 듣고 우리 충북교육의 미래는 기대된다, 그리고 믿음의 간다 이런 생각을 갖게 됐습니다.

문제가 제가 말씀드린 것이 안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교육의 기본방향과 지표를 쓰는데요 대개 도교육청 지표와 비전은 그냥 다 썼죠. 충주만 그것을 충주 걸로

바뀌서 썼는데 이게 그것을 받아서 그렇게 지역교육청 것으로 쓰는 게 옳은지, 안 그래도 상관 없는게 여기 보면 미래를 바꾸어가는 것이 하위 지표로 보고 그런 지표들을 다 교육하면서 궁극적으로는 능력과 품성을 겸비한 세계인을 육성하는 게 아니겠느냐, 한 가지 궁금한 게 그걸 그대로 쓰든 새로 했든 간에 에듀스타 2010이었어요. 그런데 아직 10년이 되지 않았는데 15년으로 다시 수정한 이유가 뭔지. 특별히 무슨 이유가 있었는지 한번 곰곰이 생각해볼 필요가 있다. 제가 혼자 생각했어요. 아 이거는 교육만족 전국 최상위라면 신나는 교실 행복한 학교도 그 속에 들어가 있구나 하고 저도 이해를 했습니다.

그런데 교육장님들 그것까지 생각하고 쓴 것인지 한번 되돌아보시길 바랍니다, 지금 여기 검토하면서 보니까 차별화하려는 노력이 돋보였습니다.

진천 같은 경우는 역점사업이나 강조할 사항을 박스로 해서 음영처리를 했고요, 그 다음에 음성 같은 경우는 글꼴을 바꿨더라구요. 글꼴하고 진하기를 바꿔서, 아, 이거 역점사업이구나를 볼 수 있게 했고요, 단양은 작년부터 우수 사례로 칭찬을 많이 했던 사항인데 그 항목 옆에 박스를 하고 단양특색 이렇게 옆에다가 표시를 했어요. 그래서 죽 보면서도 거기

에 눈이 가더라, 참고로 말씀을 드립니다.

그 다음에 항목 하나하나 들어가서 1-2-2에 거의 다 해당되는 건데 수업스타 활용을 통한 교실수업 개선이라고 돼 있는데 수업스타를 발굴하는 내용을 보면 도대회, 군대회, 그 대회에 나가는 사람을 거기에 입상한 사람을 발굴한 걸로 보고 신입교사와 1대 1 맺어준다든지 아니면 시범수업 한다든지 이런 식인데, 제가 여기서 한 가지 당부하고 싶은 게 있다면 그런 수업스타뿐만이 아니라 교원의 스타 발굴에 어떤 동기를 부여하고 발굴해서 칭찬 격려하고 교육발전에 기여하도록 하면 좋겠다, 그런 생각인데 어느 항목에 넣어야 할지는 교육장님께서 걱정해 주시면 좋겠다. 그 다음에 3-1-1에 해당되는 진취적인 품성 함양에서 기본이 바로 선 일류 충북학생이라는 타이틀이 있는데 이것도 기본이 바로 선 지역교육청이라고 쓰고 학생 육성이라고 쓰는 게 옳지 않은가, 그런 생각이 드는데 참고로 하시기 바랍니다.

물론 진천에서 기본이 바로 선 학생을 기르면 충북에서 기본이 바로 선 학생이 되는 거지만 그래도 지역화해서 한다고 그러면 교육장님들의 소신을 담는다고 그러면 충북의 학생이 아니라 지역의 학생으로 쓰는 것이 좋겠다는 제 개인적인 생

[지역교육청주요업무계획보고]

각을 참고로 말씀드리고요, 그 다음에 신나는 교실 행복한 교실을 만들기 위해서는 누가 제일 신나야 됩니까.

진천교육장님, 누가 제일 신나야 아이들이 제일 신날까요?

● 진천교육청 교육장 연홍길

진천 교육장 연홍길입니다.

담임교사가 신나야 학생들도 신납니다.

● 서수웅 위원

그렇죠? 그래서 저는 늘 생각이 담임선생님이 신명나면 그 학급은 가만 놔둬도 신나고 행복하거든요. 그래서 우리 교육장님들은 교장선생님을 신나게 하고, 교장선생님들은 선생님을 신나게 할 수 있는 그런 항목을 하나 개발해서 어떻게 들려줬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요, 그 다음에 3-2-2에 전부 해당되는데 학생사랑생활지도에서 친한 친구 행복한 동행 캠페인을 4월, 9월 2회 한다고 그랬어요. 이것이 각 지역 똑같은데 캠페인이 그래도 도 단위는 방송이라든 타고 그러니까 사회 홍보적인 효과가 있다고 그러지만 지역교육청에서 해가지고 이게 홍보효과를 노릴 수는 없지만 이게 정말로 학생사랑 생활지도에 큰 도움이 되겠는가 의문이 가고, 아니면 이것도 교육감 사업을 그대로 옮겨 쓴 건가 궁금해서 제가 한번 지적해 보고요, 그 다음에 그와 관련해서 친한

친구의 날 운영도 전부 각 시·군마다 7월, 9월 그렇게 해놨더라고요. 친구의 날 그레놓고 7월, 9월 그레놓으면 이해가 안 가잖아요. 이걸 도교육청에 내려보낸 것을 그대로 쓴 거냐. 제가 시·도교육청 다니면서 이것은 작지만 폭력이 없고 아이들이 행복하려면 친구의 날만 잘 돼도 성공할 수 있다고 지적을 했고, 예를 들은 적도 있는데 제 생각에는 이게 왜 전부 7월, 9월로 줄어들었는지 모르겠어요. 그전에는 뭐 4월 첫째 주 월요일, 며칠 며칠 해서 세 번, 네 번 있었던 걸로 알고 있고 여기서 하나 우수 사례라고 하나 발견했던 것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단양교육청 같은 경우는 사과데이라고 해서 매월 24일로 정했어요. 이것은 친구의 날이 아니고 그냥 권장하는 거더라고요. 내 생각에는 그걸 친구의 날로 권장하면 더 좋을 것 같은데 친구의 날 7월, 9월은 도 지시인지 모르지만 그대로 두고 사과데이를 했더라고요. 둘이서 사과할 일이 있으면 사과를 하는 날, 그것을 친구의 날로 했는데 제가 현장에서 파악한 친구의 날 아주 좋은 사례는 어느 학급 담임선생님이 그 학급 아이들 생일을 우정의 날로 정했어요. 그래서 그 애 생일 날 전 학급 친구들이 우정을 베풀어주는 거예요, 어떤 방법으로든지. 그러니까 미워할래야 미워할 수 없고 전부 행사성이

지만 보람을 느낄 수 있는 친구의 날 운영하는 것을 볼 수가 있었는데 그런 걸 예로 한번 기억을 하셨다가 7월, 9월 이렇게 써놓지 마시고 그냥 학교재량에 맞기 되 몇 회 이상했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생각이예요. 이거 7월, 9월 이렇게 해 놓으시면 보이기 위한, 우리 했다, 실적 위주로 계획을 세운 게 아닌가 이런 의혹이 가더라구요.

아주 작은 거지만 조금 더 세심하게 효율성 있는 친구의 날이 되도록 배려해 줬으면 좋겠다, 이런 제 바람을 말씀드립니다.

그 다음에 4-1-1에 해당되는 스승존경 풍토 조성에서 대개 다 보면 우수 교원 표창 및 인센티브를 제공해서 스승존경 풍토를 만들겠다, 이런 내용이 다 들어가 있더라구요. 그런데 스승존경 풍토는 역0시 방향은 맞다고 봅니다. 선생님들이 우수한 점을 표창하고 인센티브를 주는 게 좋은데 우수한 선생님이 될 수 있도록, 인센티브를 받을 수 있도록 그런 어떤 실적을 거양할 수 있는 동기를 부여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다, 그런 생각이 들어서 스승존경 풍토는 어떻게 할 것인가 하는 그런 내용을 조금 더 세부적으로 들어갔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면서 그거와 관련해서 4-2-5에 감사 관련, 기강감찰이라는 게 있어요. 그런데 대개 다 이렇게 써

있더라구요, 1년에 4번 이상, 취약시기에. 특히 설, 추석 명절이나 여름방학, 겨울방학 이렇게 네 번으로 한 것 같아요.

아니 교육장님들도 학교현장에 계셨잖아요.

학교현장에 그렇게 어마어마한 용어로 기강감찰을 받아야 할만큼 부정부조리가 있습니까, 학교현장에.

작년에 감사 나가서 이것 좀 고쳐달라고 했더니 안 고쳤더라구요. 아니 난 정말 거북하고 기분 나빠요, 현직 교사로 볼 때.

아니 학교에 그래 기강감찰, 이런 말을 써야 할만큼 그런 부조리가 아직 잔존한가.

좀 부드럽게 고칠 수 없나. 오히려 감찰 이런 게 아니라 감사를 통해서 우수 사례를 발굴해서 칭찬 격려해서 아까 그 스승존경 풍토로 이어갈 수 없나. 이게 제 소신입니다.

그래서 그런 쪽으로 권장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아까 수업스타를 얘기할 때 갖가지 영역을 말씀드렸는데 최근에 조선일보에 났던 그 공교육과 사교육을 비교하면서 사교육한테 공교육이 불신 받는 풍토 중의 원인을 이렇게 진단했더라구요. 3S가 없다. 나는 기분 나쁜 애긴데 스타가 없고

[지역교육청주요업무계획보고]

스피드가 없고 서비스가 없다, 이거는 어느 한 부분의 지적인 능력이나 기능적인 능력 그거 하나만 길러주는 것을 따질 때 이런 얘기가 통하는 것이지, 아까 우리 김병우 위원님이 지적했고 몇 분 위원님이 지적했듯이 우리 학교교육은 공교육은 특수성이 있잖아요. 능력과 품성을 겸비한 사람을 길러야 되기 때문에 이런 각 영역에서 스타를 발굴해 낼 수 있는 그런 안목을 가지시고 선생님 존경 풍토를 조성해 주는데 기여할 수 있는 관심을 가질 수 있는 그런 항목 등을 개발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아주 작은 거 한 가지로 끝을 맺겠습니다.

학습부진아 지도를 다 제로화를 지향하는 걸로 돼 있는데 이것은 제로화시키겠다는 것은 아니죠? 할 수 없으니까. 제로를 지향한다는 뜻으로 제가 이해를 하고 거기 지도수당을 학교운영비 재량으로 하거나 또는 몇 십만원 이상 준다고 되어 있는데 어떤지 모르겠습니다. 학습부진아 지도에 유공자라고 생각하는 교사가 있으면 그 교사를 발굴해서 포상 내지는 인센티브를 주는 경비로 예산을 활용하는 것이 어떨까.

한번 건의 말씀을 드려봅니다.

이제 바쁘고 시간에 쫓긴다는 시간 핑계하에 두서 없이 말씀드렸는데 제 질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 의장대리 김부웅

서수용 위원님 12분에 끝내주셨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제 이상일 위원님 남겨두고 계시는데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상일 위원

이상일 교육위원입니다.

교육장님들 3월 학기 시작된 지 얼마 안됐는데 이렇게 소상하게 교육청 업무보고를 해 주셔서 고맙게 생각합니다.

세 가지만, 교육청 공통적으로 해당되는 사항인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기초학력책임지도에 관한 사항입니다.

우리 국민들, 또 도민들 모두가 알고 있는 일인데 2008년도에 전국적으로 실시한 초등학교 6학년, 중학교 3학년, 고등학교 1학년 학력평가 내지는 학업성취도 진단평가를 실시했습니다.

아까 정무 위원님께서도 소상히 말씀해 주셨는데 결국 성적이 우리 충청북도가 중하위권으로 나와서 많은 분들이 실망을 한 것도 사실입니다.

교육감께서 서둘러 머리숙여 도민에게 사과를 하셨습니다.

그런데 이게 어찌 교육감님 한 분만의 책임이겠습니까?

각 학교를 운영하시는 교장선생님, 또

학생을 실제 지도하는 선생님. 우리 교육 가족 모두의 책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원인분석들도 해봤어요. 이게 어떻게 하면 좋겠느냐. 왜 어느 지역에는 성적이 나쁜 걸로 생각했는데 성적이 좋다. 바로 그 원인은 교장선생님과 선생님들이 얼마나 열정적으로 학생들을 지도했느냐 하는 것에 따라 성적이 좋기도 하고 나쁘기도 했다 하는 겁니다.

다행스럽게 생각하는 것은 우리 충청북도도는 그래도 나쁘면 나쁜 대로 있는 그대로 성적을 제출해 줬다는 겁니다.

성적이 조금 나쁘면 더 노력해서 향상시키면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일시적으로 그것을 모면하기 위해서 성적이 나쁜 아이들은 빼고 시험을 본다든가, 또는 성적을 고의로 조작을 했다든가. 그래서 전라도 입실이 서울 강남을 눌렀다. 전세계가 놀랄 정도로 대서특필한 것을 봤는데 결국은 그것이 허위라고 하는 것을 보고 얼마나 우리 스스로가 교육자로서 가슴 아팠습니까.

다행스러운 것은 그래도 우리 충북이 정확한 것을 가지고 평가를 하고 결과를 보고했다는 것은 참으로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교육장님들한테 한번 여쭙보겠습니다.

겨론이 났는데 교장과 교사, 교육가족이 열정적으로 하면 된다 하는데, 그러면

교장과 교사, 이 분들이 열심히 할 수 있도록 지원해 주는 방안은 뭐겠는가 하는 걸 좀 어려운 질문이지만 우리 본청에서 중등과장님을 하시다 현역으로 가신 제천 교육장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어떻게 하면 좀 신바람 나게 열심히 할 수 있을까.

어떤 방안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제천교육청 교육장 신강수

제천 교육장 신강수입니다.

어려운 질문을 주셨는데 답변드리기 어렵지만은 한번 평소에 생각했던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학습성취는 교사의 열정과 학생의 성취욕에 있다 이렇게 생각해서 위원님 말씀에 요인에 동감을 하고, 어떻게 하면 신바람나게 지원할 수 있는 방법이 있겠느냐. 저는 방법은 없는 저 나름대로의 생각은 학습지도를 잘할 수 있도록 정상적인 교육과정을 운영할 수 있도록 이렇게 도와줘야 되는데 그러려면 수업을 잘 지도하는 선생님, 생활지도를 잘 지도하는 선생님, 이런 선생님들을 늘 칭찬 격려할 수 있는 방법이 없겠는가 해서 저희들 같은 경우는 일단 그런 수준에 올라가려면 선생님들의 질을 제고를 시켜줘야 되는데 우리 선생님들이 생활지도에 대한 자신감이 있고, 학습지도에 대한 자신감이 있다면 그 자체가 행복하고 학생들도 학력이

[지역교육청주요업무계획보고]

저절로 올라갈 것이고 품성을 갖춘 이런 학교가 될 것입니다.

우선 이런 학력 부분에 있어서는 수준별 영어, 수학에 대한 교사의 연수, 또 저희들 같은 시내의 모든 선생님을 대상으로 하는 학습지도방법 연수, 또 교과별로 공개수업을 해서 한두 시간 빠지더라도 그 교과수업을 잘하는 선생님들 수업을 볼 수 있도록 해 드리려 하고 신규교사 연수에도 그렇게 하려고 하는 이런 과정을 가지고, 더 중요한 것 한 마디 말씀드리겠습니다.

제 생각은 현장을 바꾸는 이런 장학지도를 해야 되겠다.

서류 위주보다 이렇게 하는 것보다는 실제로 그 학교를 딱 가면 책을 몇 권 읽었는지, 또 벽에 낙서가 있는지, 두발상태가 어떤지, 인사예절이 어떤지, 식사예절은 어떤지, 쓰레기 종량제 봉투를 정말 잘 쓰고 있는 것인지 이런 인성지도에서부터 시작을 한다면 학생들도 바꾸고 학교 현장도 바꿀 수 있는 거 아니겠느냐.

그러면서 동시에 교과지도 방법까지 갈 수 있는 이런 것을 하는 것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 이상일 위원

말씀 잘 들었습니다.

물론 그런 게 중요하고 다 중요하지만 우선 교사 개개인이 책임의식을 느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교장이 시험을 봐라, 보지 말아라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내가 지도한 아이들이 어느 수준에 와 있나 궁금해서라도 평가를 해 봐야 됩니다.

과목담당은 과목담당대로, 초등학교는 담임선생님이 내가 3개월, 2개월 가르쳤는데 아이들이 어느 정도 쫓아왔는가 하는 거 목표달성을 위해서 스스로 평가를 해 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가능한이면 그런 것이 잘 안되면 교장선생님이 하도록 권고해야 됩니다.

교장선생님을 CEO라고 그러죠. CEO라고 하는 것은 구성원들이 책임감을 느끼고 열심히 하도록 권장하고 도와주는 게 역할입니다.

제가 학기초에 어느 학교를 갔더니 어느 교장선생님이 그러시대요. 학교를 잘못 지어놔서 교장이 장학지도를 가도 교실내부가 전혀 아무것도 안 보인다는 거예요. 그래서 행정실장한테 자기 눈높이에 있는 유리창을 투명한 유리창으로 바꿔달라고 그랬다고 그래요. 예산이 한 80만원 들여서 바꿨다고 합니다. 그렇게 책임감을 가지고 교장선생님이 지도하면 좋아지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을 하고, 제가 몇 년 전에 광양제철 부설초등학교에 견학을 갔을 때 거기 교장선생님이 진천 분

이셨어요. 그 분이 소상하게 학교를 안내 해 주고 설명을 하는데 그 분이 부임하고 보니까 학교 교실이 잘못 지어져가지고 복도에서 전혀 내부가 안 보이더라고요. 재단에다가 특별히 전부 뜯어가지고 창틀을 만들어 달라고 해서 수역을 들어서 고쳐줬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교장이 그렇게 책임감을 가지고, 사명감을 가지고 하면 성적이 그렇게 떨어질 리가 없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교육장님들께서 힘드시지만 교장선생님들과 선생님들에게 자기 책임을 다할 수 있도록 독려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두 번째로 학교폭력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교육청별로 학교폭력에 대해서 많은 노력을 하고 계시는 걸 봤습니다.

충주교육장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지금 내용들을 보면 단위 학교 중심으로 학교폭력예방시스템을 구축해서 배움터지킴이, 또 취약 지역의 CCTV 설치, 뭐 이런 것을 하고 있고, 여러 가지 지역사회와 연계된 학교안전망 구축에 노력하는 것을 봤습니다.

그런데 생활지도에 어려움이 가중되는 속에서도 학생들의 폭력이 늘어난다고 그래요. 또 연령이 점차 어려워져서, 옛날에는 고등학교에서 있을 법한 일들이 중학

교, 중학교에서 있을 일이 초등학교까지 내려오고 있다고 그러합니다.

그런데 제가 가끔 해마다 도교육청 감사 때 학원폭력 실태의 자료를 받아보면 거의 교육청별로 없어요. 그런데 밖에 나가서 학부모나 누구한테 물어보면 상당한 수가 따돌림, 또 학교에서 얻어맞고 또 다른 데로 전학을 가고 그런데 자료는 없다고 그래요.

그래서 차제에 생활지도도 좀 더놓고 하면 어떨까.

혹시 이런 사건이 터지면 우리 학교의 명예가 실추된다. 또 교육감님이나 웃 분들한테, 야, 너희들 뭐하고 있느냐 꾸중들을 것 같아서 숨기든지. 또는 교감이 교장 승진해야 되는데 그런 일 터지면 안 되니까 숨긴다든지. 이렇게 해서 자꾸 굶은 부분을 감춰서 되겠는가. 그러니까 이런 일이 있으니까 우리도 같이 저런 일을 어떻게 대처할까 하는 것을 생각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결국 교육장님, 지금 시우보우라고 하는 문구가 있습니다. 이게 결국은 내 친구를 한번 더 살펴보고 잘 도와주고 보호해 주자는 얘기 같습니다.

그런데 이거보다 더 중요한 게 선생님이 한 번 더 쳐다보고 머리를 쓰다듬어 주고 격려해 주면 친구가 해 주는 것보다 열 배, 백 배 효과가 있을 걸로 생각합니다.

[지역교육청주요업무계획보고]

다.

그런데 교육장님, 금년초에 각 학교에서 생활지도, 급식지도, 또는 청소지도, 지금 청소도 용역을 줘가지고 화장실 청소 안 시킨다고그립니다. 그런데 선생님들이 좀더 관심을 가져주면 더 좋을 것 같은데, 교육장계선 교사들이, 선생님들이 학생들을 좀더 관심을 갖고 지켜보도록 어떤 조치를 취해야 될 것 같은데 어떤 구상을 하고 계신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충주교육청 교육장 조성래

충주 교육장 조성래입니다.

지금 학교폭력에 대해서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참 심각한 문제인데 지금 이것도, 원래는 학생생활지원센터라고 그래서 지금 충청북도에는 충주교육청하고 청주교육청 두 군데만 돼 있습니다. 그래서 학생생활지원센터라고 해서 학교에서 위기의식을 느끼거나 또는 따돌림을 당한다든지 자기 혼자 고민하는 그런 학생들을 위해서 저희 교육청 내에도 상담치료사, 전문치료를 뒤편하고 그 학생들이 저희 청내에 와서, 학생생활지원센터에 와서 상담도 하지만은 차를 구입해서 지금 각 학교로 문제 있는 학교에는 그 상담생활선생님들이 지금 학교로 나가고 있습니다. 교장선생님들께서 저희 교육청에다 그것을 요구하시면 가서 학생들을 아

무도 모르게, 다른 사람이 알면 안되니까 그 차안으로 불러서 상담을 하고, 더 심한 어린이들은 학부모하고 연계해서 저희 학생생활센터로 불러서 학부모도 같이 오게 합니다.

그래서 지금 학교폭력을 줄여나가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 이상일 위원

뭐 교육부에서 도움을 필요로 하는 학생들을 위해서 학교에는 Wee-Class, 교육청은 충주교육청, 충주교육청 두 군데에다가 Wee센터를 설치하고 도교육청 차원에서는 Wee스쿨을 하도록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하여튼 선생님들이 관심을 갖는 것만큼 학생들은 변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얼마전에 보은교육청 산하 어느 학교에서 선생님이 자리를 뜬 사이에 학생들이 성인용 동영상 같은 것을 내려봤다고 전국적인 망신을 당한 적이 있습니다.

선생님이 조금만 더 관심을 가졌으면 이런 일 안 일어났을 거 아닙니까.

하여튼 교육장님들께서 학기초에 교장회의 또는 교감회의, 생활지도 회의를 통해서 철저하게 책임의식을 가질 수 있도록 지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차례대로 진천 교육장님한테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지금 정부에서 경기활성화를 위해서 예

산을 조기 집행하도록 지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육청에서도 예년에 5월 달에나 있을 추경에 3월에 심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상반기 60%를 집행하도록 이렇게 지시가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난번 예산심의 때 우리 성영용 위원님께서 방수 문제를 지적을 하셨어요. 우리가 예산서를 보다보면 학교가 새서 방수를 해야 된다는 방수비용이 엄청나게 많이 올라와요. 물론 20년, 30년 된 오래된 건물이 새는 것은 이해를 하죠. 그런데 새로 지은 지 얼마 안되는 건물에 비가 샌다. 심각한 문제입니다.

그래서 좀더 공사감독을 철저히 할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

여기도 5억이 넘는 공사는 명예감독관을 임명한다, 뭐 이런 제도가 있는데 충남교육청에서도 실시한다고 그러합니다.

학교운영위원들 중에서 건축사라든지 또는 토목기사라든지 이런 전문가들 집단으로 좀 구성을 해서 학교를 새로 짓는다든지 개축한다는 데 가서 좀 교대로 감독해서, 전문가가 보면 보통 사람이 보는 것보다 낫지 않습니까. 그래서 각 교육청에 시설담당 파트에 일은 많지 직원이 얼마나 돼요. 그 사람들이 다 가서 감독을 하고 감리를 하기에는 무리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활용했으면 좋겠는데 교육장님 뭐 좀 좋은 방법 없을까요?

● **진천교육청 교육장 연흥길**

진천 교육장님 연흥길입니다.

지금 5억원 이상은 저희 교육청에서도 시설공사를 할 때 공동 감리를 하도록 그런 명예감독관을 선정을 해 가지고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도 지금 바로 조기 집행하라는, 그 3월달에 하기 때문에 학교마다 공사가 많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역의 운영위원장이라든가 공사에 조예가 있는 분을 선정해서 명예감독관으로 선정을 하기도 하고 감리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도 시설계나 관리과장 이렇게 해서 자주 나가보고 하는데요, 아까 이상일 위원님 말씀하신 누수되는 거는 저희 관내는 다 수리가 된 걸로 알고, 지금 새로 지은 것 중에 결로현상이라고 해서 벽이 떨어진 데 그런 것이 있어서 지금 저희들이 시정을 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 **이상일 위원**

그리고 공법도 한번 검토를 하셔서, 그 드라이비트인가 뭘 한 게 학교에서는 영안맞다고 그래요. 그런데 그거가 신공법인지 권장하는 것 같은데, 물론 도교육청 차원이지만 일선에서 그렇게 이걸 이런이런 문제가 있다 하는 것을 자세한 보고서라도 작성해서 도교육청에 좀 건의를 해

[지역교육청주요업무계획보고]

가지고 잘못된 건축법은 바뀌어야죠. 그래서 일선의 교장선생님 얘기를 들어보면 어느 학교에 드라이비트인가 그것으로 했는데 학생들이 발로 퍽퍽 차니까 구멍이 뱅뱅난다고 그래요. 값은 굉장히 비싸다고 합니다. 그래 그렇게 해서 하고 부실공사가 이루어지지 않도록 교육장님들께서 각별히 노력을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면서, 제 질문 마치겠습니다.

● 의장대리 김부웅

이상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기 때문에 저도 질의를 좀 하겠는데 가능한이면 시간 내로 끝내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만 조금 지연이 되더라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위원 김부웅입니다.

저도 교육의 수요자 입장에서 또 감시와 견제자의 입장에서 사전에 배포된 자료를 검토한 소견을 말씀드려보겠습니다.

원래는 많이 준비를 했습니다만은 시간 때문에 한 교육청에 한 가지씩만 짚어보고 넘어가겠습니다.

업무 중에는 해마다 계속되는 사업이 많이 있는데 그 중에도 1학교 1특색 가꾸기 사업이 있습니다.

제가 엿저녁에 교육수첩을 보고서 몇 개 학교의 교장선생님들께 제가 졸업생이라고 하고서 우리 모교의 전통이 됩니까

하고서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단 한 곳도 명쾌하게 대답해 주시는 분이 없었습니다.

해마다 사학계획을 다시 세우고, 또 교장이 바뀌면 또 다른 전통을 고집하고 하다보니까 그런가본데 올바른 전통이 없다는 것은 슬픈 일이지요.

제가 우연히 대답 못하는 곳만 질문했는지 모르지만, 충주 교육장님, 이거 어떻게 지도했으면 좋겠어요?

● 충주교육청 교육장 조성래

충주 교육장 조성래입니다.

그 교장선생님이 전통을 모른다는 것은 저도 의아스러운데요, 그것은 참 이해하기 힘든데, 그리고 전통이라는 것은 하루아침에 이루어진다고 보지를 않습니다.

저는 그전에 죄송하지만 학교에 교장을 할 때 교육목표를 전임 교장선생님이 세운 것을 제가 한번 안 바꿨습니다.

교육목표를 매년 바꾸면 그 학교가 어디로 가겠습니까. 저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 전통이라는 게 내려오는 건데 이것을 교장선생님이 모른다는 것은 정말 저로서도 이해가 안 가는데.....

● 의장대리 김부웅

지도가 필요하겠죠?

● 충주교육청 교육장 조성래

글쎄, 하여튼 제가 교장선생님들한테 자기 학교에 대한 확고한 신념과 철학을

가지고 교장선생님 뿐만 아니라 그 전직원이 그 학교 전통을 알도록 철저히 지도를 하겠습니다.

● 의장대리 김부웅

감사합니다.

제천교육청을 제가 보고서를 보니까 담당자, 예산, 사업대상, 또 주요행사, 연중 일과표까지. 참 명시가 돼 있어서 칭찬해 주고 싶습니다.

진천, 음성, 충주, 단양교육청에서도 맨 뒤에 달아주셨으면 하는 말씀을 드리면서요, 제천교육청 49쪽에 보면 평생학습계좌제 운영이라는 타 교육청에서 볼 수 없는 사업이 있는데 어떤 내용인지 간단하게 말씀해 주세요. 평생학습계좌제 49쪽 434.

● 제천교육청 교육장 신강수

학습결과에 대한 누적관리를 하고요, 그래서 그 점수가 높은 사람한테는 학습비를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 의장대리 김부웅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 의장대리 김부웅

다음은 진천교육청, 이것은 다른 교육청도 다 마찬가지로 해당되는 겁니다.

우리는 국제교류를 통한 국제이해교육, 글로벌 인재육성을 위한 아주 거창한 시책을 교육청마다 다 내걸었는데 자세히

살펴보면 영어교육 일색이지 다른 뭐 외국어는 없습니다.

사실 진천 지역은 제가 잘 압니다만 지역 내에 많은 공장들이 입주하고 또 외국인 근로자들이 상당히 많이 나와 살고 있습니다.

그 중에는 동남아 여러 나라, 중국, 일본, 러시아 등 많은 외국인들이 와 있는데 이 사람들을 외국어 교육 인력으로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느냐, 이런 것에 대해서 고민하신 것이 있으면 간단히 소개해 주세요.

● 진천교육청 교육장 연홍길

진천 교육장 연홍길입니다.

저희 관내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다문화가정이 46가구에 56명이 있는데요, 거기에 보면 일본인도 있고, 또 태국인도 있고, 중국인도 있고, 필리핀 원어민도 있고 그래서 저희들은 도교육청에서 학교로 이렇게 원어민을 내보내는 것은 새앙 원어민을 쓰고 있습니다. 그리고 학교 자체로, 예를 들어서 목동초등학교 같은 데서는 일본인 원어민을 쓰고.....

● 의장대리 김부웅

아, 일본인도 하고 있습니까?

● 진천교육청 교육장 연홍길

예, 일본어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중국어를 저쪽에 한천서 하고 있고.....

● 의장대리 김부웅

[지역교육청주요업무계획보고]

그런데 그 업무계획서에는 그런 타국어는 나와 있지 않고 영어만 일색으로 하고 이걸 보면 외국어교육은 영어로구나라고 오해할 수가 있었는데 지금 진천 교육장님 말씀하신 대로 다른 교육청도 마찬가지로 지입니다. 외국인이 많이 들어와 있는데 그 분들 인력으로 활용하면 아마 외국어 시책에 많이 부합되리라고 생각이 듭니다.

다음, 우리 괴산중평교육청입니다.

오늘 보고회하고는 조금 성격이 조금 다른데 제가 제안을 드리는 겁니다.

2주 전에 '09년도 1차 추경안을 심의하면서 느낀 점이었습니다.

다른 교육청보다도 지역행정서비스헌장제 운영이 괴산중평교육청은 본예산에서도 옥천이나 청원에 두 배 가까이 계상했는데 또 추경예산안을 808%, 즉 8.8배 증액을 했어요.

그래서 보니까 더 큰 지역은 청원교육청보다도 다섯 배 넘는 그래서 도내 최고로 잡았는데 그럴만한 특별한 이유가 있었습니까?

● 괴산중평교육청 교육장 이상용

괴산중평교육청 이상용입니다.

저희들 교육청에서 사업비가 1,000만원을 계상했는데요, 관내 초등학교에 통학버스가 20대가 있습니다. 그래서 차량에 홍보물을 제작해서 교부하려고 하고, 그

런데 그게 대부분이 2006년도 전에서 제작된 겁니다. 그래서 이 홍보게시물 내용이 현재 시책과 차이가 있거나 또는 디자인이 훼손되고 낡은 것이 많습니다. 그래서 교육청에서 일괄 정비하려고 추경에 반영시켰습니다.

● 의장대리 김부용

그래서 그 헌장제에 대한 홍보를 거기도 한다?

● 괴산중평교육청 교육장 이상용

예

● 의장대리 김부용

그렇게 이해를 하겠습니다.

그런데 정작 다른 예산 페이지를 보니까 직접 아이들한테 교육비로 투자되는 유아교육지원비라든지 또 초등학교 시범학교운영비라든지 이런 거는 또 딱 적더라고요. 그래서 제 생각에 학교현장 지원을 확대해나가야 되겠구나라고 생각했습니다.

어떻습니까?

● 괴산중평교육청 교육장 이상용

예, 그래서 앞으로 저희들은 괴산군 같은 경우는 교육에 투자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중평군에도 투자를 많이 할 수 있도록 이렇게 홍보도 하고 이렇게 요구도 할 건데, 그런 데서 지원해 주면 교육 직접 활동 투자에 많이 할 수 있도록 이렇게 노력을 많이 하겠습니다.

● 의장대리 김부웅

노력해 주신다니 고맙습니다.

음성교육청입니다.

49하고 50쪽을 보면요 통합교육 특수교육 시책이 나와 있습니다.

이것도 모든 교육청이 다 고민해야 됩니다.

이 특수교육 대상 학생의 경우 하루 일과를 제가 잘 한번 짜봤습니다. 그러니까 아침에 아이가 등교하면 원적 학급에 갑니다. 거기서 있다가 국어, 수학시간에는 특별학급에 가고, 거기서 공부하고 다시 일반학급을 또 가요. 거기서 끝납니다. 그러면 방과후 학교에 7만원씩 보조하는 거기 갑니다. 그 방과후 학교 끝나면 교육청 특수센터에서 하는 방과후 교육을 또 받습니다. 그거 끝나면 집에 가는 게 아니라 치료바우처, 또 순회특수교육 여기에 참여를 합니다. 야, 여기 정말 특수한 애들 공부하기 힘든 애들도 있을텐데 하루종일 왔다갔다 왔다갔다 당최 정상적인 아이들도, 제도가 좋은 제도가 많다보니까 그런데 과연 그 대상자의 수준이나 적성에 맞는 교육을 하고 있다고 생각하시는지 음성교육장님, 한번 얘기 좀 해주세요.

● 음성교육청 교육장 정인영

음성 교육장 정인영입니다.

위원님 말씀하시는 것이 저도 동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음성에서는 학생들의 적성에 맞게, 즉 배드민턴이라든가 또는 탁구 이런 걸 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 의장대리 김부웅

흥미 위주로?

● 음성교육청 교육장 정인영

예, 그렇게 해서 현재 지금 지도를 있고, 또 특수교육센터를 지금 수리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완성되면 학생들이 계속 왔다갔다하지 않고 교육청에서 일괄적으로, 우리가 치료지도사도 있고 하기 때문에 그 분들과 같이 이렇게 하려고 하고, 또 교육청에 청구장이 있는데 지금 사용을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로 특수교육센터 옆이기 때문에 학생들이 여기서 배드민턴을 주로 적성에 맞게 이렇게 훈련시키려고 하고 있습니다.

● 의장대리 김부웅

아무튼 그 애들은 우리의 손과 또 많은 지원이 필요한 것이 틀림없습니다만 너무 많은 시책 때문에 오히려 혼란이 된다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려본 건데, 하여튼 아이들 우리 사랑으로 가르칠 수 있는 방법 모색해 봅시다.

끝으로 단양교육청입니다.

36쪽에 보면 교원업무경감 추진 강화, 교육청마다 다 있는 겁니다. 제가 학교현장을 떠난 지 이제 3년이 좀 넘었길래 어

[지역교육청주요업무계획보고]

는 모임에서요 3년 전과 요즘에 교원업무를 비교해 보면 많이 경감되었느냐고 물었습니다. 그랬더니 이구동성으로요 요새는 장부통합 및 전산장부활용부, 장부가 하나 더 늘었대요. 그러니까 경감된 건 아니라는 얘기죠.

단양교육장님,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 단양교육청 교육장 정가흥

단양 교육장 정가흥입니다.

모든 매사의 업무에 대해서 다 느낌이 틀리겠지만 자기 위주로 생각하기 때문에 업무가 경감되지 않았다고 생각합니다.

한 차원 높은 단계에서 보면 업무경감에서 노력한 부분도 있고, 그 실천단계에 가고 있는데 당사자들 입장에서는 그것을 만족하지 못하고 있다고 느끼고 있습니다.

● 의장대리 김부웅

이제 체감될 수 있는 방법도 생각해 주시는 것이 우리 고위직 행정 하시는 분들의 몫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 교육장님들, 짧은 시간에 대충 본 것으로 감히 말씀드려서 죄송합니다.

다만, 제가 질의만 여러 교육청에 나눠서 질의했을 뿐 비슷한 업무에 비슷한 시책을 계획하고 있으니까 모든 교육청이 공통된 문제라는 생각으로 참고하시기 바라며, 몇 가지 제안으로 말씀을 맺겠습니다.

다.

첫째, 통일 대비 교육 계획이 전체적으로 미비하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우리는 남북 분단의 현실을 똑바로 알고 있어야 됩니다.

북측은 인민은 배가 고파도 핵무기를 보유하기에 이른 가공할만한 군사대국으로 성장했습니다.

그 핵무기는 미국도 일본도 중국도 러시아도 아닌 바로 우리 머리 위에 공포를 조성할 수 있다는 그래서 실현일 수 있다는 사실을 알려줘야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2년 전에 제가 지적을 했기 때문에 지난해에는 잘되었는데 도교육청 업무를 지역단위 업무로 소화하지 않고 그대로 나열한 것이 참으로 많이 나타났습니다.

이런 것들은 어느 곳에 내놓더라도 부끄러운 일인데 특히 감시와 견제의 책무가 있는 교육위원회에 제출하는 서류로써는 참으로 부적절하다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교육장님께서 꼭 좀 살펴주시길 바랍니다.

지난 10일 업무보고 시에도 학교장의 잦은 출장이나 외출을 자제해 달라는 교육감님의 말씀이 계셨던 걸로 보도가 났습니다.

맞습니다.

[지역교육청주요업무계획보고]

몇 번 제가 거듭 말씀드렸습시다만 학교에 행사가 있을 때마다 많은 교장선생님들을 초청을 합니다.

그러면서 교장선생님들은 또 내가 가야 되나보다고 전부 다 갔습시다.

초청 받아 온 분들이 가 앉아 있으면 소개하시는 분이 동창회장, 예비군중대장, 우체국장, 조합장 다 소개해요. 그런데 교장선생님은 유독 초등학교장님, 중등학교장님만 하고 다른 사람들은 안 합니다.

그런데 가만히 생각해보면 초대받아 가서 소개도 못 받는 거야, 이게. 우리 이 참여요 소개도 못할 행사는 초청하지 말고 또 소개 못 받을 자리에는 참석하지 말자는 이런 운동을 하고 싶어요. 그래서 교원들의 품위도 지키고, 학교 일이나 전념하면서 쓸 데 없는 출장 나간다는 그런 비아냥도 좀 줄이고, 부득이 초청해야 할 분이라면 같은 면내 몇 분만 초청해서 정중히 모셔서 정말 대통령 발령 받은 분의 권위를 우리 스스로 한번 세워봅시다.

또한 교육청과 교육청 산하 학교에 행사를 여러 번 가게 됩니다.

의전이 참 어렵긴 합니다.

제가 충주교육청 행사에 참여해보니까 교육감님 다음에 교육위원이 축사를 하고, 그 다음에 시장이 축사를 했습시다. 맞는 겁니다, 이게. 군 단위 행사에 참석

을 해보면요 소개하고 축사할 때 순서도 교육감님 다음에 자치단체장, 군의원, 교육위원은 맨 나중에 하는 일이 비밀비재 했어요. 저희가 꼭 대우를 받고자 하는 그런 얘기가 아니라 의전에는 맞도록 해야 될 거 아니냐, 이런 얘깁니다.

그래서 학교장 회의 시를 통해서 이 소개와 축사의 순서를 의전에 어울리도록 주지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끝까지 협조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른 질문 또 하실 분 계시면 말씀해 주시죠.

(“없습시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및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오늘 보고 및 질의와 답변을 청취하는 과정에서 좋은 의견을 제시해 주신 동료 위원님, 그리고 성실하게 답변해 주신 교육장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오늘 교육장님들께서 보여주신 적극적인 관심과 의욕적인 실천의지를 통해서 충북교육이 한층 더 힘찬 도약을 하는 한 해가 되리라는 것을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우리 교육위원 모두는 교육장님들의 알찬 충북교육 실현을 위한 열정과 노력에 힘을 실어드릴 수 있는 의정활동을 펼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교육장님들 수고 많으셨습니다.

[지역교육청주요업무계획보고]

이상으로 충주교육청 등 6개 교육청의 변을 마치겠습니다.
2009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 및 질의 답 감사합니다.

(18시 07분 회의종료)

○출석위원 : 6명

부의장 김부웅,

위원 김병우, 서수웅, 성영용, 이상일, 정무.

○출석공무원 : 11명

청주교육청 교육장 신우인,

충주교육청 교육장 조성래,

제천교육청 교육장 신강수,

청원교육청 교육장 권오삼,

보은교육청 교육장 김중규,

옥천교육청 교육장 이은자,

영동교육청 교육장 조용남,

진천교육청 교육장 연홍길,

괴산·증평교육청 교육장 이상용,

음성교육청 교육장 정인영,

단양교육청 교육장 정가흥.